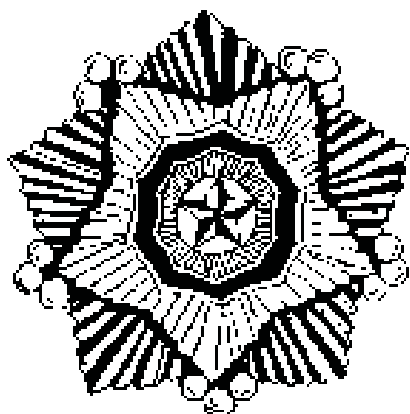




3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3호

(루계 제 641 호)

◇◇◇◇◇◇◇◇◇◇◇◇

## 차례

◇◇◇◇◇◇◇◇◇◇◇◇

선군혁명문학창작으로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고무추동하자 .....	4
위인과 음악 .....	6
봄이여, 생각깊은 봄이여 .....	7
량민보증서 .....	8
가사 《승리의 길》에서 나의 몫을 두고... ..	9
선군시대 혁명서정 .....	10
두자루의 권총 .....	13
조선사람 .....	14
지평이를 이리 주오 .....	15
시대정신의 구현과 단편소설 .....	16
나의 국토.....	20
나는 고향을 못 떠나리라.....	22
선생과 스승 .....	23
행복의 무게 .....	24
명언해설 .....	35
우리 시대 사람들.....	36
사회적문제의 예리성과 실화문학의 전투성 .....	37

복 받은 새 가정 .....	40
못 잇을 우산장의 나날에 .....	41
시를 받아 안아요 .....	42
조국(외 2 편) .....	43
고독 .....	43
내가 아니면 그 누가... ..	43
아버지 모습 .....	44
별-하나 .....	45
비녀(외 2 편) .....	49
뻘쭙새소리 .....	49
장기 .....	49
푸르른 대지 .....	50
《감성공학》과 새 제품설계 .....	56
아기앞에서 .....	57
《기니스기록집》의 유래 .....	59
여섯번째 버드나무 .....	60
광맥 .....	68
피로 장가든 총각 .....	77

## 선군혁명문학창작으로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고무추동하자

백두의 천만산악을 붉게 물들이며 21세기의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 오른 새 세기의 첫 아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끝없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를 축복의 눈송이로 맞으시며 새 세기의 솟눈길에 선군혁명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그이의 선군혁명명령도를 받들어 우리 인민은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 기세충천하여 펼쳐 나셨다.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 이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내이고 완성하기 위한 총 진군이다.

21세기에도 《E. C》에서부터 휘날려 온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 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이다.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은 21세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가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여기에는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데 대한 문제 그리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올해 공동사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이 땅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장군님의 드높지 않는 결심과 의지가 담겨 저 있으며 장군님을 따라 21세기의 승리의 천만리 길을 끝까지 웃으며 걸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맹세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고 새 세기에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고무추동하는 문학작품 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계속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아득한 만리길도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듯이 21세기 100년동안 문학의 전반적발전은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에 우리 작가들이 창작활동의 첫 걸음을 어떻게 내짚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올해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의 앞장에 서 나가는 시대의 나팔수, 시대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주로 존엄 높고 단결로 승리하며 애국애족으로 번영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받들고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데서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문학작품창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가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그런것만큼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새 세기의 중요한 과업은 21세기에도 20세기 마지막년대-《고난의 행군》과정에 창조된 선군혁명문학을 더 빛나게 건설하는것이다.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은 우리 작가들이 선군혁명명령도의 위대한 포성으로 21세기의 대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창조에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한다.

현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선군혁명문학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 등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창작하는 과정에 귀중한 창작성과와 경험을 쌓았다. 작가들은 이런 창작적성과와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형상의 폭과 깊이를 대담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작가들이 온 민족을 매혹시키고 온 세계를 격동시키신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실력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예술적화폭에 담아 보여 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시여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원로로서의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빛나는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였으며 복잡다단한 세계정치를 주도하여 인류자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여 20세기에 특출한 정치실력을 발휘하시였다.

작가들은 작품전반에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와



업적이 집중되어 있는 혁명활동력사를 철저히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이의 활동무대를 세계적판도로 넓혀 보여 주기 위한 대담한 시도를 창작실천에 구현해야 한다. 또한 그이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진지한 분석, 위대하고 풍만한 생활세부들을 위인의 숭고한 높이에서 보다 새롭게 탐구활용해야 한다. 하여 수령형상작품을 통해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21세기를 위해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이심을 사상에술적으로 품위 있게 보여 주어야 한다.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선군정치를 받들어 《ㄷ. ㄷ》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장엄한 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폭 넓고 감동깊이 형상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우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제일기수이고 돌격대인 인민군대를 형상함에 있어서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의 수뇌부사수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총대에 맥박치는 붉은기정신과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이 구체적이고 랑만적인 예술적화폭에 즐기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여 익측이 튼튼하고 종심이 무한대한 군민이 있어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승리로 빛나리라것을 강하게 울려 주어야 한다.

또한 선군혁명문학에서 큰 힘을 기울여야 할 주제영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는 선군시대영웅들의 투쟁을 반영한 현실주제작품이다.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보아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전투장마다에 승리의 포대, 21세기의 제주봉인 혁명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기고 있다. 그 사회주의붉은기가 휘날리는 곳에 시대의 영웅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의거해야 할 형상원천은 또 얼마나 무한대한가.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고난의 행군》에서 세기적위훈을 떨친 안변청년발전소군인건설자들과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과학자, 기술자들, 자강도와 대흥단사람들, 황철과 김철의 로동계급,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과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정리건설자들과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참가자들...

작가들은 현실속에서 찾은 시대의 전형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옹바로 찾아 쥐고 풍만한 정서로 일반화함으로써 이들의 성격을 지배하고 있는 계속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이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40여년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이야기, 그들이 오늘 당의 폭속에서 누리고 있

는 행복한 모습도 지성 있고 실감 있게 화폭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6. 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조국통일주제작품창작, 반체제급교양주제작품창작에도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활과 인간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선군시대정신이 뜨겁게 나래치도록 형상적측면에서도 대담하게 그 면모를 끊임없이 일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대로 모든것을 새롭게 일신시켜 나가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에 살고 있는 작가들인것만큼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보다 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종래의 진부한 창작태도와 방법으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시대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을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 낡고 뒤떨어 진것, 침체한것은 대담하게 버리고 보다 사색과 탐구를 새롭게 하고 목표를 세워도 대담하고 창조적으로 세워 작품형상전반에서 때뻗이를 해야 한다. 작품의 종자를 선택해도 주인공성격을 창조해도 구성에서도 형상수단과 수법, 문학형태개척에서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립체감이 나게 일신시켜야 한다.

올해 우리 작가들의 창작전투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90돐이 되는 다음해와 중요하게 잇닿아 있다. 그러므로 새 세기 첫해창작전투를 아버지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작가들자신부터가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김혁명의 열혈의 동지, 차광수형의 신념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실력전을 위한 강행군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실력은 창작의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여야 하며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생활체험을 많이 축적하며 그 과정에 종자를 찾아 쥐고 어떤 문제든지 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적이며 형상적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진실로 실력가형의 작가, 창작의 능수, 생활의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새 세기에도 우리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끝까지 웃으며 가야 한다. 이 길에서 우리 작가들은 지난세기보다 더 분발하여 당의 영원한 동행자답게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창작에서 시대의 기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하여 21세기 선군혁명문학의 꽃발을 풍성하고 기쁨지게, 이름답고 이채롭게 가꾸어야 할것이다.



## 위인과 음악

위인이 있어 력사의 새장이 펼쳐 지고 시대가 빛난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우리 인민은 음악의 새 력사가 수 놓아 진 주체음악시대를 노래하고 있다.

주체의 조국은 음악으로 더욱 자랑을 떨치고 온 나라 인민은 장군님의 음악정치빛아래 노래 속에 생활의 꽃향기를 풍기며 노래속에 승리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혁명적멋이 있는 화폭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생활은 노래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수 없으며 노래를 떠난 혁명도 있을수 없습니다.》**

주체64(1975)년 11월 일요일이었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나오는 노래 《꽃 피는 이 봄날에》를 감상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는 들을수록 좋은 노래라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함께 부르자고 하시였다.

그런데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믿어 지지 않으시는듯 좌중을 둘러 보시더니 그래 여기 있는 동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헤아리시고 노래에 대한 사랑은 생활에 대한 락관이고 조국과 혁명, 미래에 대한 락관이라고 하시면서 온 세상에 주체의 향기가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목표이고 드팀 없는 신념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라고 한 2절가사를 특히 좋아 하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몸소 노래를 배워 주겠다고 하시며 한소절씩 부르기 시작하시였다.

참으로 뜨거운 《노래공부》 시간이었다.

이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모인 자리에서 노래에 대한 설명을 여러차례 하여 주시면서 《동지애의 노래》를 조용히 불러 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고 동지애의 이 진리는 혁명의 개척기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먼 앞날에 가셔도 절대로 달라 질수 없는 혁명철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뜻 깊은 말씀이었다.

세상에 노래가 많아도 수령을 칭송하는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귀중한 노래는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는 음악정치의 오선지우에 이 세상 천만 꽃을 노래하는 선물을 옮겨 놓으시기에 앞서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지라는 위대한 진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노래중의 노래인 수령의 노래를 안겨 주시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며 수령님의 건강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이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지으시여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 솟는 룡남산에 오르시여 태양의 위업을 이어 가실 위대한 맹세도 노래속에 담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려는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념원이 이 땅위에 전 인민적송가로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신분도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이 세상에 소리높이 울려 퍼지고 불멸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와 더불어 수령영생의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어 울려 퍼지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수령복을 노래하고 있으니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예술종류의 하나로 범상히 일러 오던 음악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훌륭히 실현해 나가기 위한 힘 있는 무기의 하나로 보시고 음악정치로 천만사람의 심장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며 시대와 력사를 전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걸출한 음악정치가이시다.

음악정치의 지휘봉을 높이 드시고 무수한 가사와 선물에 그대로 비긴 오늘의 빛나는 시대를 열어 놓으시였으며 21세기 음악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 나가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예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궁토록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 질것이다.

# 봄이여, 생각깊은 봄이여

계훈

어디서 왔느냐 봄이여  
푸르러 가는 대지우에  
정겹게 아물대는 아지랑이 타고  
날아 날아 예는 새들이  
차거운 얼음장을 터치며  
솟아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물아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티없이 맑게 트인 하늘가에  
랑랑히 울리는 소년들의 봄노래소리  
붉은 기발 날리며 봄대지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간 겨울은 정말 추웠지  
허나 우린 모두 추운줄 몰랐지  
생각 깊던 겨울  
더더욱 생각 깊은 이 봄

파릇파릇 움트는 잔디를 쓸어 보며  
봉긋이 부푸는 꽃망울 바라보며  
그냥 앉아만 있을수 없어  
봄들판을 걷고 걷는 이 마음  
그냥 걸을수만 없어  
두손 모아 하늘땅을 부르며  
이 생각 터놓고 싶은 마음

강반에 넘치는 봄물처럼  
그리움은 가슴에 넘쳐나  
부르며 부르며  
봄이 왔다고  
허물없이 손 잡고 아뢰고 싶은  
아 아 우리 장군님

한겨울 내내  
전선길을 걸으신 장군님  
전선도 최전선 바람 찬 길에  
사랑과 증오의 자욱을 새기시며  
이 봄을 안아 오신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붉은 기폭에  
인민을 안아  
희망의 이 봄들판에 세워 주신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

하늘을 바라보면  
봄이 왔다 춤을 추는 제비떼  
마을길을 바라보면

웃으며 노래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큰 자욱 찍지 않으셨다면  
저 하늘을 날으는 제비들  
깃을 내릴 처마도 없었으리  
들판의 저 봄꽃도  
시꺼먼 발길에 짓밟혔으리  
저기 달려 가는 아이들 가슴에 날리는  
붉은 넥타이도 빼앗겼으리  
우리모두 노예가 되었으리

추위도 바람 세차도  
장군님 그리며 마음 따스했던 우리 인민  
일을 해도 길을 가도  
그이 배워 주신 병사의 보폭으로 걸었나니  
이 겨울에 조국은  
또 한걸음 큰 자욱 내짚었노라

봄이여  
생각 깊은 봄이여  
이 봄은  
강남 갔던 제비가 실어 온것 아니구나  
우리 장군님  
눈비 젖던 그 옷자락으로 정히 싸안아  
이 강산에 펼쳐 주신  
승리의 이 봄!

아, 가장 차거운 세월의 눈바람을  
한몸으로 헤쳐 오신 우리 장군님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따뜻한 봄을 불러 오셨구나

하지만 이 봄날에도  
전연초소 높은 령우엔  
우리 장군님의 발자욱 남아 있으리  
눈우에 찍혀 진 그이의 발자욱  
봄이 와도  
세월은 흘러 흘러도  
인민의 마음속에 녹지 않으리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이 강산에 짝 차흐르는 뜨거운 목소리  
장군님!

고마우신 **김정일** 장군님!

눈굽 젖어  
어디를 바라보아도  
해빛처럼 안겨 오는 장군님영상  
어디에 서보아도  
뜨겁게 울려 오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

진정  
위대한 그 영상  
저 하늘에 해빛으로 새기고 싶어  
뜨겁고 승엄한 그 노래  
날으는 저 새들에게도 배워 주고 싶어

아, 위대한 이 봄을 안아 오신 장군님께

봄들판에 피여 난 첫꽃 송이송이를 꺾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엮어  
삼가 드리고 싶은 인민의 이 마음

봄이여  
봄이여!  
아름다운 봄이여!  
열정의 봄이여!

새들도 날아 날아 노래하는 봄이여!  
봄물도 기쁨 넘쳐 노래하는 봄이여!  
길 가는 복 받은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 주며  
손 잡고 그냥 걷고 싶은 봄  
아, 장군님 안아 오신 봄이여!  
생각 깊은 조국의 봄이여!

## 량민보증서

김경기

온 마을이 시위에 떨쳐 나선듯  
젊은이 늙은이 아녀자들만이라  
더벅머리 까까머리 어린 소년도  
다투어 경찰서로 밀려 들었다  
우리 《옥순》이를 내놓으라고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우리 딸을 내놓으라고

-옥순이를 내놓으라?...  
경찰서장은 금테안경 추슬러 올리며  
옥문 자물쇠를 《넋뽀도》로 두드렸다  
-좋다, 옥순이를 량민으로 인정한다는  
500명의 보증서만 받아 오라  
그러면 옥문은 스스로 열릴것이다

그리곤 교수염을 비틀어 올렸다  
(감히 어느 놈이  
무시무시한 《공비》를  
함부로 목 내대고  
량민으로 보증하겠는가?  
으흠, 어림도 없지)

허나 그들은 찍었더라  
량민을 증명하는 보증서에  
결석을 수치로 아는 학생들처럼  
다투어 찍었더라  
지주집 담장아래

귀뚜라미처럼 쉼게 울던 종살이소녀  
열병에 걸려 산중 풀막에 버려 진  
이슬 같은 운명에  
소생의 숨결 부어 주신 인정미에 끌리어

못벌들도 초롱불을 켜들고  
야학방 창가로 모여 오던 밤  
어머님 따라 우리 글을 익히며  
어머님 따라 혁명가요 부르며  
삶의 해돋이를 마중하던  
그 더벅머리카까눈들이

금시 터질듯한 시한탄을 쥐는듯  
번쩍이는 석자 칼날을 잡는듯  
일제의 마지막부고장이라도 받는듯  
량민보증서를 받아 쥔 놈들은  
떨리는 손으로 옥문을 열었더라  
저들의 머리우에 가차없이 찍혀 질  
마지막패망의 락인을 깨달으며

오 오 량민보증서  
그것은 웃어도 남을 위해서만 웃으시고  
울어도 남을 위해서만 우신 김정숙어머님  
사랑했다면 인민에 대한 사랑밖에 모르고  
행복했다면 인민을 위해서만 행복하신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인민의 증명  
인민의 절대믿음 최대신뢰에 대한  
력사의 증거이었더라



수기

## 가사 《승리의 길》에서 나의 몫을 두고...

차영도

자기가 쓴 작품에서 자기 몫을 론한다는것은 극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본래의 의미에서 작품이란 그 전체가 작가의것, 작가의 몫이 아닌가. 그렇다. 모든 글이 이렇게 될 때만이 작가는 참다운 의미에서 자기 작품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더불어 가슴 뿌듯한 창작적공지를 느껴 보게 될것이다.

그러나 창작이란 결코 뜻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여서 의도가 어떻게 되었지만 써놓고 보면 《이 작품속에 과연 나의것, 나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이속에 내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식의 피치 못할 자문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은 속이지 못하기때문이라.

글속에 자기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은 레외없이 작가가 어떻게 되어 붓을 들었으며

어떤 생활적 또는 시대적목격 앞에서 얼마나 자기 심장을 뜨겁게 두드렸는가에 따라 규정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 《승리의 길》에 나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놓고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리도 과분히 치하해 주신 그 값 높은 평가의 말씀앞에 나는 자연 송구스러워 짐을 피할길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 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지기마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 《승리의 길》이 아주 좋다고 하

시면서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난관을 뚫고 나가면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사상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구절이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너무도 분에 넘친 평가앞에서 참으로 죄책감을 금할수 없다. 내가 무엇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그처럼 과분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가사속에 시인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볼수록 머리가 뻑뻑이 받아 안을수 없는 과분한 평가가 아닐수 없다.

(왜 1절과 3절 가사내용에도 장군님께서 기뻐 하실 명구절들을 박아 넣지 못했을까. 왜 작품에 좀 더 열정과 피를 쏟아 붓지 못했을까.) 물론 때늦은 후회에 불과한 아픔이다.

따져 놓고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시인의 몫은 한구절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불과 4행 3련으로 씌여진 자그마한 가사작품에서조차 실질적인 자기 몫을 죄스러이 찾아 보게 되는 작가의 심리적아픔을 독자들과 시인들은 심분리해해 주리라 본다.

작품에서 자기 몫이라고 몇몇이 말할수 없는 이여의 다른것은 분명히 《남의것》이다. 읽고나면 늘 듣던 소리 같은것, 새로운것이 없는것, 상식적인 라렬에 불과한것, 신문사설이나 방송에서 자주 듣는 정치구호적인것, 이 모든것이 어찌 《남의것》이 아닐수 있겠는가.

그렇다! 엄연한 의미에서 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가해주신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이 한구절조차도 나는 시인의 참다운 몫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이의 혁명관, 미래관이며 오늘 우리 인민모두가 안고 사는 인생관, 투쟁관을 가사에 그대로 옮겨 놓은 구절에 불과한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가사에서 자기 몫에 대하여 응당히 가슴 저린 자책을 가져 보지 않을수 없다.

무릇 가사창작에서는 《한대목》, 《한구절》, 《한마디》라는 말이 시우들속에서 자주 떠돈다.

그런 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에서도 우리의 붉은기에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 있다》는 《한마디》가 가사전체에 얼마나 큰 철학적무게를 얹어 주었는가. 그렇다고 하여 가사창작에서 《한마디》만을 보물 창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사전체가 《보물》이 되어 나쁠진 뭐가. 이렇게 되자면 마땅히 가사의 전체가 자기의 몫이 되어야 한다.

가사의 전체가 자기의 몫! 이를 위해서는 너나없이 고심 어린 탐구의 낮과 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사 《승리의 길》의 창작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두번다시 때늦은 후회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탐색하고 또 탐색함으로써 작품들속에 뚜렷한 자기의 몫을 나의 얼굴처럼 당당히 보여 주려고 한다.

하여 위대한 음악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명실공히 명가사로써 보다 큰 기쁨을 마련해 드릴것을 독자들과 약속하게 된다.

## 선군시대 혁명서정

김철민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이 20세기의 마지막언덕  
우에 피와 땀으로 아로새긴 이 말을 나는 평론의  
종자로 삼으려고 한다.

왜냐 하면 《조선문학》[주체89(2000)년 7호~1  
2호]에 실린 시작품(서사시는 제외)을 읽고 이  
말을 생각했으며 이 말을 통하여 작품평가와 분  
석의 방향도 말하자는 미학적주장도 가질수 있게  
되었기때문이다.

붉은기와 우리 시문학!

항일혁명시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문학  
에서 붉은기노래의 력사가 흘러 온지는 오래지만  
수년간에 걸쳐 가렐치절한 붉은기수호전을 벌려  
온 우리의 선군혁명시대에처럼 시인들이 그토록  
많이, 그토록 절절하게 붉은기를 노래해 본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열화 같은 그리움으로  
붉고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신념으로 붉고 혁명  
적량만으로 붉은 백두의 붉은기!

선군시대 우리 시문학의 서정은 혁명서정인  
며 그것도 휘날리는 혁명서정이다.

혁명서정을 반영하는것과 휘날리는것은 다르  
다. 휘날리는 붉은기를 통해서만 그 세찬 퍼덕임  
소리를 들을수 있는것처럼 혁명서정도 휘날려  
야 커다란 정서적힘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  
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시인들이 가장 뜨거운 인간감정과 진실한 생활  
의 탐구에도, 눈 부신 시적발견과 참신한 정서적  
형상에도 사색과 체험을 끊임없이 달릴 때 붉은  
기서정은 휘날리게 된다. 그렇다. 선군시대 붉은  
기서정은 뜨겁고 진실한 서정이여야 하며 새롭고  
참신한 서정이여야 한다.

### 그리움의 시

우리 인민은 력사의 제일 어려운 고비를 오직  
자기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 하나만을 가지고 불  
사신같이 헤쳐 넘어 왔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우리 시인들  
의 제일 큰 관심사로 된 미학적문제의 하나가 바  
로 그리움이였다고 할수 있다.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그리움속에 내가 살고  
우리모두가 산다는 그리움의 철학! 그리움의 철

학이 우리 인민에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우리 시문학에는 뜨거운 열정과 진실한 서정을  
주지 않았던가! 실로 그리움의 철학이야말로 우  
리 시문학에서 혁명서정이 휘날리게 하여 준  
정서적 바탕이며 생명력의 원천이다.

시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김충기),  
련시 《비범한 생에 대한 생각》(황성하), 시초  
《전선길에 승리가 빛난다》는 그리움의 철학을 형  
상에 깊이 있게 구현하고 있다.

시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에서 연백  
벌의 농민인 서정적주인공은 벼모가 푸르른 봄날  
의 들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수령님께  
서 농장에 오셨던 8월의 들길을 걷는다. 자나깨  
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좋은  
작황을 안아 오려는 불 타는 열망이 그로 하여  
금 《연백의 사시절은 언제나 8월》이며 《수령님  
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  
당한 정서적주장을 가지게 한것이다.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농민들  
의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체로 농장에 남  
기신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을 노래하고 그에 대  
한 추억으로부터 오는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그쳤  
다는 사정을 념두에 둘 때 작품에서 농민의 본분  
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부터 시작되고 깊어 지는  
그리움을 형상한것은 크게 공감할만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련시 《비범한 생에 대한 생각》에서는 위  
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영생이  
우리 인민의 한 없는 그리움속에서 지켜 진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해명하고 있다.

이 땅의 찬눈을 어머님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 주신것은 따스한 봄빛  
위대한 장군님 모시여  
그 봄빛이 그리도 소중한 이 땅에서  
새겨 볼수록 더듬어 볼수록  
너무도 가슴치는 눈속의 한생이여서

하박하박 눈송이도  
그리움에 젖고 젖은듯  
끝없이 내리는 흰 눈송이에  
이 마음 싹고 실으며  
내 그리움의 눈바다를 하냥 저어 가노라

-시 《12월의 눈》에서-

우리에게 수령복, 장군복이 넘치는 따스한 봄날을 주시려고 어머니께서는 것처럼 한평생 찬눈을 맞으시었던가!

의미심장한 정서적느낌이 요란한 시어로가 아니라 너성적인 부드럽고 소박한 표현들로 노래되고 있다. 평범한 말속에서 깊은 뜻을 느꼈을 때의 여운이 가슴을 파고 든다.

이러한 정서적여운은 《조선의 위대한 미래를 안아 올리》신 어머니의 따스한 손을 영원히 놓을 수 없다고 한 시 《어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비껴 내리는 달빛을 노래한 시 《달밤의 명상》에서 더욱더 깊어 지다가 시 《생의 의미》에서 나이는 비록 32살에 끝났어도 어머니의 위대한 생애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승리하는 세월속에 영원히 흐른다는 형상적결론에 이르러 마무리되면서 지울수 없는 감흥으로 남는다.

이처럼 시 《수령님은 오늘도 별에 계신다》와 런시 《비범한 생애에 대한 생각》이 그리움의 서정으로 백두산위인들의 영생을 노래한 작품들이라면 시초 《전선길에 승리가 빛난다》는 그리움의 서정으로 선군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칭송한 작품이다. 이 시초는 우리 시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에 자신들의 심장과 붓대를 확고히 따라 세우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크게 웅변한 지난해의 성과작이다.

시초에는 《첫 자욱》(박천결)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몇년전 전선길에 찍으신 첫 자욱의 의의를 강렬한 주정토로써 노래한 시가 있는가 하면 《귀속말》(주광일), 《병사들에게 영광을!》(계훈), 《샘물이야기》(김진주)처럼 장군님의 전선길에 새겨진 감동깊은 일화들을 시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한 시편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총이여》(리창식)와 같이 정론적인 분석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주신 총의 의미를 파고 들어 형상한 시도 있고 《세상에 오직 한길》(오필천)처럼 사색적인 음조로 장군님의 전선길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그리움의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칭송, 선군혁명로선의 필승불패성에 대한 확신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형상하고 있는 여기에 시초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비결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움의 숭고한 철학이 위인칭송의 정서적형상속에 뜨겁게 무르익은 실례는 이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의 로동계급에게 돌려 주신 사랑을 노래한 장시 《장군님과 김철》(전승일)과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섬세한 시적 묘사로 보여 준 시초 《추억 깊은 모란봉》(정은옥)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혁명서정속에 구현된 그리움의 철학! 그것은 문자의 표현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열정이어야 하고 백광처럼 눈 부신 발견이어야 한다.

## 신념과 랑만의 노래

여기에 시 3편이 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돌아와 안기던 9월의 감격을 노래한 시 《불사조들이 돌아왔다》(정성환), 《받으시라 이 꽃다발을》(정혜경), 《상봉》(김정곤)!

그대들 군복 입고 전선으로 떠날 때  
들꽃 한송이 꺾어 드리지 못하고  
내 이제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오리오리 희여진 그 백발앞에

-시 《받으시라 이 꽃다발을》에서-

시인은 비전향장기수들이 군복 입고 떠날 때 들꽃 한송이 꺾어 드리지 못한 송구스러움을 안고 시의 꽃다발을 엮는다. 하지만 송구함만으로 엮은 꽃다발로야 어찌 《한초한초를/백년천년으로 씹어 보내며/백발로 신념의 꽃을 피운》 그들에게 축하를 드릴수 있으랴. 조국은 그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겨 줄것이다. 시에서는 그 꽃다발이 《굽이굽이 전선길에서/그대들 이름 부르고 부르시며/우리 장군님/동지애의 뜨거운 사랑으로 엮으신》 꽃다발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들꽃 한송이로부터 시작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의 꽃다발에까지 이르는 정서적체험은 그저 범상하게만 여겨 지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꽃다발의 화려함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상념에서 벗어 나 꽃다발에 실리는 철학적무게를 밝히려는 진지한 사색을 추구한 정서적체험인것으로 하여 새롭고 감명 깊게 안겨 온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체험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는 신념의 꽃다발을 백발의 머리위에 높이 추켜 들고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조국이 드리는 축복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나선 시 《불사조들이 돌아왔다》나 조국의 장한 아들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는 순간의 극적충동을 노래한 시 《상봉》도 마찬가지이다.

이 3편의 시들에서 한결같이 울리는것은 투철한 신념과 의지에 대한 격찬의 감정이다.

선군시대의 서정인 혁명서정이란 곧 신념과 의지의 서정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적신념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사를 통하여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인것이

다.

선군시대 혁명서정으로 구현되는 신념과 의지의 감정은 시련과 고난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순결해 지는 사상감정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이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작품에 혁명적신념을 형상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 《시련의 날에 더 사랑하라》(김석주)도 긍정할만한 형상을 보여 주었다고 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나날에 겪은 시련이 그저 힘겹고 엄혹하기만 한것이었던가!

시에서는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이 있어야 했던듯》 하다고 토로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난을 진두에서 헤치시며/강성부흥으로 안고 가시는/이 조국》을 시련의 날에 더 사랑하라고 격조높이 웨친다.

조국을 알게 해주고 신념을 더욱 억세게 하여준 시련! 이러한 시련을 노래하는 인간들의 감정은 밝고 량만적이다. 시련에 대한 노래가 량만의 노래로 되는 여기에 시대감정에 대한 정당하고도 진정한 이해와 공감미 있지 않겠는가.

시련속에서 더높이 울려 나오는 량만의 노래가 또 있다.

저 사내애가 바로  
눈매 부리부리한 얼굴에 검댕이 칠한  
저 사내애가 바로 내 아들이예요

불의 고장에 태어나선지  
그저 불장난밖에 몰라요  
놀음도 밤낮 쇠물... 용해공놀음

극히 소박하고 생활적인 시어로 아들을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매일 만나는 옆집녀인에게 이야기나 하듯이 스스럼없이 표현한 시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럼형미)!

작품에서는 장난꾸러기아들을 《이 나라 사나이들중에서도/제일 억세고 뜨겁고 강의한/철의 도시 대장부》로 키워 가며 《강성대국의 굳건한 철기둥을 부어 가는/나는 엄마-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이 나라 녀인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순결무구한 모성애와 아름다운 행복관을 시대적요구의 견지에서 일반화하였다.

우리 시대의 신념이란 바로 이렇다.

우리 수령, 우리 조국, 우리 식의 생활에 대한 신념은 이렇듯 찬란한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과 뻔수없이 결부되어 있는것으로 하여 밝고 낙관적이고 량만적이다.

신념이 있는곳에 량만이 있고 량만이 있는 곳에 신념이 있다.

시 《비단의 녀변》(김정철)과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홍철진), 시초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홍현양)도 량만의 정서를 시대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켜 보여 준 작품들이다.

약산동대로 이름 높은 녀변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비단 짜는 고장으로 그 이름 더욱 높아 진데 대하여 류창하게 노래한 시 《비단의 녀변》이나 육체적인 불행과 고통을 정신적인 힘과 의지로 이겨 낼줄 아는 참된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시화한 시초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와 시 《내 아들이 돌아 왔습니다》는 시련속에서 량만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다양한 생활체험에 대한 정서적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작품들에서 신념과 량만을 얼마나 개성적으로 참신하게 노래하였는가는 더 논의에 붙여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 선군시대 혁명서정이 신념과 량만의 서정이며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휘날리는 혁명서정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인하여 볼수 있다.

## 20 세기를 마치며

《조선문학》의 20세기 마지막 여섯호에 실린 시작품들을 보면 마치 우리 시인들이 세기를 마치며 풍성한 주연이나 차린듯 싶다.

갖가지 형식이 다 있다. 일반서정시, 장시, 시초, 단시초, 교훈시초, 벽시, 교훈시, 풍경시... 그 가운데서도 교훈시 《가을날에》(홍문수), 벽시 《교육자가 사는 계절》(백광명), 풍경시형식의 시초 《모란봉꽃시초》(정은옥)는 형태적인 특성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이채롭다.

교훈시 《가을날에》를 보면 시에서는 자연에 가을이 있듯이 인생에도 가을계절이 있다는 전체 하에 얹힌 이삭으로 해빛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지처럼 삶의 열매를 익히지 못한다면 한생이 어찌 허무하지 않겠는가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을의 교훈이 인생을 두드릴 때 깨우쳐진 진리의 크기는 참으로 크다고 할수 있다. 교훈이란 말 그대로 교훈을 주는 시인만큼 교훈의 크기에 시의 무게가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은 교훈시로서의 가치가 담보된다고 해야 할것이다.

또한 벽시 《교육자가 사는 계절》은 두개의 시련으로 교육자는 교단에서 《옴 트는 새싹에 즈음 주며/꽃을 가꾸며》 인체나 봄, 여름에 살지만 마음만은 그 꽃들이 《알찬 열매로 무르익을》 풍요한 가을에 산다는 내용을 박력 있게 보여 줌으로써 기동성, 호소성을 가진 벽시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으며 시초 《모란봉꽃시초》는 모란봉의 화초들에 비친 당파 수령의 령도업적과 우

리 인민의 충성심을 여성적인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시대정신이 구현된 풍경시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인 미감과 요구에 예민한 촉수를 뻗치고 참신한 감정정서를 다채로운 시형식으로 노래한 실례는 이밖에도 20세기의 인간과 생활을 총화하는 사상감정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심오하게 보여 준 단시초 《20세기에 남기는 시편들》(김명익)과 편시형식의 시 《나의 한세기》(김일규)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시작품들은 시인들의 왕성한 창작적욕과 진취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창작적충동이 주관적욕망으로 이어 저서는 안된다.

두 세기의 분기점에서 시인들의 사상감정은 고도로 양양되어 있다. 보통사람들도 흥분이 앞서는데 하물며 시인들임에야...

새 세기를 맞는 감흥을 보여 준 작품들가운데는 시 《새 세기와 공민증》(전승일)과 시초 《청춘이여 이 길로 가자》(김상조)중 시 《미래에 주는 유물》도 있다.

위대한 조국의 공민임을 증명하는 공민증을 안고 새 세기에 들어 서게 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시 《새 세기와 공민증》에서는 《장군님조국의 이 공민증만이/21세기 네앞에 가장 힘 있게 들어 설/정의의 출입증》이라는 백번 정당한 형상적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를 정서적으로 공감되도록 타당

성 있게 퍼나가지 못한것으로 하여 주관적인 형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 《미래에 주는 유물》은 해진 마대와 모지라진 함마에 깃든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후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장렬하게 보여 주고 있으나 여러번 강조되는 《유물》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가지는 미적느낌을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풍만한 정서적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작품들인 경우 일정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함이라기보다 21세기앞에 우리 시문학이 던지는 형상과제를 시사해 주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20세기를 마치는 우리 시문학은 새 세기앞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더욱 강렬하고 참신하게 노래하는 문제, 설명이 아니라 느낌을 표현하는 문제, 시형태들간의 구획을 명백히 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미학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선군혁명시문학은 21세기에 가서도 혁명서정을 더욱 힘 있게 휘날리는 시문학으로 될것이다. 그러자면 시인들이 보다 왕성한 정열과 투지를 가지고 끝 없는 사색과 탐구에도 जु달음쳐야 할것이다. 조국과 인민은 20세기를 마치며 혁명의 서정을 힘차게 나뉜 우리의 시인들에게 영광을 드린다.

## 두자루의 권총

### 신문경

새 1000년의 대문을 열고  
세기와 세기의 문턱을 넘어  
안고 온 한세기의 소중한 그 모든것 우에  
총은 놓여 있다 두자루의 권총

의병의 칼도 꺾이워 나뿔굴고  
독립군의 총도 땅에 묻혀 녹 쓸 때  
자주적무장력의 한점 불꽃으로 타오른  
김형직선생님의 두자루의 권총

민족의 혈통 애국의 녀을  
이 총에 담아 선생님 물려 주실 때  
젊은 장군의 피 끓게 한 그 힘을  
천만의 가슴에 오늘도 장탄해 주는 총

원대한 뜻도 참된 동지도

군세계 지키게 한 그 힘이 여기 있고  
추위와 굶주림과 모진 악형의 각오를  
웃으며 지니게 한 그 힘도 여기 있어  
강철의 대오 맨 앞장에  
가장 빛나는 두자루의 권총

세기에 높이 날리는 선군의 기치  
그 기발을 우리르는 인민의 가슴에  
자주적총대의 첫 모습으로 새겨 진  
김형직선생님의 두자루의 권총

아, 민족존엄수호의 무한한 길을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 밝히며  
무수한 총검의 대오속 가장 위력한 무기로  
두자루의 권총은 솟아 빛난다  
빛나며 반제의 길을 굳건히 가리킨다



# 조선사람

리용을

## 1

사람됨이 어질고 순진한탓에  
눈물에 젖어 불리웠던가  
마음 깨끗하고 량심 바른탓에  
피에 젖어 불리웠던가

이삭이 파란 보리밭은 빗값에 떼우고  
눈보라치는 한겨울 집도 헐리우고  
설음 젖은 보짐에 바가지 데롱데롱  
이국의 광야에 나딩굴던 그 이름

빼앗긴 제 나라 찾을길 없어  
머나먼 이역땅 비 내리던 거리에서  
배를 갈라 혈분으로 적시고  
낮 설은 초야에 묻힌 처량한 그 이름

아, 조선사람!

## 2

평범한 생활에도 눈물 글썽해 저라  
불물이 사품치는 출선의 새벽  
물주리 든 로장의 느슨한 그 웃음  
모내는기계우에서 꽃수건 휘두르며  
익살군총각들에게 경쟁을 거는  
처녀의 그 맑은 목소리에도

아 눈물 글썽해 저라  
이 땅에서 날아 오른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돌며 부르는 불멸의 송가여  
이 땅에서 걸음 익힌 민족의 딸이  
세계의 눈길 모인 썬빌라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린 람홍색기발이여

누가 주었던가  
한번 우러러  
품은 마음 버린 일 없고  
따라 선 걸음 돌아 선적 없고  
부르면 달려 와 철통같이 몽치는 힘  
막히면 몸을 던져 폭탄으로 터치는 그 억세임

정녕 그 누가 주었던가  
걸어서는 세월이 없고  
뛰어서는 성차지 않아  
날고 싶은 마음에 청동의 깃을 달아

강선의 불노을을 화불로 펼쳐 든 그 기상  
세월의 광풍 모질수록 더 억척스레  
지구를 진감시키는 장엄한 발구름...

묻지 말자  
어찌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  
적진속에 한몸 육탄이 되면서도  
하늘땅 뒤흔든 최후의 한마디  
《한별 만세!》를 웨치였는지

넋이었다  
신념이었다  
그것은 동지애였다  
멀리 사령부를 눈더듬하며  
적을 달고 사라져 간 그 총소리  
허를 끊어 죽으면서도 그리워  
백두산을 바라보던 그 젖은 눈빛

불러 보면 평범한 이름들이고  
만나보면 어진 성품 지녔어도  
남보다 다른 배심을 가지고  
남보다 다른 철리로 살아  
죽어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죽어도 웃어 죽는 그 정신이여

유구반만년에 처음 맞이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알고  
수령의 귀중함을 알아  
태어난 품은 서로 달라도  
아버이 한품속에 한 숨결로 고동친 심장들

얼마나 높이 걸었던가  
조선사람이란 그 부름을  
그 부름속에 이기는데 습관되고  
오늘은 승리가 이름으로 되었어라

아, 조선사람!

## 3

조선말을 하여 조선사람이던가  
조선옷을 입어 조선사람이던가  
말하지 말라  
수령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인생관 지니지 못했다면

조선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수령의 초상화를 소중히 품고  
검은 연추 목에 건채 바다속에 잠긴  
불굴의 사나이도 있어라  
한그루 구호나무를 안고  
불에 탄 병사도 있어라  
있어라 바람 찬 자강도 산골에서  
세벌농사의 알찬 열매 무르익힌 너인도

수령과 호흡을 같이 하고  
수령의 뜻으로 삶의 자욱 새겨 가는  
그것이 체질로 된 사람  
신념도 의지도  
담력도 배짱도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사람들

누르면 더 도고히 머리 쳐들고  
험한 길은 더 곳곳이 헤쳐 나가는  
그것이여라  
조선사람의 고결한 기질

정녕 그것이여라  
고난의 언덕을 억척스레 딛고 넘어

새 세기의 하늘가에 나래쳐 오른  
기세찬 준마의 나래  
강성대국령마루로 구보로 달음치는  
열정에 넘친 거센 숨소리...

장엄하여라  
노을물 든 붉은 하늘가엔  
찬란히 눈 부신 태양  
신심에 넘친 환하신 미소로  
진두에 계시는 **김정일**장군님  
우러러 온 나라가  
붉은 대하인양 굽이치나니

아 조선사람! 그 부름은  
끓으며 노도치는 열정이란 말  
웃으며 전진하는 랑만이란 말  
그 부름은 굽힐줄 모르는 의지!  
그 부름은 억세고 도도한 기상!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아라  
이 세상 가장 성스러워라  
위대한 그 부름  
아아, **김일성**민족이여!

## 지팡이를 이리 주오

(비전향장기수의 안해가 부른 노래)

송명근

떠나던 날의 그 모습은 간 곳 없고  
반세기가 가깝도록 그려 온 그 모습도 아니고  
이제 웬일이요  
백발인생 지팡이에 의지하고 돌아 왔으니

그 지팡이를 이리 주오  
기름가마가 끓는 지옥에서  
그 모진 옥살이 40여년  
들것에 들려 나와  
혈육 한점 없는 남녘의 거친 땅에 던져 진  
육신을  
오랜 세월 의지하여 준 지팡이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돌아 왔으나  
당신은 비틀걸음으로 오지 않았소  
길을 헛들지도 않았고  
에돌지도 않았고

곧추곧추 왔소  
이 안해가 기다리는 집  
어머니조국이 기다리는 품으로

이리 주오 그 지팡이를  
이제 당신앞엔  
어둠이 없소  
진창길도 가시덤불도 없소  
보시구려 온 나라에 펼쳐 진 환영의 꽃바다를  
금방석에 앉혀 주시는 어버이사랑을

버림시다 이 지팡이를  
결별합시다 암흑인생을  
당신곁에  
이제는 내가 있소  
한생을 걸음걸음 지켜 주고 이끌어 줄 조국  
아, 위대한 장군님 손길이 있소!

## 시대정신의 구현과 단편소설

-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읽고-

김선일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빛나는 20세기의 마지막해에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이것은 선군혁명문학의 개화발전을 위해서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계속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살고 있다.

력사의 낡은 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발걸음, 그것은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기어이 열어 놓으려는 신념의 발걸음, 의지의 발걸음이다.

시대의 이 기상과 전진운동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중요한 과업이며 여기에서 단편소설은 그 특성으로 하여 다른 형태보다 응당 앞장 서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은 일련의 긍정적인 창작성과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 귀중한 진리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을 옳바로 파악할수 없다. 그러므로 생활의 한 단면, 한 계기를 통하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단편소설에서도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령의 풍모를 그리는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단편소설 《따뜻한 눈》(최영학)과 《대홍단의 아침노을》(조상호)은 이런 면에서 의의 있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은 각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서로 다른 력사적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같이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고 있다.

단편소설 《따뜻한 눈》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복잡한 경력을 가진 한

일군에게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보여 준 작품이다.

주체40(1951)년이 다 저물어 가던 어느 겨울날, 림병선에게 미국의 물리학자인 《원자폭탄의 아버지》 아인슈타인의 개인편지가 온것을 계기로 그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다.

전쟁쌍방의 주요인물들사이에 공작을 벗어난 이른바 《개인서한》을 주고 받을수 있단 말인가? 원칙적으로는 이를 내용으로 간주하고 심중한 검토를 거쳐 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이런 관점이 과연 정당할것인가?

소설은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심! 그것은 증오로 번져 지고 이것이 성하면 원자탄보다 더 철저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를 전멸시키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의 운명은 말할것도 없고 사회의 영원한 요람인 믿음과 사랑의 세계도 잃을것은 명백한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림병선의 과거와 인간됨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에게 더더욱 커다란 믿음을 베푸시며 아인슈타인과의 우정도 되살려 주시는 내용, 적포로수용소에서의 대우개선대책을 세우시는 내용, 전선길에서 만난 교아를 최고사령부에 데려다가 돌보시는 내용 등을 림병선과 아인슈타인의 공동연구과제인 《인간구원의 길》을 찾는 문제와 하나로 이어 놓고 있다.

이것이 결국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의 해명으로 되며 혁명의 진리, 인류의 운명개척의 진리를 밝히는것으로 되는것이다.

하여 소설은 한사람한사람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믿는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으로부터 무조건 믿고 정을 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묶어 세우면 혁명승리의 력사를 개척할수 있다는 뜻 깊은 진리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행복하고 싶은 인류의 념원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실현될수 있었음을 형상적으로 강조한데 작품의 사상에술적성과가 있다.

작품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혁명정세가 어려워 지고 시련과 난관이 겹

쌓일 때일수록 사람들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과 정으로 동지들과 인민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이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 인류의 운명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밝힘으로써 오늘의 혁명실천의 요구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여기에 소설이 력사의 과거를 취급하면서도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한 근거가 있다.

단편소설 《대흥단의 아침노을》은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 준 작품이다.

가셔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지만 제대군인마을을 꼭 보고 가야 한다시며 제대군인 최남철의 가정을 찾으시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세간살이를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한때 파오를 범하여 어깨가 처져 있는 리덕삼을 찾으시여 그가 다시 일어 나도록 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의 건강이 나빠 지는것을 념려하시여 평양에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소설에서는 이러한 화폭을 펼쳐 보이다가 최남철의 안해 정녀의 부탁을 허물없이 들어 주시고 앞으로 태여날 아이들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 주시는 장면에서 축적되어 온 감정을 터쳐 놓고 있다.

소설은 한결을 더 나아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음으로 하여 이 세상 가장 크고 뜨거운 사랑이라는것을 밝히는대로 지향함으로써 예술적일반화의 심도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혁명전사들과 우리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감동 깊게 그려 낸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새롭게 해결한 성과는 덕성이야기 그자체를 취급하였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여 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의 견지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관점문제해결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는데 있다.

제대군인들은 당의 뜻을 받들자고 조국땅 한끝인 여기 대흥단까지 달려 와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전선을 담당한 혁명가들이기에, 공산주의문어구에 제일 먼저 들어 서야 할 선봉투사들이기에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시며 한없이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한데 소설의 의의와 감화력이 있는것이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덕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구실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강행군길을 가는 오늘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인민생활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이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어 나가는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과 함께 뜨거운 인정미를 중요한 품성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는것이다.

소설은 리덕삼의 체험을 이런 각도에서 심화시켜 그의 심리를 파고 들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덕성이야기를 인간학적으로 훌륭히 소화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이 제기하는 의의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밝히었다.

하반년에 발표된 이 두 단편소설은 앞으로의 수령형상창조에 귀중한 경험을 주고 있다.

## 인상 깊은 성격을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사상에 술적성과는 중요하게 그가 창조한 성격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치며 강성부흥의 래일을 향해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성격적미는 어디에 있는가?

리대국영장(단편소설 《꽃강냉이》), 광용팔영웅과 그의 안해 수림(단편소설 《푸른 사랑》), 리인학(단편소설 《높은 요구》) 등은 여기에 대답을 줄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을 뚜렷한 개성으로 체현한 매력적이며 인상 깊은 성격들이기때문이다.

단편소설 《꽃강냉이》(김홍철)의 주인공 리대국영장은 어떤 성격인가.

그는 한마디로 말하여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조국의 운명과 리대국의 운명은 하나로 련결되어 있으면서도 여느 사람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 리대국의 이러한 성격형상은 꽃강냉이의 설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산촌의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삶은 꽃강냉이, 그것은 리대국의 운명과 깊숙이 밀착되어 있으면서 그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드러내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리대국을 누구나 달게 먹는 꽃강냉이를 《아이적에는 눈도 돌리지 않던》, 《특이체질》로 묘사하고 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꽃강냉이 몇이삭때문에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강보에 싸여 젖동냥하다가 할머니가 씹어 준 강냉이를 먹고 죽을번한 대국이, 그러니 그가 강냉이와 담뱃을 쌓게 된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대국은 인민군대에 입대한후 어느 날 기통임무 수행중에 아버지수령님께서 구운 강냉이로 끼니를 에우시며 현지지도의 먼 길을 이어 가셨다는 현지지도표식비를 보고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며 꽃강냉이와 한생의 인연을 맺게 된다.

소설은 이렇게 리대국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뚜렷이 그릴수 있는 전제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인상 깊게 창조할수 있었다.

혈혈단신인 자기를 안아 키워 준 《고마운 이 세상을 빼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받들고 지켜야 한다》던 할머니의 당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며 일하는 리대국경장.

소설은 그를 광산에서 일하는 수십년동안 언제나 계획을 남보다 넘쳐 수행하고도 《늘 일에 불만족》을 안고 일하는 《명령경장》으로 형상하면서 《고난의 행군》의 준엄한 시기에 그의 성격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식량이 떨어 저 어렵던 시기 리대국의 가슴속깊이에 간직된것은 비바람 헤치시며 전선길을 걸으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자신들이 쓰러지지 않고 따라 선줄 아시면 우리 장군님의 절음이 한결 가벼워 지리라는 믿음이었다.

하기에 그는 《꽃강냉이 한이삭도 달게 씹으며 시련을 이기구 사회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자기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시대의 영웅적성격으로 빛나는것이다.

작가는 리대국의 성격을 그리자고 그 어떤 《작작》도 《가공》도 하지 않았다. 사실이 어디까지이며 허구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볼수 있는 진실하고 생동한 성격으로 그려 진것이 바로 리대국이다.

소설은 한 인간의 한생을 취급하고 있지만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내용을 엄밀하게 취사선택하고 세련된 필치와 인상적인 세부묘사, 짜인 감정의 흐름속에 주인공의 성격을 시대의 높이에서 전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마디로 작가의 전형화의 솜씨, 높은 창작기량을 엿볼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단편소설 《푸른 사랑》(양의선)에 그려 진 박용팔과 그의 안해 수림의 성격도 매력적이다.

《입만 벌리면 심장이 들여다 보이는 성격》의 소유자인 《숲의 영웅》 박용팔, 《산의 정기를 타고나 사람을 홀리우는 고운 처녀》였던 《숲의 요정》인 수림, 작품은 이들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영웅의 성격적미와 그 사상정신적바탕을 해명하는데로 지향하고 있다.

작품은 박용팔과 수림의 사랑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심어 주신 조국애의 숭고한 높이에서 맺어 지고 꽃 피난것으로 하여 그토록 아름답고 순결한것임을 밝혀 내고 있다.

해방된 이듬해 폐망한 일제가 불 태워 버린 숲을 두고 그리도 가슴 아파 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산림지기의 딸의 애인을 《량심과 진실한 사랑이 가리키는 길》, 숲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여 다래골산림보호원(감독원)부부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무성한 숲을 가꾸어 나간다.

박용팔이 그 숲의 새 주인으로 자라난 수림이와 함께 한생 숲을 가꾸어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인생의 고귀한 진리와 믿음을 받아 안은데 있었다.

사랑도 애국의 뜻을 떠나서는 꽃 피울수 없으며 조국애를 떠나서는 설사 한지붕아래 살아도 남과 같고 이에 충실하면 가까운 혁명동지이고 벗이라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 작품에서는 이것이 박용팔부부의 사랑이 맺어 지고 꽃 피나 조국의 숲을 무성하게 가꾸는 영웅적위훈을 낳게 한 근본바탕임을 뚜렷하게 해명함으로써 전형화의 수준을 시대적높이로 끌어 올리고 있다.

소설은 박용팔과 수림의 성격을 참신하고 개성적인 성격으로 그리는데도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영웅이라고 해서 무게 있고 말이 적고 침착한 사람일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어 옅고 외모도 일손도 거칠다는 첫 인상, 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레철조차 차릴줄 모르는 인간으로 느껴 지던 박용팔이 사색도 있고 소탈하고 진실한 성격으로 안겨 오게 한것은 예술적흥미를 보장할뿐아니라 성격을 인상 깊게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더우기 박용팔이 군사복무기간 결단과 용감성을 인격의 첫 자리에 놓은 성격이지만 수림이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모순된 심리적체험을 진실하게 그려 냄으로써 주인공을 산 인간의 성격으로 형상하고 있다.

수림의 성격형상도 마찬가지이다.

푸른 숲의 정기와 숨결을 한몸 가득 지닌 처녀, 아름다움이라면 순결한 아름다움, 진실과 소박성이란 청초한 진실, 천진란만한 소박성을 지닌 처녀. 소설은 수림의 이러한 성격을 산불을 끄고 병원에 입원한 박용팔에게 면회 왔을 때의 묘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사슴과 말하는 세부는 수림의 성격을 특징화하는데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소설은 주인공이 이룩한 위훈의 사상정신적기초를 밝혀 내기 위해 회상의 수법으로 오랜 기간의 생활내용을 무리없이 펼쳐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생동하면서도 선명한 묘사, 예리하면서도 분석적인 묘사를 능란하게 적용함으로써 높은 형상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은 성격의 시대적미를 섬세하고 풍부한 생활적정서속에 훌륭하게 살려 낸 성과도 보여 주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벽찬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여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단편소설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편소설 《높은 요구》(오광철)는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우리 시대 인간성격을 참신하게 그려 낸 의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 리인학이 《ㅎ》광산 지배인 장현철의 사업성과를 료해하는 과정에 광산에서 건설한 자력갱생기지인 카바이드공장이 경제관리에서 실리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공장폐기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은 주인공 리인학과 지배인 장현철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 높은 원칙성과 요구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지배인 장현철은 어제날 리인학에게 일을 배워주었을뿐아니라 오늘은 리인학의 장인될 인물이다.

소설은 이렇게 두사람의 관계를 사업상관계로 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 주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관계로 파고 들고 있다.

그리하여 리인학의 사상정신적발전에 장현철이 영향을 주고 장현철의 사업을 리인학이 도와주는 관계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관계를 일반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면서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 있다.

《일군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할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실현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광산에서 귀중한 카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지로 뛰는 일군이 될것을 결심하는 리인학의 성격, 여기에 시대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은 아름답고 굳센 성격이 있다.

소설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경제정책이 드팀없이 관철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이 더욱 거세차게 벌여 지게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동과 매혹을 불러 일으키는 시대적성격창조, 이것으로 하여 지난해 하반기도 단편소설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을 다채롭게 장식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

생활과 투쟁이 다양하고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가 날로 높아 지는것만큼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도 다양해 지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단편소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다양한 형상세계를 펼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을 더욱 풍만하게 장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우선 주체령역이 넓어 지고 새로운 생활분야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 짐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하여 형상의 폭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주목된다.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전인광)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리면세계를 파헤치는 과정을 통하여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의 추구, 오직 돈과 재물에 집착한 리기와 타산,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썩어 빠진 미국식생활관이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느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우리 인민에 대한 반미교양,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주체령역을 새롭게 개척하였다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 《청춘은 가지 않았다》(조인영)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내용을 취급하면서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숭배심을 안고 살며 싸우는 민족의 영웅들의 자랑찬 성격을 형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 피우며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자라난 한 인간의 생활을 취급한 단편소설 《대지에 대한 이야기》(강귀미)는 문제성의 제기와 형상화의 측면에서 시사적이다.

그리고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 준 단편소설 《차번호<만-하나>》(김창수)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작품들은 우리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설문학의 다채로움은 그 형태의 다양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발표된 과학환상소설, 추리소설, 풍자소설 등은 형상화의 수준에서나 형태상 특성을 살리는 면에서 보다 진지한 탐구를 기울이어야 할 점들이 있지만 우리 소설문학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데서 긍정적인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도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단편소설문학창작에 사색과 탐구를 기울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였으며 선군혁명문학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21세기 주체문학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할것이다.

## 나의 국토

정동찬

### 나의 국토

령토가 있으되  
국토가 비면  
게서 사는 민족의 초상 어지럽고  
게서 사는 민족의 인정도 가물이 들어  
폐허가 되는법

국토라면  
마치 옥으로 빚어 낸 그릇과도 같아야 하리  
민족의 문화재를 담으면 빛같이 나고  
민족의 유산 쌓으면 눈 부신 탑이 되어  
탐스러운 꽃과 같이 향기를 풍기는법

세월을 앞질러  
자기 사는 대에  
국토의 빈 구석 메꾸지 못한다면  
따라 서는 후손들에게 빛을 남기고  
100년 200년을 잃게 되리니

국토는 내버려 두는 흙이 아니다  
국토는 제멋대로 흐르는 물이 아니다  
선대와 후대사이에  
단 한 계절도 비워서는 아니될  
**김일성** 민족의 요람 대대로 가꾸고  
지키는것이여라

### 방파제우에서

길길이 바다로 뻗은  
방파제우에 올라  
즐기즐기 뻗어 내린  
산천을 굽어 보니  
생각도 하깊어라

아름다움이 죄가 되었더냐  
이 국토가 란도질 당하고  
살 찢 황소 사슬에 묶이운채  
오랑캐들 침략선 상공에 들리울제  
그 처량하던 울부짖음 파도가 삼켰더라

오 그 세월에는 가슴치며 울어도  
이 나라 어느 해안에  
방파제가 있었더냐  
뜯기우고 잃기만 하던 이 국토  
제 나라 울타리가  
어디에 있었더냐

지금은 보아라  
강성대국의 품안에서  
옛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뉘냐  
우리의 살점 같은 푸르른 산을  
가다가닥 벗긴이가  
피방울같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마구 휘저운이가

피어린 세월끝에 찾은 이 산천에  
심을 생각 그루박고  
피어린 격전끝에 지켜 낸 이 모든것  
가꿀 생각 뿌려야지  
이 국토를 사랑한다면

가꾸라 지키라고  
방파제를 두드리는 깨우침속에 서서  
이 한몸도 어느덧 산천을 지켜  
방파제로 굳어 지고 싶구나

### 무산령철길우에서

평양에서 하루길  
푸름푸름 새벽빛이 들 때  
급행열차 달리는 구간  
무산령

차창에 날아 드는 버랑의 대렬

한끝에 붙은 염소 한마리  
하얀 수염을 짓고  
낮 익은 오술길 차를 따라 도는데  
깊은 계곡의 안개속에 멀어 지는 철길  
저끝에서 자갈을 취율리는  
선로원 한사람

내 대학시절  
즐거운 방학길에서 보았고  
후날 취재길에 오를적에도  
내 눈에 익혀 온 저 모습

어디서나 내 가끔 보게 되고  
내 눈빛속에서 젖어 드는 모습들앞에서  
머리 숙어지더라  
자신의 한생을 허몰어  
이 국토의 갈피갈피에

한밤중  
장마끝에 솟은 달님 밝기도 한데  
저것 보오  
호랑이처럼 길길이 날던 산골물  
어이 저리도 순해 졌소

물싸움은 제방이 말아 보고  
호강은 제가 한다나  
누런 벼이삭 이고 누운 논  
두렁두렁 단잠에 들었소

어허, 덕을 봤지  
물을 다스린덕에 변을 모르오  
한 농장이 한 구간씩 떼맡아  
뚝을 쌓으면 잘 살거라고

답촌이라면  
금야만의 잠풍한 바다가  
가을이면 감동네  
앞바다엔 굴동네  
그 처녀 사는 곳이라오

봄이면 찢찢  
맑은 물에 말장을 박고  
이런 가을날엔 굴 캐는 계절이라  
굴밭을 노 저어 보잔다

여기저기 짙어 주는  
답촌처녀 손끝을 따라  
바다물속 들여다 보니  
은부채 금부채살 퍼져 가는

량심을 퍼는 사람들을 보고

달리는 열차의 침대우에서  
뒤척이는 생각  
높뛰는 가슴우에 굴러 오는  
차바퀴의 무거운 진동이어

가꾸는 사람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으랴  
두줄기 철길은 언제나 하나와 같이  
나란히 함께 따라 서지 않느냐

## 단잠에 들거라

우리 장군님 말씀대로 하니  
덕을 봤지

익어 가는 가을은  
제멋에 겨워 단잠에 들었소  
이 벌에 사는 사람  
살아 한생 보퉁에 앉아  
눈을 붙이고 싶지 않소

한밤중  
달빛 이고 앉으니  
벼꽃 피는 소리 들릴듯 한데  
익어 가는 숨소리 겹쳐 오는 밤  
내 품에 벌을 안아 잠을 재우오

## 답촌마을 처녀에게

굴밭의 아지랑이

뒤산에는 노랑계 감을 익히고  
앞바다엔 주렁주렁 굴을 키우는  
답촌마을 처녀야  
물이랑 산이랑 알뜰히 가꾸는 너  
국토의 딸아

오고 가다 때로 벗겨 진 산을 보고  
이 가슴 저리다가  
기름진 답촌마을 보니 눈이 번쩍 뜨이네  
이런 처녀 많았으면  
이런 동네 많았으면

이 포구 십리길  
동서해 가는 길에

한벌 쪽 깔렸으면  
기름진 이 모양 다 닳으면

나의 국토 내 사는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을가

## 고운 아기 걸음마 땀적에

아장아장  
고운 아기 걸음마 땀적에  
나뭇 나비 한쌍 날아 왔으면  
소원에 앞서 프락에 한줌  
꽃씨를 묻어야지

한뼘두뼘  
고운 아기 걸음마 농을적에  
사뿐 밟는 땅 폭신했으면  
소원에 앞서 돌레돌레에  
금잔디 입혀야지

혈벗은 산천에야  
귀여운것 내놓지 못해  
내여미는 아기의 발끝에서  
멤돌지 말고  
감겨 드는 그 사랑  
국토에 바쳐야지

뜰기우고  
상치나면  
아기처럼 말못함이 국토아니나  
엄마손 그리워 하는 아기처럼  
사람의 손 그리워 함이 국토라오

## 나는 고향을 못 떠나리라

한광춘

무엇처럼 소중하다 해야 할가  
내 어머니 그 연한 젖가슴에  
이 아들의 이발자리 평생을 품고 사시는 곳  
태를 묻고 태어나 그 어느 날엔가는...  
뼈를 묻고 가리라는 내 고향아

앞프락의 대추나무아래엔  
나의 어린 날 첫 걸음마가 아직 있으리  
벌렁벌렁 기면서 입에 넣었던 흙은  
세월의 눈비에 더욱 보드라워 저  
이젠 씹지 않아도 구수히 잘 넘어 가리

꿀짜기를 흐르는 맑은 시내는  
지금도 내 할머니의 민요가락 읊조리는데  
물장구 함께 치며 부끄럼 몰랐던  
이웃의 처녀와 백년사랑 맺어 준 땅아!  
너를 떠난 행복을 나는 영원히 믿지 않아!

내 사랑하는 산천이여 너의 딸기빛 노을은  
이른 새벽 남 먼저 들길에 나신  
네 딸들의 두뺨에 붉게 머물렀고  
너의 은백색 달빛은  
가을날가리에 덩실 걸터 앉은  
네 아들들의 입가에서 희게 빛나노니

추억을 못 잊어 여기 사는것 아니더라  
마음속에 안은것이 추억의 전부라면  
나는 고향을 생각해도 고향은 나를 잊으리  
나의 뼈를 굳혀 준

그 샘물이며 나무와 흙이 날 알아 못 보리  
고향에 살면서도 나는 고향을 떠난것이니

보아 다오 고향이여  
그대에 대한 사랑을  
피줄처럼 온몸에 감아 안고 나는 자랐노라  
아버지세대가 애국미 보내던 동구길로  
오늘은 내 피땀을 부어 익힌 가을이  
금빛을 떨치고 무거웁게 실려 간다

내 덕을 입기보다는  
덕을 입히자고 너의 아들이 되었나니  
아직은 부족한것이 없지 않은 땅  
그때문에 더 위하고 땀 흘리고 싶은 고향아  
너의 모든 자랑이  
나의 손끝에서 시작되게 하리라

잠결에조차 안고 뒤통기는 고향이여  
변모하는 너로 하여  
내 나라가 더 살기 좋아 지게 하리라  
별마다 금빛물결을 일으켜  
나라의 살림에 기쁨을 더해 가리라

아 나는 고향을 못 떠나리라  
조국을 년년이 쌀로 받들  
내 운명의 길을 정한 곳-  
평생토록 여기 살며 다하는 사랑으로  
고향이여 그대는 아름다워지라  
조국이여 그대는 부유해 지라

## 선생과 스승

박승록

60년대의 어느 해 가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휴양권을 보내주시어 리승기박사부부는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리승기박사는 어느 날 아침 자기 부인에게 《군대에서두 휴가가 있겠지?》라고 불쑥 말하였다.

급작스러운 질문에 부인은 《있지요.》 하고 통명스레 대답했다.

《그럼 애를 빨리 부르오. 함께 휴양을 하게.》 박사는 부인곁에 다가앉으며 조르듯 말했다.

《령감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오. 괜히 사람들을 들볶으면서...》라고 부인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무엇이 리치에 맞지 않고 들볶는다는거요.》 박사의 음성은 높아 졌다.

《그런 입씨름은 말고 나하고 탁구나 칩시다요.》 부인이 능청스럽게 말을 돌렸다.

《내가 아무리 탁구를 못 쳐도 로친네한테야 지겠어?》

《길고 짧은것은 대박야 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정 그렇다면 칩시다. 애야, 나와서 공을 주어다 주렴. 그리고 심판도 서라구.》 박사가 간호원을 부르며 소리쳤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먹었으면 제가 주어 오고 심판은 같이 섭시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좋아.》

리승기박사는 웃웃을 흘리며 벗고는 구두대신 운동화를 바꾸어 신었다.

새벽이어서 휴양소 탁구장은 텅 비어 있었다.

부인은 선생더러 처넣기를 먼저 하라고 하였다. 선생이 공을 처넣으면 부인은 사정없이 힘껏 쳐서 공을 넘겨 보냈다. 리승기선생은 부지런히 공을 주어다 다시 처넣곤 하였다. 그렇게 10번, 20번 선생이 공을 주어다 섬기면 부인은 있는 힘껏 쳐서 공을 받아 칠수 없게 만들었다.

《여보, 공을 살랑살랑 치구려.》 선생이 땀을

흘리며 신경이 돌아 말하였다.

《령감은 선수가 대방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걸 봤소?》

《하긴 그래. 그런데 로친은 너무 교약하게 간단말이야.》

《남이야 교약하게 치던 무던하게 치던 상관할게 있소? 빨리 공이나 주어다 대라요. 남들이 선생님 선생님하니까 탁구에서도 선생인줄 아는 모양이야.》 부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내가 언제 탁구에서 선생이라고 했소?》 박사 선생은 기분이 언짢았으나 시작한 탁구라 어찌지 못하고 계속 공을 주어다 대면서 말했다.

《그런데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요?》 부인은 련속 공을 힘껏 쳐서 넘기곤 하였다.

탁구를 칠줄 모르는 박사는 계속 공을 주어다 대는 한편 부인과 입씨름까지 하다 보니 열이 올라 얼굴과 목으로는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탁구를 퍼그나 친 다음 부인은 의자에 앉으면서 《인제는 령감이 만능선생이 아니라는걸 알았겠지요. 군사복무하는 애를 오라말라 하지 마오.》

그러자 신경이 선 박사선생은 부인을 노려 보며 말했다.

《뭇뭇,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건 우리 수령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요. 나를 선생으로 키우신분이 바로 수령님이시오. 그이는 나의 스승이시오. 그래도 내가 선생이 아니란 말이요?》

부인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콧집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짐을 어쩔수 없었다. 하여 선생에게 빨리 들어 가 목욕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자고 정답게 말하였다.

《오늘 아침 밥맛은 좋을겁니다.》 부인이 능청스럽게 말하자 《흥, 사람이란 만능이 없군. 오늘 아침은 로친네 수에 넘어 갔군.》 박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침실쪽으로 걸어 갔다.

이처럼 리승기박사는 우리 수령님께서 자기를 내세워 주신 그 믿음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에 안겨 있기에 선생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었다.



## 행복의 무게

리라순

## 1

유경이가 근화학공장이 있는 진천역에 내린 것은 저녁녘이었다.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그의 어깨에 스며 들었다. 가볍게 몸을 떨며 개찰구로 나온 유경은 살얼음 진 강기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한끝에 남편이 가 있는 근화학공장의 큰 굴뚝이 저녁어스름에 멀리 보였다.

(그인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한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남편을 찾아 이렇게 부랴부랴 공장으로 내려 온 유경이었다. 남편은 공장확대실험때문에 여기에 와 있었던 것이다.

돌아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기에 지친 유경은 엿저녁 연구소의 과학부소장을 만났었다.

《연구소에서도 근석동무가 돌아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소. 열흘이면 실험을 끝내고도 남았을 텐데 종무소식이구만. 혹시 실험이 잘되지 않아 그러는지...》

그때 과학부소장이 한 말이였다.

유경이 보건해도 이번 실험은 열흘이면 충분한 기일이였다. 그런데 오늘까지 돌아 오지 못하는 걸 보면 그에게 분명 다른 일이 생긴것 같았다. 혹시 실험에서 실패한건 아닌지. 어쩌면 말썽이던 위병이 다시 도져 자리에 누워 있을지도 몰라. ... 유경의 눈앞에는 밤을 밝히며 실험에 몰두하는 남편의 축간 얼굴과 함께 몸이 불편하여 외진 합숙에 누워 있는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런 생각들은 불안에 싸인 유경을 못 견디게 괴롭혔다.

가봐야겠어! 당장!...

그 길로 집에 돌아 온 유경은 남편에게 필요한 약이며 모내의들을 트렁크에 챙겨 넣으며 서둘렀다. 그러다가 문득 출장 떠나던 날 아침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연구사업을 그만 두겠다!... 진심이요?》

그때 유경은 퇴원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애를 안고 조용히 다독이기로 했었다.

《그래요. 촉매연구도 가정생활도 모든게 저에겐 힘에 부쳐요.》

지치고 피곤에 물린 안해의 모습에 근석의 목소리는 약간 누그러 졌다.

《정 힘들면 얼마간 쉬오. 내 당신의 연구과제까지 함께 밀고 나갈테니...》

《아니, 그만 두세요! 제가 연구하던 알콜법은 아직 먼 장래의 과제예요. 그것때문에 당장 공장 확대실험에까지 들어 간 당신의 아민법에 지장을

주고 싶진 않아요.》

잘라 매는듯한 유경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단호했다. 근석은 설복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물론 당장 아민법을 생산에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귀한 아민보다 어디에나 흔한 알콜로 <X>촉매를 합성할수 있다면...》

유경은 앓고 난 뒤 몹시 창백해 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고집스레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알콜법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착상에 불과한것이예요. 당장 생산을 중지해야 할 화학공장의 실태는 가능성보다 현실성이 있는 아민법을 먼저 완성할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근석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연구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꿀수 있다고 보오. 당신만 물러 서지 않는다면 말이요.》

유경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전... 지쳤어요...》

애원에 가까운 유경의 눈빛을 마주 보던 근석의 표정은 굳어 졌다.

《두뇌의 부족으로 연구사업을 포기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학사인 당신이 모든게 힘들다고 사직한다면... 그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앞에 재세로 되는거요.》

유경은 반발적으로 긴 눈섭을 치켜 올렸다.

《재세한다고요? 어쩌면 당신이 그런 말을... 저에게 연구과제만 있는가요? 지금은 시약, 실험기구, 연구조건만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 녀성이예요...》

근석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둘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근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잘 돕지 못했소. 하지만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이끌수야 없지. 당신에게... 실망하게 되는구만.》

그렇게 떠나간 남편이었다. 유경은 그때 남편의 실망어린 그 눈빛에서 잃어 버린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안타까이 찾고 기다리는 은근한 고뇌도 엿본듯 싶어 가슴이 아려 왔다.

열흘이면 그인 돌아 올것이다. 그러면 성공의 환희는 오늘의 이 무겁고 싸늘한 공기를 다 날려 보낼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이 고난이 극복될 때까지 알뜰한 주부가 된다면 그이만이라도 근심없

이 연구사업에 전념하게 될것이 아닌가.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한달이 넘도록 남편은 돌아 오지 않았고 유경은 기다리기에 지쳐 이렇게 짐을 싸들고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늑늑하고 차거운 강바람이 불어 왔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 왔다. 유경은 조금해 지는 마음에 쫓겨 걸음을 더욱 다그쳤다.

그때 전조등을 환히 켜고 마주 달려 오던 자동차 한대가 유경의 앞에서 뺨 떼어 섰다.

《유경선생님 아십니까?》

차창이 열리며 근화학공장 운전사가 동심한 얼굴을 내밀었다. 촉매연구로 몇번 공장에 내려 온터여서 유경은 로동자들과하고도 낯이 익었던것이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밤중에 내려 오셨습니까?》

유경이 머뭇거리자 운전사는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빙시 웃었다.

《근석연구사선생님을 찾아 오셨군요. 정말 대단한분입니다. 이번에도 다 성공한 연구성과가 뭐 큰 리익이 없다면서 대담하게 포기했다면서요?》

《예?!》

유경은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눈이 꺼졌다.

(포기하다니? 무엇을?...)

《그이가 지금 공장에 있는가요?》

다급하게 묻는 유경에게 운전사는 조향륜을 툭 두드려 보였다.

《글쎄, 내 그래서 이렇게 길 떠나는게 아닙니까. 연구사선생이 무슨 새 시료를 가지려 이틀전에 석정으로 떠났다는데 어디 돌아 와야지요. 길가에서 고생할것 같아 우리 기술발전부기사장동지가 이 차로 마중 가라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석정이려면 여기서 한 200리가량 되는 곳이다.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 가다니...

자동차가 어둠속으로 사라진후에도 유경은 그 자리에 얼어 붙은듯 움직이지 못했다. 어째서 아민법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새 시료라는것은?

유경은 생각이 혼란된 속에서도 추운 밤길을 걷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 초조와 불안은 촉매연구를 포기하고 과학기술통보실에 돌아왔은 그때부터 그를 무시로 괴롭혀 온 그 불안과 비슷할것이었다.

새 직무를 맡은 초기에는 모든 일이 정상궤도를 따라 흘러 가는것 같았다. 한가한 시간과 여유 있는 생활조직, 정상적인 출퇴근과 기술서적들의 분류, 맡겨진 업무만 처리하면 하루일이 명백하게 끝나는 기술통보실의 부원자리는 연구과제와 복잡한 사색 그리고 실험수치들에 묻혀 돌아 가던 유경에게 가정주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 있는 큰 혜택을 베풀고 있었다. 모자라

는 시간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살림이 다시 정돈되고 절약과 실용성을 위주로 하여 오던 음식차림이 단조로움을 깨고 성의껏 밥상에 올랐다. 새벽이면 늘 아래층에서 물을 길어 올리곤 하던 남편의 물바께뜨도 제가 들고 나섰으며 매일이 다 싫이 신소 받던 아이의 《건강수첩》도 제때에 정리하여 탁아소에 보내곤 했다.

물론 가정을 위한 살림살이배낭도 가끔 지곤 했지만 한송이의 꽃망울처럼 싱싱하게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면 그 피곤도 가뭇없이 사라지곤 했다. 익어 가는 복숭아처럼 밟그스레한 두볼, 유난히 생기 도는 별 같은 눈, 성의껏 해입힌 고운 옷... 귀엽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은 유경에게 어린애를 가진 어머니의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하곤 했다. 그래, 이것이 녀성이 아닐까? 엄혹한 오늘날 가정살림을 도맡아 나르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들을 여전히 사회적인무에 충실하도록 떠미는 여기에 녀인들의 강의성과 아름다움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유경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허무함으로 하여 까닭없이 반발심이 솟구치곤 하였다. 어쩐지 원인없이 온몸이 곤욕을 치른것처럼 시름시름 아파 나기도 했다.

유경은 모든것이 귀찮았다. 거기에서 이제는 돌아 와야 할 남편까지 돌아 오지 않으니 갑갑한 속마음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 갔던것이다.

공장굴뚝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등성이를 숨차게 오른 유경은 땀이 내뿜은 이마가 축축해 진것을 느끼며 손수건이 있는 봄가을의투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뭔가 탄탄하고 동글동글한것이 짚이었다. 만져 보니 삶은 밤이었다. 유경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 났다. 아들 초성이가 아버지에게 준다고 손에 굴리며 아끼던것을 어머니의 주머니에 넣은것이였다. 늘 남의 집에 맡기고 출장가는데 습관되어서 이번에도 싹뚝 떨어진 아들이었다.

《엄마, 언제 오나?》

헤어질 때 아들이 눈을 깜박이며 묻던 말이였다.

《세밤 자고 오마. 그 동안 탁아소에도 잘 가고 동무들과도 잘 놀아야 한다.》

아이를 받아 안으며 중학동창생이고 소아과 의사인 미영이 푸념 섞인 핀잔조로 한마디했다.

《모르겠구나. 너희들의 생활은... 남편은 늘 나가 살지, 아이는 남의 집에 살다 싫이 하지. 현대 이번엔...》

이때 아이의 되알진 목소리가 두 녀인을 놀라게 했다.

《우리 엄마만 박사야! 그래서 출장 가는거야!》

순간 유경은 무거운 쇠몽둥이에 머리를 호되게 얻어 맞은것만 같았다.

(뭐, 박사라고? 내가?!...)

그 웨침은 그 어떤 신성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어린 녀의 항변처럼 유경의 가슴을 허뻛다.

지금 이 시각도 유경의 귀전에는 《박사》라는 그 말이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자기집 벽에 나란히 걸린 두개의 학사증이 우뚝이 떠올랐다. 그것은 대학연구원을 졸업하면서 받은 자기의 학사증과 새 촉매연구에서 받은 남편인 근석의 학사증이었다. 얼마나 보람 있던 날들이었던가.

...유경이 처음으로 근석을 알게 된것은 어느 여름방학 열차칸에서였다.

대학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경은 졸업론문에 첨부될 새 촉매제에 대한 리상적인 합성수치를 확인할 일이 생겨 화학공장이 있는 진천행 열차에 올랐었다.

차가 떠나자 책을 펼쳐 든 유경은 복잡한 반응식들과 기호들에 정신을 집중했다. 화학분야에서 기본은 촉매연구라는것을 확신한 그는 리상적인 촉매제를 연구하려는 높은 목표를 걸고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것이였다.

《아, 유경선생이 여기 있었군요!》

유경은 보던 책에서 눈길을 들었다. 그앞에는 건장한 체구의 청년이 서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선이 굵은 구리빛 얼굴, 무척 강인해 보이는 꼭 다물린 입... 어디선가 본듯 했으나 잘 생각나지 않았다.

《저 누구신지?...》

《하급생 리근석입니다.》

청년은 제식동작처럼 몸을 꼳꼳이 편채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목덜미에서 번들거리는 땀을 닦으며 다행스러운듯 싱긋 웃었다.

《은 열차를 다 뒀겠습니까. 앉아도 되지요?》

유경은 그제야 생각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연구원에서 본적이 있었던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요?》

《예. 그쯤 됩니다....》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난 청년은 호주머니에서 밤 몇알을 꺼내 쥐뭉치며 유경이앞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슬쩍 말을 돌렸다.

《사실은... 이번 길에 방조 받을 일이 좀 있어서...》

《저에게요?》

《예. 이겁니다.》

청년은 동의를 얻기라도 한듯 옆에 끼고 있던 책 한권을 선뜻 내놓았다. 그것은 촉매합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소론문이었다.

설명을 서두르며 부지런히 호주머니를 더듬던 청년이 이마의 땀을 뻘 문지리며 딱한 눈길로 유경을 마주 보았다.

《하, 이런... 만년필을 두고 왔구만.》

유경은 웃음을 감추며 책갈피에 끼있던 자기의

만년필을 슬며시 밀어 놓아 주었다.

어쭙게 만년필을 받아 쥔 청년은 드디어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던 유경은 놀랐다. 그가 들고 온 이 촉매제연구는 앞으로 리상적인 촉매제를 얻을수 있는 가능성이 배태된 현실적인 연구방법이었던것이다. 더우기 관심을 끄는것은 이 새로운 연구방법이 《Z》라는 새 촉매합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중심을 둔 유경의 졸업논문과도 밀접한 련관이 있다는 그것이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연구제마가 아닌지...》

유경은 경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전 놀랐어요. 기발한 착상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시도가 새롭고 또 현실적인...》

청년은 흘러 내리지도 않는 앞머리를 패기나게 쓸어 넘겼다. 짧은 머리는 그가 손을 떼자마자 다시 뺏뺏이 일어 섰다.

《그래서 유경선생을 찾아 온겁니다. 이전처럼 병사의 의무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렇게 방조를 청하는 일이 없겠지만... 촉매합성분야에서야 유경선생이 선배가 아닙니까.》

《제대군인가요?》

청년은 싱긋 웃었다. 유경은 그의 소론문에 다시 눈길을 주었다.

《이것을 완성하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

촉매합성분야는 화학공업분야에서도 가장 힘들고 중요한 첨단분야였던것이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렇기때문에 보람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왕 본바에는 끝까지 도와 주십시오.》

청년은 제대군인답게 시원하게 청했다.

《저야 뭐 ...》

하지만 유경은 생각했다. 불 같은 인간, 이런 정열의 인간은 반드시 해낼것이다.

《그럼 좋아요. 제 힘껏 돕겠어요.》

순간 청년의 두눈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환희의 격정이 번쩍하고 빛났다. 유경은 불의에 그가 자기의 손을 덥석 잡을것 같아 당황했다. 그러나 청년은 밀어 놓았던 밤알을 유경에게 내밀었을 뿐이었다.

《어서 드십시오!》

그는 입을 가리며 웃음 짓는 유경의 손에 밤을 놓아 주며 자기도 흡족하게 웃었다.

열차는 어느덧 자그마한 간이역에 멎어 섰다. 조용한 역구내에는 유경이네와는 반대쪽으로 향한 객차 한대가 서 있었다.

《다시 알려 드립니다. 평양으로 떠나는 제2열차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곧 출발...》

역구내에 울리는 열차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은 청년은 갑자기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 났다.

《전 이젠 돌아 가야겠습니다.》

미처 물어 볼새도 없이 헤딩버 치며 차에서 뛰어내린 청년은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를 향해 달렸다.

《어쩔려고...》

차창에 붙어 선 유정은 두손을 모아 쥐고 청년을 지켜 보았다. 용케 열차에 뛰어 오른 청년은 유경이쪽으로 몸을 돌리고 손을 흔들었다.

그랬었구나!... 누구나 즐겁게 고향으로 떠나는 그 방학초차 탐구의 세계로 이어 가는 사람,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말자고 온 열차를 뒤지며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 서는 그, 유정은 그 청년의 남 다른 열정에 탄복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유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던 책을 펼쳤다. 그런데 책갈피에 끼웠던 만년필이 보이지 않았다. 유정은 그제야 흥분한 그 청년이 만년필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것을 알았다. 유정은 잠안에 든 밤알들을 내려다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방학이 끝난 이후부터 그들은 열차에서 토론된 그 소론문을 놓고 자주 만나곤 했다. 유정은 그의 새로운 연구방법에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사심 없는 방조를 주었다. 가끔 유정은 자기의 졸업논문과 근석의 새 착안에 기초한 앞으로의 연구목표를 두고 그와 허물없이 논쟁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비상한 그의 두뇌와 부정할수 없는 확고한 논리에 감탄하곤 했었다.

어느 날 근석은 무랍없이 유경에게 물었다.

《유경선생은 어째서 촉매연구를 택했습니까? 여성으로서 좀 더 쉬운 과제를 맡을수도 있겠는데...》

유정은 부드러운 눈매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촉매연구를 택했답니다. 가장 힘겨운 첨단분야를 개척하는 여성으로서 조국의 과학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석은 경의가 비긴 눈길로 유정을 바라보았다.

《그랬구만요.》

열정적인 그들의 탐구의 세계가 깊어 갈수록 유정은 연구원을 졸업하고 기초화학연구소로 배치 받아 가게 되었다. 떠나는 날 근석이 정류소까지 그를 배려주었다.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월요, 오히려 동무의 열정에 제가 이끌렸지요. 앞으로 그 논문을 훌륭히 완성하길 바랍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2

부지런히 읍거리를 벗어 난 유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길을 가늠해 보듯 눈을 쏘프렸다. 추위에 웅크리고 있던 보름달이 마침내 어둠이 깃든 산마루에 떠올랐다. 은은한 달빛에 화학공장

의 은빛 배관들이 또렷이 눈에 안겨 왔다. 불어오는 바람결에 코를 찌르는 화학공장특유의 냄새도 풍겨왔다. 그 냄새는 어쩐지 유경에게 잃어버렸던 안정감을 되찾아 주었다. 이젠 떠나버린 지 거의 한달이나 되어 오는 자기의 실험실에서도 코를 찌르는 이와 같은 냄새가 늘 배여 있곤 했던것이다. 또다시 실험직전에 느끼곤 하는 오랜 연구사들의 몸에 밴 긴장감이 그의 심장을 높뛰게 하였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빨라 지던 그의 발걸음은 공장에서 새여 나오는 불꽃을 보자 납덩이를 매단것처럼 무서워 지기 시작했다. 늘 기쁨에 겨워 오곤 하던 이 길. 그런데 오늘은? ... 유정은 단순한 보통아낙네의 걸음으로 남편을 찾아 가야 하는 오늘의 자기 처지가 불만스럽고 또 서글퍼졌다.

(늘 이렇게 그이를 찾아 가야 하는것이 나의 운명인가?...)

유정은 과학탐구의 열정으로 가슴 불 태우며 처음 근석을 찾아 갔던 운명적인 그때 일이 떠올랐다.

...연구원을 졸업하면서 학사학위를 받은 유정은 연구소에 배치 받자마자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새로운 촉매제인 《X》를 합성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이악한 노력으로 인차 자기의 실력을 보여 주었으며 일정하게 연구성과도 올리고였다.

그러나 탐구의 세계에 빠져 있는 유경에게도 인생의 화창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 왔다.

결혼?! 내가?!...

《결혼이란 신중해야 하는거야. 바로 리상과 생활을 일치시키려는 너 같은 학사처녀들이 문제지.》

중학동창이긴 하지만 결혼생활에선 선배인 미영의 혼시였다.

《글쎄, 과학에는 정열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난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것은 반대해. 어째서 리상적인 생활을 꾸리지 못하겠니. 난 꼭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

유경이 던진 이 말은 행복한 미영의 신혼생활에 대한 호기심도 포함된 자기의 장래생활의 아름다운 표상이었다.

《그러게 문제라는거야. 가정을 가져야 하는 우리 여성들에겐 리상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거든.

남편, 아이, 가정살림... 넌 웃는구나! 글쎄 두고보렴. 그때면 다 알게 될거다.》

유정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정은 미영의 견해를 부정하고 싶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지금껏 대혹되어 심혼을 바쳐온 촉매연구에서도 성공한 그런 행복한 가정의 여성이 어째서 될수 없단 말인가. 바로 그러한 행복을 담보해 주는 결혼의 풀이방식은 어떤것

인지?… 하지만 그 방정식을 모색하는 유경에게는 관계없이 훌륭한 대상들이 소개되어 왔다. 그의 미모와 총명함에 현혹된 총각들이 직접 찾아 오기도 했다.

유경은 왜선지 선뜻 응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매번 거절하고나면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하는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맞춤형 대상자라고 생각되어 대답을 주려는 순간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안개처럼 그를 에워싸고 방해를 놓곤 했다. 유경은 마치도 자기를 감싸고 있는 미지의 힘에 이끌려 한발자국, 두발자국 누구에게나로 다가가고 있는것 같았다...

그날도 소문변론준비때문에 여느 날보다 일찍 출근하였는데 책상위에 두툽한 등기편지가 놓여 있었다. 첫 순간 그는 의아해 졌다. 자기에게 이런 등기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결봉을 재빨리 훑어 보았다.

《생화학연구소 연구사 리근석.》

순간 유경의 심장이 후두두 뛰었다. 지금껏 그를 잊고 있었는데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유경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편지를 펼쳤다.

《<X>축매에 의한 탄화수소의 방향화과정에 관한 연구.》

그는 흠칫 놀랐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꼭 같은 근석의 완성된 논문원고였던것이다. 유경은 허둥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논문을 읽어 내려 갔다.

《...현재 세계적추세는 무기합성으로부터 유기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방향이다. 여기서 걸리는 문제는 축매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X>축매 합성은 우리 나라 실정에 불합리한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원료인 <아민>에 기초하여 <X>축매를 합성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나라에서도 리상적인 축매제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것은 우리 시대 과학자의 본분이며 의무가 아닐수 없다...》

논문원고를 든 유경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 논문은 본격적인 연구에 이른 유경의 <X>축매 연구에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 축매에 매혹을 느낀 유경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합성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한때 그에게서 학술적방조를 받던 근석이 그 축매를 합성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세웠다는 논문을 먼저 보내어 온것이다. 끝까지 그의 논문을 읽은 유경은 마지막장에 덧붙인 근석의 짙막한 편지에 눈길을 모았다.

《원고를 보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빈 구석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유경동무가 진행해 오던 연구에 도움이 될것 같아 이 원고를 보냅니다. 직접 찾아 가드리고 싶었지만 등기로 보냅니다.》

유경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첫 순간 당황하던 감정이 점차 가라앉고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차분한 안정감이 찾아 왔다.

유경은 다시금 그의 논문을 따져 보았다. 그가 편지에 쓴것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의 연구성과는 확실히 놀라운것이였다. 더우기 공감되는것은 그의 이 논문이 과학연구사업은 단순한 실험실적연구에 그칠것이 아니라 실천에 응용해야 한다는 립장에 튼튼히 서있는 그것이였고 철저하게 우리의 원료에 의거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이 명백한것이였다.

유경은 그의 논문원고를 두고 충격을 받았던 자신이 송구스러웠다. 이런 인간의 성과를 지지하고 기뻐 할 대신에 당황해 하다니...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 섰다. 그렇다. 어떻게 하든지 과학의 세계는 점령하여야 한다. 이 논문을 참고할것이 아니라 나의 성과까지 합쳐 《X》축매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결심이 서자 유경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껏 연구해 오던 귀중한 실험자료들을 걷어 안고 근석을 찾아 떠났다.

뜻밖에 유경을 만난 근석은 좀 놀라긴 했지만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성미에 이렇게 찾아 올줄 알았습니다.》

《아이참,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했군요.》

유경은 능청스러운 그를 가볍게 흘겨 보았다.

《웁습니다. 여기에 배치 받은후 유경동무를 찾아 가려고 했지만 동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근석은 구내정원에 있는 등반이의자로 유경을 이끌었다. 유경이와 나란히 앉은 그는 거북스러운 몸가짐으로 눈앞에 드리운 어린 아카시아나무 아지를 꺾어 들었다. 유경은 그가 기계적으로 한 일, 두일 따내는 아카시아잎을 바라보며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저에게 보낸 논문원고를 보았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전 의견을 달리해요. 누구를 돕고 말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새 축매제를 세상에 내놓는것이 선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우리가 힘을 합쳐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연구성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 왔어요. 동의하실지?...》

일사귀를 뜯고 있던 근석의 손이 멎었다.

《공동연구요?》

그의 눈길에 믿어 지지 않는다는듯 유경에게 못박혔다. 근석은 정색하여 물었다.

《동문... 자신이 지금 무엇을 제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경은 당장 구멍을 뚫을것 같은 그의 눈길에 주춤했지만 여전히 자세는 흐트러 뜨리지 않았다.

《공동연구입니다! 우리가...》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근석은 조용히 웃었다.  
《즉흥적인 결심은 인차 후회를 낳는 법입니다.  
나쁜 생각진 마십시오. 물론 동무와 함께 공동  
연구를 말한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  
습니까. 하지만 촉매합성에서야 선배이고 그 연  
구에서도 누구보다 인정되고 있는 동무인데 나와  
의 공동연구때문에 그 재능이 묶여 진다면...》

유경은 그에게 도전적인 눈길을 던졌다.  
《전 우리의 공동연구에 무엇이 장애로 되는지  
리해할수 없군요.》

근석은 유경의 단호한 어조에 놀란듯 했다. 그  
러나 여전히 못 미더운지 미간을 좁히며 쭈뼛거  
렸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  
또렷한 유경의 질문에 근석의 구리빛얼굴이 차  
츄름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눈길을 떨구며 몇개  
붙어 있지 않은 타원형의 아카시아잎을 성급하게  
뜯어 버렸다. 어쩌선지 그 행동은 결단을 내리  
지 못하는 자기자신에게 화를 내는것만 같았다.  
유경의 가슴은 이상한 예감에 조여 들었다. 그리  
고는 마지막잎을 던지며 단호히 머리를 쳐드는  
근석을 두려움에 찬 눈길로 쳐다보았다.

《유경동무, 공동연구는 어차피... 우리 두사람  
의 결합까지도 녀두에 두지 않으면...》

《예?》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도전에 유경은  
가슴부터 후두두 뛰었다. 그다음에야 놀란 가슴  
을 부여안으며 후닥닥 일어 섰다. (아니 이제 뭐  
라고? 결합이라니?! ...) 당혹감에 사로잡힌 유경  
은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불시에 달아 오른 귀  
뿌리를 숨기며 한옆으로 돌아 섰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다. 오직 새 촉매제  
를 위한 공동연구만을 생각하며 허심탄회하게 찾  
아 온 유경이었다. 그런데 근석은 이러한 유경에  
게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였던것이  
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근석의 제의에도  
일리는 있었다. 한생을 바쳐야 하는 과학탐구의  
길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것은 상대방에 대  
한 사심 없는 방조는 물론 자기 개인의 귀중한  
연구성과도 서슴없이 묻어 버릴줄 아는 과학자의  
량심과 자기희생을 동반해야 한다. 하물며 젊은  
청춘남녀가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면 서로가  
자기의 심장까지도 주어야 할것이다!

(서로의 심장을 준다는것은...)  
유경은 노을처럼 붉게 물든 뺨에 한손을 가볍  
게 가져다대었다. 유경은 그가 두려웠다. 하지만  
불덩이 같은 열정의 인간인 그의 존재가 온몸으  
로 느껴 지고 있었다. 탐구와 사색으로 빛나던  
열정적인 그의 두눈, 높은 실력과 뛰여 난 두뇌,  
힘겨운 촉매연구에 한생을 바치려는 그의 각오...  
어째서 지금껏 이러한 근석에 대하여 모르고 있

었을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것 같습니다.》  
자기 소리 같지 않은 근석의 목소리에 유경은  
그쪽으로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 근석의 발밑에  
쌓인 타원형의 동그스름한 아카시아잎이 시야에  
안겨 왔다. 수북이 쌓인 그 잎사귀들이 그 순간  
두사람의 인연처럼 느껴 지는것이 이상했다. 그  
인연은 처음 열차에서 있는 학술적문제로부터 쌓  
이고 쌓여 오늘은 공동연구에까지 이른게 아닐  
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유경의 심장은 금시  
밖으로 튀여 나올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생활의 순리에 따라 어쩔수없이 이루어 진  
귀결이건만 심장은 왜 이다지 쌓다듬이질하듯 뛰  
는것일까?

유경은 얼어 붙었던 입술을 가까스로 움직였  
다.

《그래도... 공동연구는 해야겠지요?》  
순간 거북하게 굳어 저 있던 근석의 얼굴이 환  
하게 빛났다. 그는 그 환희와 격동을 터뜨릴 그  
무엇을 찾기도 하듯 급히 품속을 더듬었다. 그  
런데 그가 꺼내든것은 뜻밖에도 만년필이었다.

《이것이 기억납니까?》  
유경은 그것이 열차칸에서 자기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동의도 없이 그냥 훌쩍 주머니에 넣고  
갔던 만년필이란것을 알아 보았다.

《언젠가는 꼭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  
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군요. 그렇지요?》  
이글거리는 근석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순간  
유경은 지금까지 어디론가 자기를 이끌어 가던  
그 보이지 않던 미지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던것  
이였는지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그들은 기꺼이 결혼하였다. 그와 동시에 공동  
연구에 들어 간 그들 부부는 우리 나라 원료인  
아민법에 의해 《자》촉매를 합성할수 있는 리론  
적기초를 완성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밝  
고 해빛이 비쳐 드는 맞은편 벽에는 이미 받은  
유경의 학사증과 함께 근석의 학사증이 나란히  
걸리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신문에까지 소개된  
연구사부부의 신혼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 3

유경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경비원이 정문에 들어 선 유경을 알아 보고 반색  
했다.

《기술발전부기사장동지가 지금도 사무실에 있  
는데 어서 들어 가 보시우.》

유독 그의 방에만 불이 환히 켜 있었다. 부기  
사장은 문을 열고 들어 서는 유경을 보자 놀랐  
다.

《허 - 근석동무가 오는줄 알았더니 유경동무  
가?!... 언제 왔소?》

유경은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했으나 가슴이

찌르르해 와서 다소곳이 고개만 숙였다. 부기사장은 지금껏 자기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퇴근도 미루고 있는것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기사장동지. 그이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포기했습니까?》

부기사장이 권하는 의자에 앉기 바쁘게 유경의 입에서는 절로 그 말부터 튀어 나왔다. 부기사장은 대답을 피하듯 한동안 헛기침을 짓었다.

《나도 모르겠소. 발등에 떨어 진 불부터 끄고 봐야 하지 않소? 당장 공장의 생산이 멎게 되었는데… 헌데 그 사람은 제 고집만 부리거든.》

《?!…》

《글쎄 새 방법이 있다면야 좋은 일이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건디여 내겠소? 요 전에도 위탈로 되게 곤경을 치르었소. 내남없이 어려운 때라 공장합숙식사도 변변치 못하지.》

그러나 유경을 건너다 본 부기사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두손을 마주 비볐다.

《이젠 유경동무도 왔으니 됐소. 힘껏 해보지요. 자, 그럼 그 량반이 어떻게 사는가 가보지 않겠소?》

부기사장의 뒤를 따라 합숙으로 가는 유경의 가슴은 아프게 옥죄여 들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그처럼 공력을 들여 온 연구성과를 주저없이 포기한 그이, 그렇다면 혹시 알콜법을?…

무엇보다 두려운것은 방금전에 부기사장이 흡족하여 유경이 왔으니 이젠 됐다던 그 말이었다. 그것은 부기사장이 유경의 출현을 근석과 함께 연구사업을 다그치려는것으로 여긴다는것이 아닌가.

(내가 만약 기술통보실에 들어 앉았다는것을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할까.…)

자신에 대한 이름할수 없는 불만과 죄의식에 유경의 걸음은 자꾸 비칠거려 졌다.

합숙방에 한발을 들어 놓은 유경은 그 자리에 굳어 저 버렸다. 정리되어 있지 않는 책상과 그 위의 실험기구들, 책상다리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남비며 그릇가지들… 옷걸이에 주렁주렁 걸어 놓은 어지러운 외출복, 구멍 뚫린 실험복 등… 어수선한 방안정경에 오히려 부기사장이 더 당황해 했다.

《주인들이란게 술한 일감만 안겨 주고 돌보지 못해서 불났이 없소. 그제도 앓는 몸을 미처 추세우지 못한채 부득부득 떠났는데 무거운 시료배낭에 짓눌려 어디서 쓰러지지나 않았는지.》

하얗게 질리는 유경을 살피 본 부기사장은 황황히 그를 위로했다.

《걱정 마오. 늦게나마 우리도 대책은 취했소.》

좀 쉬라는 말을 남기고 부기사장이 돌아 간 다음 유경은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새삼스레 안해의 살뜰한 보살핌도 없이 한달나마 외지밥을 먹으며 긴장한 실험을 해온 남편의 여위고 터갈

라 진 입술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 또다시 가슴이 미어 져 왔다.

아픈 마음으로 방안을 더듬던 유경의 눈길은 문득 책상우에 펼쳐 진 실험일지에 가뒀었다.

《알콜법에 의한 x-5형 촉매 합성 및 특성》

(아니, 알콜법을?!…)

떨리는 손으로 실험일지를 한장한장 펼쳐 보는 유경의 마음속에는 돌개바람 같은것이 휩 불어 치는듯 했다. 한동안 까딱않고 그대로 앉아 있던 유경은 스스로 놀라 벌떡 일어 섰다. 그리고는 더 생각할새없이 어지러운 옷가지들을 끄져 안고 강가로 나갔다. 당장 무슨 일인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무거움에 짓눌려 쓰러질것만 같았다. 아니,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따라 서지 못한 자신의 실책을 그렇게라도 씻고 싶은 죄의식에 떠밀렸다는것이 옳을것이다.

고요한 달빛이 내리비치는 강가는 바위돌에 부딪치는 물소리만 들릴뿐 조용하였다. 빨래버치를 내려 놓은 유경은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와락와락 옷가지들을 물에 담가 비비기 시작했다. 살을 에일것만 같은 찬물에 손가락들이 얼어 들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손가락짊으로 부각부각 피여 오르는 비누거품처럼 가슴에 끓어 올랐다. 왜 나는 오늘 이런 녀자가 되고 말았는가.… 연구사업을 그만 두고 가정을 돌보는 착실한 주부가 된다면 이 어려운 때 남편만은 아무 일없이 연구사업을 해나갈것이라고 믿은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근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구과제를 안고 고심하며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것이다. 아니, 그는 지금에 와선 나의 알콜법까지 도말아 더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것이다.

찬물에 점점 손가락들이 감각을 잃어 가자 근석에 대한 야속함이 슬그머니 머리속을 파고 들었다.

어쩌면 그인 혼자서 그 모든걸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마음의 부담을 덧었 으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유경은 불쑥 언젠가 퇴근길에서 만났던 미영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미영은 풀기 없는 걸음으로 마주 걸어 오는 유경을 지켜 보며 의아해서 물었었다.

《너 어디 편찮은게 아니니? 얼굴이 핏색해 져 어. 요즘 통보실에 옮겨 앉아 한결 편하겠는데?!》

유경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자신도 풀기 없는 미묘한 고민거리였다.

《글쎄… 헌데 미영이, 왜 요샌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기만 할까? 연구사업을 그만 두면 모든게 훌가분할줄 알았는데…》

그제야 미영은 어깨뒤로 머리를 넘기며 웃었다.

《알만해. 그런걸 두고 우리 의학계에선 뭐라고 하는줄 아니? 공허감에서 오는 일종의 우울병증세라고 한단다. 것처럼 다물리던 연구사업에서



갑자기 손을 떼니 허전할수밖에... 하지만 일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이 고쳐 줄거야!!

미영이도 역시 한때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고려항생좌약을 연구하여 국가발명권까지 받은적이 있었던것이다.

《참, 자 맛이나 보렴.》

미영은 지금까지의 화제를 대수롭지 않은듯 밀어 치우고 왕진가방에서 뽀죽뽀죽한 가시들이 그대로 내뿜친 생신한 오이 세개를 꺼내주었다.

《담당구역에 왕진 나가면 드문히 이런 인사가 있구나. 우리야 주부가 아니니.》

생긋 미소 짓는 미영의 표정은 이젠 그런 일에 습관된듯 싶었다.

《주부...》

유경의 입가에 그도 모르게 서글픈 미소가 그려졌다. 한겨울에 오이를 맛 볼수 있다는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유경은 고심 하던 연구가 성공하는 순간에 느끼던 숨 막히는 환희의 감정을 상기했다. 현대 오늘은 가정부인의 자그마한 기쁨에 만족해야 하는것이다. 정말 시간이 흐르면 나도 미영이처럼 될수 있을까?

《은 참, 넌 뭘이 아직도 이해 안돼 그러니? 우리 녀자들에게야 가정이 있잖니.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또 자기자신도 성공하고 싶은것은 우리 같은 녀성들의 리상이지.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 녀성의 성공에 비껴진 가정은 벌써 균형이 파괴되어 엉망이 되었던걸 의미하지. 남편이 주부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때식을 번지던지...》...

《호-》

어느결에 빨래를 비비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을 의식한 유경은 잡생각을 털어버리듯이 머리를 흔들고 나서 빨래방치를 찾아 들었다. 성난것 같은 방치소리가 고요한 달빛에 줄고 있던 강가를 놀라게 했다. 다시 방치질을 멈춘 유경은 지금껏 머리속을 어지럽혀 온 번거로운 생각을 씻어 버리듯 결싸게 옷가지를 행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리속에 되새겨진 미영의 말은 가시처럼 깊숙이 박혀 빠지려 하지 않았다.

그래, 그때 나도 그의 마지막말만은 부정할수 없었지. 바로 그때문에 오늘의 이런 부조화가 시작된것인지도 몰라!

...그날도 여느 날처럼 실험을 끝낸 유경은 깨끗이 씻은 실험기구들을 올려 놓으며 잠시 망설였다.

(반응시험까지 마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니 벌써 9시가 지났다. 유경은 생각을 고쳐 하고 손을 씻었다. 탁아소에 맡긴 아이를 찾아 와야 했던것이다. 이렇게 바쁠 때는 남편이 아이를 찾아 오곤 했으나 그도 요즘은 연구도입때문에 현장에 나가고 없었다.

구석에 놓았던 바느질감을 찾아 켜 유경은 그것을 대충 접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아들애의 신발주머니를 만들자고 며칠째 들고 다니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던것이다. 집에 들어 가면 손바닥만한 주머니도 미처 바느질할 경황이 없다. 매일이다싶이 갈아 입히는 아이의 옷가지들과 시약에 얼룩진 남편의 와이샤쓰를 빨래하는것도 점심시간이 아니면 다음날로 미루어야 했다. 그러니 실험으로 긴장했던 오늘도 그 바느질감을 그냥 들고 갈수밖에 없었다.

퇴근시간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자동차 소리와 궤도전차소리, 웃고 떠드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줄 지어 가는 학생들의 노래소리... 유경은 그 모든 소음을 느끼지 못했다. 머리속에 지끈게 매달리는 한가지 생각에 옴하여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길뿐이었다.

(다 공성 물질인 《X》 촉매... 기공크기는 4. 5A°)

환상의 나라는 그를 100만분의 1로 표시되는 아득한 A° (옹그스트롬)의 미시세계로 끝없이 이끌어 갔다.

《동무!》

벼락 같은 고함소리와 함께 마주 달려 오던 자전거가 급정거하며 유경의 앞에 구겨 박혔다. 깜짝 놀란 유경은 급히 넘어진 사람을 부축했다.

《젊은 동무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소?》

머리가 희숙한 그 사람은 흘러 내린 안경너머로 엄한 눈길을 던졌다. 생각에 옴하여 저도 모르게 유경이 자전거길에 들어 섰던것이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주의하십시오!》

자전거를 바로 세운 그 사람은 송구하게 서 있는 유경에게 명령조로 이르고 다시 멀어져 갔다.

진 숨을 내쉬 유경은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가방이며 주머니를 뒤져 보고나서 다시 땅바닥을 굽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무엇인가 잃어 버린것 같은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던졌다.

《뭘 떨군건 없는것 같구만.》

그제야 정신이 든 유경은 저 혼자 허거프게 웃어버렸다. 무슨 물건을 잃어 버린것이 아니라 금방 떠올랐던 새 착상이 자전거와 부딪치는 바람에 간곳없이 사라졌던것이다.

(애가 기다리겠는데...)

유경은 탁아소로 다시 종종걸음쳤다. 시간이 퍼그나 지난 탁아소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다. 유경은 어느 방에선가 애가 울고 있는것만 같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후에야 동작이 굼뜬 경비원녀인이 머리를 기웃이 내밀었다. 유경을 알아 본 경비원녀인의 얼굴엔 대뜸 노기가 어렸다.

《정신 있나! 애를 팽개치구... 빨리 가보게. 좁전에 배를 안고 덩구는 아이를 병원으로 업어 갔다네.》

《병원으로요?!》

가슴이 철렁해 진 유경은 전신의 피가 모두 땅속으로 잦아 드는것만 같았다.

(애가 앓다니? 아침까지도 일 없던 애가...)

탁아소마당을 뛰쳐 나온 그는 벌써 제 정신이 아니었다. 마주 오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병원으로 달리는 그는 아침에 있는 일을 후회하였다.

새 촉매실험에 필요한 문헌을 조사하느라고 온밤을 밝힌 유경은 아침밥상에 채 뜨지 않은 밥을 서둘러 올려 놓았다.

《오늘아침 또 늦겠구나...》

유경은 세수물장난을 하는 아이를 끌어다 앉혔다.

《탁아소에서는 고운 밥만 주는데...》

아들애는 밥공기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통강냉이알을 꼭 눌러 숨기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고운 밥》이란 흰쌀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유경은 딱한 눈으로 아들애를 바라보았다. 타겔 시간이 없어 그냥 통강냉이를 삶았다가 밥에 섞었던 것이다.

《통강냉이밥은 이렇게 먹어야 맛 있는거란다.》

유경은 우정 밥 한손가락을 담뿍 떠서 제 입에 넣고 맛 있게 씹었다. 아이는 엄마만 올려다 볼 뿐이다.

《우리 초성이 강낭밥 잘 먹지? 그래야 착하고 고운 아이가 돼요. 빨간 별 두 탈수 있구...》

손가락꼭지를 물고 시무룩해 있던 아들애의 까만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빨간 별? 정말이나?》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당겨 주었다.

아이는 입에 물었던 꼭지손가락을 빼고 열른 밥사발에 달라붙었다. 그리고는 다른 손까지 어지럽히며 부지런히 밥공기의 통강냉이만 골라 먹기 시작했다. 더는 밥그릇에 강냉이알이 남아 있지 않게 되자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나 빨간 별 탈수 있지? 난 착한 아이야!》

아이의 입에는 넘기지 못한 통강냉이알들이 한가득 물려 있었다. 유경은 가슴 아픈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다.

(다음번에는 꼭 맛 있게 해주마...)

하지만 어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죄는 벌써 몇번째인지 모른다. 아이에게 돌려 지고 가정일에 빼앗기는 그 시간이면 유경에게는 웅근 하나의 원서를 보고도 남을 시간이었던것이다.

구급실에 뛰여 든 유경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한손으로 막았다.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들에게 둘러 싸인 자그마한 침대, 그옆에 놓인 점적

대와 방울방울 약물이 떨어 지는 유리관, 그 유리관을 이은 고무호스의 바늘끝은 아이의 이마에 우러나온 파란 피줄에 런결되어 있었다.

유경은 문열의 접이식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창백한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

《왔구나. 걱정할건 없어.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위생복을 산뜻하게 걸친 미영이 다가왔다. 울상이 되어 한옆에 서 있던 탁아소보육원이 유경을 알아 보고 그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급성폐염에 소화장애까지 왔어. 너무 위급해서 금방 퇴근하신 파장선생에게까지 알렸단다. 오늘만 넘기면 일 없을거야.》

소곤거리는 말소리에 침대를 둘러 싸고 있던 의사들의 눈길이 이쪽으로 쏠렸다.

《파장선생님! 환자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일렀다. 청진기를 드리운 소아과장은 침착하게 아이의 맥박을 가늠해 본 다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그 눈길과 마주친 유경도 엉거주춤 일어 섰다.

(아니? 저 아바이가...)

아까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자전거주인이었다. 그러니 퇴근했던 파장선생이 초성이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 오던 길이었을것이다. 파장도 유경을 알아 본듯 했으나 무심한 태도로 딱딱하게 물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저... 통강냉이밥을...》

폐부를 찌를것 같은 소아과장의 눈길이 말을 맺지 못하는 유경의 얼굴에서 아이에게로 옮겨졌다.

그다음 역시 실무적인 어조로 지시했다.

《수직선생만 남고 다들 돌아 가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어머니도 환자결에 있어야겠습니다.》

유경은 구급실에서 나가는 의사들에게 길을 내주려고 한옆으로 비켜 섰다. 그바람에 의자에 기대놓았던 가방이 넘어 지면서 그속의 바느질감이 흘러 저 나왔다. 당황한 유경은 얼른 그것들을 모아 황황히 가방에 도로 밀어 넣었다. 한쪽에서 눈치를 보던 탁아소보모도 침대맡으로 흘러 내린 아이의 떨어진 멜빵끈을 재빨리 이불속에 감추었다.

《음!...》

흘러 내린 안경을 추스른 소아과장은 언짢은 표정으로 유경을 흘깃 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사이 침대로 다가간 미영은 아이의 몸에서 체온기를 꺼내들었다.

《열이 내렸으니까 별일은 없을거야.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서 조금만 관심을 못 돌려도 앓는단다. 참, 애에게 옷을 갈아 입혀야겠어. 편안한것으로.》

《그래? 그럼 얼른 갔다 오겠어.》

넋이 나간듯이 미영을 바라보고 섰던 유경은 비칠거리며 문쪽으로 향했다.

구급실을 나서자 상쾌한 밤기운이 유경의 머리를 식혀 주었다. 밤이 깊어 행인들도 뜸했다. 다만 네거리의 장식등들만이 번쩍이며 여러가지 글자들을 새기고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유독 유경의 눈에 확 안겨 들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가는 길 험난해도...》 그래, 우린 누구나라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자고 애를 쓰고 있지. 그런데 나는?...)

유경은 또다시 시간의 촉박감과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에 온몸이 달아 올랐다.

...《X》축매... 다공체기공크기...

눈앞에서는 서서히 가열되는 유리관속의 액체들과 반응하면서 부글부글 피어 오르다가 터져 나가는 수많은 기포방울들이 환상처럼 안겨 왔다.

이때 갑자기 유경의 뇌리에 어떤 섬광 같은것이 번쩍하고 스쳤다. 생기지 말아야 할 불순물인 석영을 없애자면... 가만! 알콜? 알콜이 어떨까? 그렇다면 알콜로 《X》축매를 합성?!... 가슴속에서 환희와 긴장감이 동시에 뒤엉켰다. 자전거와 부딪치는 순간에 간 곳없이 사라졌던 착상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에 다시 떠올랐던것이다. 흥분한 유경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연구소의 실험실로 향해 졌다.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새로 착상한 알콜법실험을 진행한 유경은 쓰러지듯 실험대우에 머리를 엮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실패였다. 수치계산도 실험조작도 정확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파중한 정신적부담은 그를 허탈상태로 몰아 갔다. 유경은 천근으로 내리덮이는 무거운 눈시울을 들리고 애 썼다.

(내가 왜 이렇가. 빨리 원인을 찾아야겠는데...)

아침해살이 기진한 그의 얼굴에 살췌미 비쳐 들었다. 벌써 아침인가?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쌀함박을 찾았다. 그러다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찬장이나 밥가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에 익은 알콜등이며 실험기구들, 보풀 인 실험일지들이 놓여 있었던것이다. 그제서야 여기가 실험실이라는것을 깨달은 유경은 소스라쳤다.

《어쩌면 좋아? 아이가!...》

더 생각할 새없이 실험실문을 박차고 나온 유경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출달음쳤다. 달리면서도 자꾸만 갈마드는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 날수 없었다. 그의 귀가에는 밤새껏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크게 들려 오는가 하면 불시에 기진한듯 땅속으로 찾아 들며 멀어 저 가곤 했다.

단내나는 숨을 토폴며 구급실문고리를 잡던 유경은 안에서 들려 오는 소리에 그만 주춤해 버렸다.

《한심한 녀자요. 어쩌면 자식에게 이렇게 무관심할수 있소.》

《과장선생님, 연구사야 다른 녀성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때 연구사업까지...》

유경은 비칠거리며 돌아 섰다. 땀에 범벅이된 얼굴을 씻을 녀도 못하고 간신히 복도 맞은편 창가로 다가갔다. 그 어떤 거친 쇠꼬치가 가슴을 사정없이 찌시며 등뒤로 빠져 나가는것만 같았다.

어느 새 등뒤에 나타난 미영이가 그를 부축했다.

《유경이. 차마 너를 못 보겠구나. 물론 연구사업은 훌륭하고 숭고한 일이지. 그래서 난 너에게 연구사업을 그만 두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우린 어머니이고 안해이며 한가정의 주부야. 녀성이 가정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남겠니? ... 노엽게 생각진 말아. 난 네가 편안하지 못하고 불화가 많았던 우리 가정처럼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한숨을 내쉬며 멀어 저 가는 미영의 발걸음소리가 등뒤로 들려 왔다. 천천히 구급실로 들어온 유경은 아들의 얼굴을 굽어 보았다. 창백한 어린것은 땀에 젖어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마저 가늘었다. 유경의 가슴은 모질게 찢기는것 같았다. 어린 아들이 온밤 고열속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때 바로 어머니인 자기는 성공의 예감에 환희를 느끼며 자기 세계에 빠져 있지 않았던가. 정말 내가 이 애앞에 죄를 짓는게 아닐까? 이 애가 커서 오늘의 이 어머니를 이해해 줄까?

복잡한 그의 심중에 매달리는것은 아이만이 아니었다. 몰라 보게 죽간 남편의 모습도 새삼스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렸다.

《젊은 사람이 참 무던해요. 글썄 그 집의 웬만한 빨래는 세대주가 다 하곤 한다오.》

《그뿐이요? 색시는 고이 책상앞에 앉혀 농구제가 부엌에 내려 설 때도 많다오. 흠애비처럼...》

유경은 오늘 따라 동네아낙네들의 그 《흠애비》소리가 가슴에 맺혔다. 언제한번 세대주로서 안해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 본적 없는 남편, 연구사인 안해를 위해서 작업복 같은것은 의례히 제 손으로 빨아 입는것으로 여겼고 가끔 아이를 찾아 오거나 부엌일을 할 때도 얼굴을 흐린적 없는 남편이었다. 이러한 남편에게 습관되어 어느 한 순간에는 자신이 녀성이라는것도 잊고 같은 동등한 연구사의 자격으로서 남편이 며칠간 살림을 떠맡는것쯤은 응당하게 여겼던 유경이었다.

유경은 오늘에 와서야 리상적인 생활을 꾸리겠다고 선언했던 처녀시절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그리고 일생 가정을 이루지 않고 험난한 과학의 봉우리를 향해 벼랑길을 뚫아 가는 뛰어난 여성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었다.

이 모든 생각은 지칠대로 지쳐 있는 유경에겐 하나의 타격이었다. 전망이 묘원한 촉매제연구라는 큰 집에 짓눌린채 리상적인 가정까지 꾸릴수 없다는 좌절감은 유경의 의지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

유경은 눈을 감으며 무너지듯 아들애의 침대모서리에 주저 앉아 버렸다...

그렇게 되어 유경은 기술통보실에 옮겨 앉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찬바람을 맞으며 강변에 혼자 앉아 있느라니 추위보다도 자기가 인생의 심각한 분기점을 일시적인 충동으로 너무 가볍게 뛰어넘지 않았는가 하는 가책에 몸이 떨렸다. 한 가정의 의무만을 홀가분하게 지고 가는 평범한 주부... 물론 오늘날 여성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가정을 지키는것만도 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에게 《실망하게 된다》는 가혹한 말을 남기고 출장을 떠났었다. 자기 또한 지금껏 기대해 온 안도감 대신 노상 불안과 초조 그리고 까닭 모를 죄의식에 시달려 왔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였는가?

지치도록 자신을 깡그리 바쳐야 할 대상을 촉매연구로 규정한 자기 삶의 목적을 포기한데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머니이고 안해이기전에 과학자인 유경이 찾아야 할 유일한 행복은 오직... 오직...

유경은 불시에 어두운 강변을 전조등으로 환히 밝히며 자동차가 등뒤에 멎어 서는것도 몰랐다.

《여보!》

갑자기 울린 목소리를 듣고서야 유경은 흠칫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몇발자욱 안되는 곳에 앉을 땀 막아 선채 빙그레 웃고 있는 근석의 모습이 눈앞을 꼭 채웠다. 유경은 빨래머치를 잃지르며 일어 섰다. 것처럼 불안과 근심속에 가슴 태우며 기다려 오던 그리운 남편이 그의 앞에 서 있는것이다.

유경은 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왜 그런지 입이 열려 지지 않았다. 땀과 먼지에 얼룩진 작업복, 조깅이든 입술과 끼칠해 진 두볼, 폭 꺼진 눈화와 더욱 날카로와 진 높은 코마루... 여전히 변하지 않은것은 열정에 불 타는 눈빛과 병사처럼 짧게 깎은 머리뿐이었다.

《허, 왜 그렇게 보고만 섰소? 별스레 종일 마음이 급해 지더라니... 당신 성미에 올것 같았지.》

근석이 여전히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유경은 불시에 심장 한끝을 깨물리는듯 했다. 《당신 성미에...》 하던 근석의 말이 고막을 아프게 두드렸던것이다. 처음 근석을 찾아 그의 연구소로 갔을 때에도 저이는 그런 말을 했었다. 그렇게 근석을 찾아 가게만 되는것이 어떤 주어진 운명 같기도 했지만 그날의 걸음과 오늘의 이 걸음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인가.

《여보, 온밤 이럴 작정이요? 무겁구만.》

못 박혔던 유경은 그제야 근석의 어깨를 무겁게 파고 있는 큼직한 시료배낭을 띠어 보고 덤벼치며 그앞으로 달려 갔다.

그들이 나란히 합숙방에 들어 섰을 때 유경은 남편의 얼굴을 곧추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하던 알콜법을 하고 있지요?!》

책상우의 실험일지를 바라본 근석은 말없이 빙긋이 웃었다.

어째서 아민법을... 유경은 고집스러운 눈길로 그를 지켜 보았다. 지금껏 야속함과 원망, 타는듯한 자책감속에 수십번을 곱씹어 굴러 오던 의문이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근석은 서둘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합당치 않소. 설사 아민법이 성공했다 해도 몇년후이면 막대한 투자를 들여 세운 그 공정을 다 깨버려야 하오. 우리 과학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보면 이 공장의 생산공정도 인차 고도로 현대화될게고 그러면 값 비싼 원료를 쓰는 아민법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모두가 깨달을게요. 그걸 알면서도 당장 목이 멘다고 아민법을 도입하는건...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더욱 완벽하고 값이 낮은 알콜법을 완성하자고 결심했소.》

유경은 새삼스레 근석을 바라보았다. 쉽게 성공할수 있는 아민법... 이번 시험만 그대로 내밀었다면 그는 또다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을것이고 생산에 받아 들인것으로 하여 평가도 받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조국앞에 최악으로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바로 유경이 내버렸던 그 알콜법을 완성하려고 저리도 애 쓰고 있는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을 왜 편지로라도 알려 주지 못한다. 회초리로 후려 쳐서라도 다시 자기를 끌고 가야 옳지 않은가!...

《당신은!... 당신은 너무해요!...》

유경의 가슴속에서 용을 쓰며 고삐치던 그 무엇이 끝내 왈각 터져 나오고 말았다. 그만 두손에 얼굴을 묻은 유경은 시료배낭우에 쓰러져 주저 앉았다. 가슴이 후련해 지도록 마음껏 소리쳐 울고싶었다. 지금껏 마음을 괴롭혀 오던 번민과 회오의 눈물을 다 쏟아 놓지 않고서는 영영 다시 일어날것 같지 못했다.

《유경이!》

근석의 억세고 힘 있는 손이 세차게 떨리는 유경의 어깨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내 당신의 마음을 모르진 않소. 나를 위해 모든걸 바치려 했다는것을... 하지만 유경이, 난 우리가 버릴수 없는 시대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오. 촉매제연구라는... 우리 가정에서 안해인 당신이 그 짐을 벗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반으로 줄어 드는건 아니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물론 당신의 몫까지 내가 지고 갈순 있소. 그렇지만 그만큼 내 걸음이 더디어 질게고 그러면 우리 조국의 과학적진보도 그만큼 떠질게 아니겠소.》

근석의 절절한 목소리는 마디마디 가슴을 파고 들었다. 버릴수 없는 시대의 짐, 그렇다. 우리는 그 시절 촉매연구라는 공동의 짐을 지고 이 길에 나섰었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그것을 도중에서 벗어 던졌던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며 숨 쉴수 있으리라고 여겼던가.

유경의 피로운 마음속 반문을 읽고 있기라도 한듯 근석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생각나오? 대학연구원시절에 당신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여성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었지.》

유경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아름답고 꿈많은 그 시절의 소망을 감감 잊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그것을 다시 깨우쳐 준 근석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하여 그의 눈곱에서는 또 다시 눈물이 고여 올랐다.

《어째서... 절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어요. 예?》

투정하듯, 항변하듯 부르짖는 유경을 정겹게 굽어 보며 근석은 환하게 웃었다.

《유경이, 당신이 제일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오? 바로 지금 같은 모습ियो. 분명한 연구사업에 다몰려 다니면서 힘들다고 투정하고... 또 울면서 나와 막 다투던 모습... 그럴 때의 얼굴이 또 제일 행복한 당신의 모습이었지.》

그리고는 목소리를 죽여 잠전의 유경의 물음에 대답했다.

《강제적방법은 반출을 더 크게 한다는거야 당신도 알지 않소. 난 믿었소. 당신이야 촉매연구를 떠나서는 못 사는 녀자가 아니요.》

유경은 뚫어 지도록 자기를 바라보는 근석의 눈빛에서 지금껏 기다리던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드디어 맞은듯한 크나큰 기쁨을 엿보았다.

두사람의 눈길이 서로 뜨겁게 부딪쳤다. 천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눈길!...

×

비행기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의 30대 젊은 부부가 승강구에 내려 섰다. 마중 나온 사람들에

게 손을 들어 흔드는 그들의 가슴에서는 두개의 박사메달이 번쩍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원을 현지도하신 그해 여름 유경과 근석은 공동연구한 알콜법에 의한 《x》촉매합성에 성공하였고 뒤이어 그 응용분야인 口흡착제를 개발하여 오늘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제과학기술축전에서 《제네바금은상》을 받고 돌아 오는 길이었다.

《엄마!-》

미영이와 함께 비행장에 나와 있던 아들이 꽃다발을 한가득 안고 넘어 지듯 달려 왔다.

《초성아!》

유경은 두팔을 한껏 벌리고 아들을 향해 마주 달려 갔다. 높이 안아 올린 아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눈동자를 들여다 보니 어쩐지 목이 메었다. 환희로운 이 자리에 진정 유경이 자신이 서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자신을 이겨 내는것처럼 힘겨운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생의 극한점에서 끝내 자기자신을 이겨 낸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의 참무게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유경에게 다가온 미영이 눈 부신 박사메달을 부럽게 쳐다보았다.

《유경이, 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녀성이야.》

유경은 살래살래 고개를 저으며 가슴에 안은 향기로운 꽃다발에 불을 대었다.

《이니, 난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어깨가 무거워만 지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과학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과학자들을 이렇게 내세워 주시는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니. 그걸 생각하면...》

미영은 유경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어깨의 짐이 무거울수록 마음은 가벼워 지는 거야. 정말 이 어려운 때 모든걸 이겨 내고 사회앞에 자기의 큰 짐을 진 녀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행복한 녀성이라고 생각해.》

유경은 말없이 머리를 들어 저 멀리 아득한 창공을 바라보았다. 마치도 더 높이 올라 서야 할 미지의 세계를 더듬어 보듯이...

## 명언해설

《생동하고 인상 깊은 생활속에서 철학적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 지도록 형상하는것이 작가의 재간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작가의 창작적재능은 형상창조에서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의 통일을 이룩하여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에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제기되는 의의 있는 철학적문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생활적인것과의 통일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생활철학으로서의 문학의 특성은 생활적인것을 통하여 철학적인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문학에 철학적인것을 담는다고 하여 철학에서처럼 논리적인것만 추구한다면 예술성을 살릴수 없을뿐아니라 철학성과 사상성을 옹계 보장할수 없다. 작가의 재간과 솜씨는 철학적인것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상되도록 하는데 있다.

《조국과 민족의 부흥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여 후세에 길이 찬양을 받는 로동당시대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 우리 시대 사람들

손진금

조국이 기뻐 할 땐 함께 웃고  
조국이 힘들어 할 땐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 온  
우리 시대 사람들아

밝아 온 새 세기의 명마루에 올라  
지나온 길 뒤돌아 보니  
아 벌써 안아 주고 싶구나  
우리의 모든 남정들과 녀인들  
그리고 다박머리아이들까지  
그들모두를 불러 영웅, 영웅이라고

원썬들의 썸법으로 따진다면  
백번도 더 쓰러졌을  
이 땅의 사람들아  
피를 물고 달려 드는 놈들과 맞서  
그렇듯 거연히 살아  
노래하며 웃으며 일한것만으로도  
그대들은 영웅!

어찌 영웅이 따로 있으랴  
따스한 요람속에 포근히 잠든 아기가  
어제보다 한뼘은 더 커보이는 네가  
원썬들이 시새워 하는 우리네 큰 영웅이다

옛저녁보다 더 예뻐 진  
선반공 피꼴새 처녀야  
네가 원썬들의 눈살을 찌르는  
가시 돋힌 장미꽃-우리네 영웅이다

전쟁과 《보복》을 떠벌이는  
원썬들의 불장난질에  
드르릉-창유리 울리는 교실에 태연히 앉아  
꼬마땅크그림을 그리는 분계연선마을의 소년아  
그렇다 영웅의 심장은 바로 그래야 한다

이 아침 기적소리 울리는 역구내에서  
막내아들마저 눈물없이 초소로 떠나보낸  
그 어머니가 영웅이다

죽그릇만으로 밥상을 차리던 그 저녁에도  
따스한 웃음을 잃지 않은  
그대의 정다운 안해가 바로 영웅이다

사람들이여  
어찌 《마라손녀왕》만이 시대의 영웅이라  
다시금 그대들이 딛고 선 이 땅을 삼가 둘러  
보라  
어떤 아름다운이들이  
그대들과 이웃하고 사는가를  
어떤 불굴의 투사들이  
그대들과 어깨 나란히 사는가를  
어떤 불굴의 투사들이  
그대들과 어깨 나란히 이 시대를 걷고 있는가를

영웅어머니  
영웅안해  
영웅소년...  
가슴에 훈장, 메달을 달지 않은  
이 소박한 무명영웅들의 손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력사우에  
금별메달을 수 놓고 있었나니

보라 세계여  
누굴 닮은 우리 인민인가를  
모습도 그리고 내짚는 걸음도  
웨치는 목소리도  
간직한 신념도  
우리 장군님만을 닮은  
아 폭풍이 불어 쳐도  
파도에 휩싸여도 굳건할  
영웅장군이 안아 키운 영웅인민을

아 얼마나 아름다우나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따라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다 앞가슴이 환하도록  
하나하나 달아 주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아  
**김정일**장군님의 아들딸들아

## 사회적문제의 예리성과 실화문학의 전투성

명일식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는것은 기동적인 형식인 실화문학의 전투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실화문학은 높은 전투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날에 날마다 새 인간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새 생활이 약동하는 우리 사회의 보람차고 들끓는 현실들을 실지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고 따라 배우려고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현실이야말로 실화소설의 마름줄 모르는 원천이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고 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과 21세기를 맞이한 시대는 실화문학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시대의 이 높은 요구에 맞게 최근에 우리 문학에서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실화문학들이 많이 창작되어 우리 독자들을 기쁘게 하여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은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실화문학 《땅과 인생》(리빈), 《앞채의 무계》(류정옥), 《백날과 하루》(한정아)들이다.

실화문학 《땅과 인생》은 높은 알곡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온 황해북도 은파군 양동리작업반장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덕중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실화문학은 한생을 땅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 오면서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있는 주인공 김덕중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감동 깊은 화폭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김덕중작업반장의 남 달리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작품에서 두벌농사를 성과적으로 짓는 감동 깊은 생활들과 투쟁속에 집약되어 있으며 생동하게 묘사되어 있다.

실화문학은 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면서 현 시기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의의 깊은 사회적문제인 두벌농사를 성과적으로 짓는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두벌농사는 현 시기 긴장된 알곡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며 우리 농업전선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기본문제이다.

최근시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우리 나라에 련속 들이닥치고 있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쌀알 한알한알이 더없이 귀중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두벌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는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주인공 김덕중은 당의 이 높은 의도에 맞게 이미 오래전부터 밭 두벌농사에 큰 힘을 기울여 왔던것이다.

두벌농사는 단작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품이 많이 들뿐만아니라 한해의 농사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매우 책임적인 문제였다.

앞그루의 밀보리와 뒤그루의 주작논은 시기를 조금만 맞추지 못하거나 품을 적게 들이면 오히려 두 농사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것이다. 하지만 땀심을 들여 두벌농사를 잘하기만 하면 2년동안에 거둘 수확을 한해에 거두어 들이는것과 같은 많은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것이다. 그런것만큼 2모작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드는 높은 충성심과 깨끗한 혁명적량심이 없이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이다.

실화문학은 이처럼 현 시기 것처럼 귀중한 식량해결을 위한 절박하고 의의 깊은 두벌농사문제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제기하고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참된 인간의 혁명적량심에 대한 심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모작을 위한 두벌농사는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쳤다.

종자싹틔우기, 거름장만, 폐년에 드물게 일찌기 밭을 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기술적문제들을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작의 모범으로 다 해결할수 있었다. 보다 어려운 난관은 2모작을 해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주저 않아 따라 나서지 않는 일부 농장원들의 낡은 관점인것이다.

주인공 김덕중은 앞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면서 2모작문제를 놓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심장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동무들, 이 일은 어제날의 기준으로 오늘을 재여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의무에 앞서 량심으로 받아 들이고 시대의 요구로, 자로 삼으면 해낼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주인공의 심장의 목소리인가.

이처럼 주인공 김덕중의 깨끗한 량심은 2모작을 순수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로 스스로 받아 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인공 김덕중반장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지켜 내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작가는 실화문학에서 시대적으로 매우 의의 깊고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식량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기본문제인 2모작을 위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주인공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켜 나가는 과정과 하나로 결합시켜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실화문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2모작을 실현하는 문제는 단순히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생산기술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뜻 깊은 인생관에 관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로 웅심 깊게 해명되면서 작품의 문제성을 더 예리하게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화문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문제인 2모작의 성공을 결정 짓는 6월의 힘든 고비를 넘기는데서 더 집중적으로 찾아 볼수 있다.

농사란 한번 때를 놓치면 망해 버리고 마는 그런것이다. 그러므로 6월의 힘든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것은 한해농사를 결정 짓는 매우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때문에 이 문제는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굳은 자각을 가지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으로 살아야 하는것이다.

그렇다. 이 문제는 오직 시대의 높은 요구와 당의 의도에 맞게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깨끗한 혁명적량심으로 살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주인공 김덕중은 바로 그런 혁명적량심을 안고 높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고 있는 참된 일꾼이다.

김덕중은 두벌농사를 위해 밀 《종자싹틔우기》를 발기하고는 그것을 실현한데 이어 논밭에 심은 밀의 맹습해를 막기 위해 애 쓰며 낮에는 모내기며 몸을 잠그고 밤에는 또 트랙토르 논써레 교대운전공, 모판관리공으로 양수공까지 다 맡아 하며 출창 벌에서 살고 있다.

김덕중은 논밭에 밀을 심어 놓고 하늘에 구름이 한점만 떠돌아도 마음이 전부 꺼렇게 흐려 젖으며 힘든 고비때마다 주저 앉아 혼자서 한숨 싹 생각을 하다가도 의지에 힘이 쓴다고 스스로 혀

를 깨물며 다시 일어 서군 하였다.

두벌농사를 위해 이처럼 애 쓰며 뛰여 다니는 김덕중의 이러한 모습을 눈물에 젖어 보던 세포비서까지 이렇게 말한다.

《반장동무! ... 무쇠로 만든 트랙토르도 무리하면 고장이 나는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혹사하고야 어떻게 견뎌 내는가 말이요?》

안타까움에 젖어 말하는 세포비서의 이 한마디 말속에 두벌농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일하고 있는 김덕중의 깨끗한 혁명적량심이 다 담겨 젖어 있는것이다.

김덕중반장은 진정을 다해 말하는 세포비서에 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군 했다.

《비서동무가 곁에서 그렇게 내 걱정을 해주는데 내가 왜 넘어 지겠소.》

뜨거움에 가득차 서로 나누는 이들의 심장의 말속에는 진심이 오가고 있으며 두벌농사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는 주인공 김덕중의 깨끗한 량심과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이 담겨 젖어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시대가 절실하게 바라는 당정책적요구를 남 먼저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인간들의 순결한 량심에 의하여 두벌농사는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마침내 좋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더 많은 알곡성벽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농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된 주인공의 형상을 보여 준 여기에 바로 이 실화문학의 강한 사회적문제성이 있는것이다.

실화문학에서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맞게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는것은 또한 실화문학 《앞채의 무계》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실화문학 《앞채의 무계》는 말 그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일군들, 특히는 당일군들의 중요한 위치에 대한 매우 의의 깊은 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그 성과의 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 특히는 당일군들의 역할에 중요하게 달려 있는것이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 지도일군들이 당의 요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평도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 나가느냐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것이다.

실화문학 《앞채의 무계》의 주인공인 김충일의 형상이 바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초급당비서 김충일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영광스러운 공장의 당일군으로서 《고

난의 행군》을 다그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소형풍력발전기 100대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그는 이 중요한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는데 바로 장군님의 전사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충성의 열정과 순결한 량심을 깡그리 바치고 있는것이다.

하여 그는 어렵고 힘든 일의 맨 앞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대로 군중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소형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풀어 나간 주인공 김충일의 실천적인 행동이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김충일은 비록 기술자는 아니였지만 중요한 소형풍력발전기를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자면 기술적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기술자들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가며 풀어 나갔다.

어렵게 생각하였던 기술적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려 나가자 김충일은 이번에 또다시 소형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서 제일 걸린 고리의 하나인 목재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어려운 현지로 앞장에서 서서 떠나간다.

참으로 김충일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식사를 하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늘 현장에서 살며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 앞채를 메고 힘 있게 달리고 있는것이다.

어려운 목재해결을 위하여 자진하여 떠나는 그의 앞을 막는 지배인에게 하는 다음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심정을 더깊이 알수 있다.

《…지배인동무는 자리를 뜨면 안됩니다. 공장 전반사업을 지휘해야지요. … 거긴 내가 가겠습니다. … 아니 우리야 함께 앞채를 멘 사람이 아닙니까. … 저녁차로 떠나도록 조직사업을 합시다.》

김충일의 이 말속에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힘 있게 웨치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나가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것이다.

그는 언제나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서 자기가 메고 있는 앞채의 무게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메고 계시는 조국의 무게와 잇닿아 있는 한줄기와 같다고 스스로 지각하고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고 있다.

이런 높은 자각을 스스로 안고 있기때문에 김충일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고립압살책동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의 앞채를 양어깨에 떠메시고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 서서 지휘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 자기의 어깨에 더 많이 실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실화문학 《앞채의 무게》는 《고난의 행군》의 맨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과 함께 앞채를 메고 달리는 참된 당일군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맡고 있는 높은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매우 의의 깊은 문제성을 제기하고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해명하고 있는것이다.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맞게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는것은 실화문학 《백날과 하루》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실화문학은 남포화학공장 지배인 오택석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를 특색 있는 구성속에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세상에는 한순간에 한생을 빛낸 영웅들에 대한 위훈도 많이 전하여 지고 있지만 이 실화문학의 주인공 오택석은 평범한 백날이나 어렵고 힘든 하루나 그 언제나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충성의 길을 굳건히 걸어 가고 있는 성실하고 참다운 인간이며 시대가 떠받드는 진짜배기영웅인것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남 다른 성격을 그가 32년간 지배인으로서 일 해오는 과정에 매달, 매 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온 생산수자나 실적을 보여주는데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그의 성격을 깊이 파고 들어 형상하였다.

주인공 오택석은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한 영웅이지만 그는 평범한 농사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큰 화학공장 지배인의 어려운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 때로부터 32년간 어렵고 힘든 난관이 앞을 막아도 변함없이 매달, 매 분기계획을 초과수행하군 하였다.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 다해 온 그의 티없이 순결한 량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것이다. 오택석지배인의 높은 충성심과 깨끗한 량심은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더높이 발휘되었다.

전대미문의 봉쇄와 고립압살책동과 뜻하지 않게 닥쳐 온 자연재해로 시작된 어려운 시련은 오택석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화학공장에도 여러가지 난관을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화학공장에서 기본자재로 쓰이고 있는 주원료가 떨어져 저 생산이 멎게 되었다. 소금

때문에 제염소로 갔던 자재부원도 완전히 포기하고 빈손으로 되돌아 왔던 것이다. 숨 죽여 가는 공장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부닥친 난관으로 조건타발을 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난관을 맞받아 뚫고 일어나 자체의 힘으로 소금생산을 보장하며 일떠서서 공장을 돌리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 오택석지배인은 입술을 깨물며 손발을 걷고 일어나 어려운 난관들이 앞을 막아 선 소금밭으로 달려 갔다.

말없이 앞장에 선 지배인의 그뒤를 따라서 온 공장이 떨쳐 나섰다.

오택석지배인은 처음 해보는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을 안고 공장을 일떠세워 분기, 년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앞을 막아 선 어려운 난관들을 다 이겨 내며 끝내 자체의 힘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공장을 돌리었으며 맡겨진 계획과제들을 초과수행하였다.

그들의 앞을 막아 선 어려운 난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제일 걸리었던 소금문제가 완전히 풀리자 이번에는 또 전극이 떨어 저서 생산이 멎게 되었다.

그때도 모두 주저앉아 오택석지배인만 쳐다보았다. 그는 기대를 안고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그 눈길에서 더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 섰다.

오택석지배인은 먼저 공장초급일군들과 함께 파전극들을 재생하여 쓰려는 타산을 세우고 제창소로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던 날 그의 안해는 그에게 이번 생일만은 잊지 말고 꼭 집에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허나 지배인에게

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 주는 안해의 소박한 청도 중했지만 그보다는 공장의 걸린 고리를 푸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기에 그는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들을 끝까지 풀어 생산을 보장하여 계획을 넘쳐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생을 하루와 같이 지배인으로 일해 오면서 32년간을 하루와 같이 계획과제들을 매년, 매 분기별로 다 넘쳐 수행한 오택석의 변함 없는 충성심과 순결한 량심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고 회의도중에 그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안겨 주시었다.

실화문학 《백날과 하루》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한 농사군의 자식인 오택석영웅지배인처럼 평범하게 지내온 백날이나 시련에 찬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의 하루나 언제나 변함이 없이 순결한 량심과 높은 충성심으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누구나 다 시대의 참된 영웅으로 될수 있다는 심오한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훌륭하게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최근에 창작된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실화문학작품들은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맞게 절박한 사회적문제들을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전투성을 가지고 독자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으며 잘 읽히우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실화문학창작에서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맞게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더 예리하게 제기함으로써 높은 전투성을 가진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실화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가사

# 복 받은 새 가정

## 량률

봄빛이 흐르는 정다운 거리에서  
한쌍의 신랑신부 결혼사진 찍는데  
전선길 떠나시던 어버이장군님  
달리는 차창너머 미소를 보내시네  
아 미소를 보내시네

새 가정 이론 모습 더없이 기쁘신듯  
장군님 축복의 손을 저어 주시네  
가실 길 바쁘건만 천천히 차를 몰아

신랑신부 행복 위해 뜨거운 정 남기셨네  
아 뜨거운 정 남기셨네

장군님 가시는 곳 저 멀리 우러러  
신랑신부 허리 굽혀 큰절을 드렸네  
사랑의 그 이야기 대를 이어 전하며  
보답으로 빛내갈 맘 가슴 가득 넘쳤네  
아 가슴 가득 넘쳤네

## 못 잇을 우산장의 나날에

주명옥

### 라는 단풍잎

내가  
처음 밟아 보는 우산장은  
한창 단풍계절  
타는 단풍 타는 생각에  
그 한잎 손에 들었네

살그머니 손바닥위에 올려 놓으면  
너인의 이 작은 줌에도 차지 않는 그 잎새  
하지만 끝안을 다 태울듯  
불 타는 단풍잎 타는 단풍잎  
어쩐지 거울처럼  
살며시 내 마음 비춰 보고 싶네

하니 절로 부끄러워  
그래도 시를 쓴다고  
풍요한 이 가을날  
하 좋은 단풍계절에  
따뜻이 불러 준 은혜로운 손길  
그 고마움 가슴에 젖어 와  
절로 부끄러워 지는 마음

들여다 볼수록  
부끄러움에 붉어 지는 얼굴  
다시 다시 보니  
붉어 진 내 얼굴 비껴 선가  
단풍잎은 더 붉게만 타네 붉게만 타네

### 못가에 드리운 소나무를 보며

하얗은 네 사색조차 깨칠가 보아  
여기선 바람 한점 불지를 않아  
맑은 거울인양 반듯한 못가에  
조용히 머리를 드리운 우산장 소나무

유별도 해라  
뿌리채 들리워도  
맑은 물에 그리도 잠기고 싶은듯  
이제는 수면과 나란히 누운 모양  
몇몇해를 이렇게 모지름 씻을가

달을듯 말듯 아지를 펼치는

못가의 소나무야  
너를 보며 차마 발걸음 못 떼겠구나  
마치도 시정의 호수에 내쳐 잠기고 싶은  
내 마음인듯 싶어

아직은 기슭에서 에도는 나를  
네 굽은 아지로  
련인의 손길처럼 힘껏 이끌어 주렴  
어서 오라 부르는  
저 끝 모를 시정속에  
온몸이 풍덩 깊숙이 빠져 들도록...

### 딸애의 눈빛 같아

찌룩 찌룩 풀벌레소리  
창밑에서 울리는 밤  
잠자리에 드는 나에게 비쳐 드는  
우산장의 밤벌아  
너 어쩐지 딸애의 눈빛 같아  
내 자리를 차고 일어 나누나

떠나는 나를 바래우며  
몇밤 자면 오느냐고  
좋은 글을 꼭 쓰고 오라고  
속삭이던 동해기슭 먼 곳의 딸애  
줄음에 못 이긴  
이 엄마 깨우치려 찾아 온듯

우산장의 밤별아  
너 신통히도 내 딸애의 눈빛 같아서  
잠 못들고 엄마를 지켜 보는 그 애 마음 같아서

나는 이 밤 다시 시줄을 고른다  
아버지장군님을 노래하는 그 시줄을  
사랑하는 딸애의 눈빛앞에서

## 시를 받아 안아요

손에 손으로 옮겨 지는  
한편의 시를 놓고  
홍분에 달아 오른 청들을 높이는 이 밤  
나는 나에게 묻고 싶어요

시를 쓴다고 들쭉던 그 나날들에  
정녕 지금처럼 피가 뛰었던가고  
가슴에 묻었던 량심의 갈피에  
저 시처럼 조국을 안고 몸부림친  
시인의 흐느낌이 과연 있었던가고

새하얀 원고지우에  
위선과 거짓은 깃들수 없어  
오직 더 깨끗해 지는  
량심과 생활의 진실만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꽃 피는 여기

종이우에 그려 지는 글줄이 시가 아님을  
눈으로 볼수 있는것이 더욱 시가 아님을  
오로지 시, 그것은  
심장이 심장에게 주는 속삭임임을  
깨우쳐 주는 밤이여

내가 과연 시를 알고 썼던가  
뼈가 부러지는듯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기쁨이 더욱 큰  
아 못 잊을 우산장의 이 밤  
나는 느껴요 산모의 참기 어려운 진통을

그리고 나는 들어요  
내 가슴속에서 시의 첫 울음소리를  
아, 마음속 환희!  
내 사랑 시의 첫 아기  
나는 시를 불안고 온밤 불을 부벼요

## 우산장, 너를 잊지 않으나

남포서 떠난 길  
휘휘 돌아 굽이굽이  
처음 찾아 올 때는  
걱정도 무겁더니  
가벼운 마음으로 내 작별하네  
창작의 고향 우산장아

국사봉 넓은 산자락이  
어쩌면 이리도  
고마운분의 따뜻한 품 같으나  
눈곱 뜨거워 다시 둘러 보는  
푸른 숲 붉은 단풍 하얀 휴양객들  
못가를 지나 잔물결 일구며  
불어 오는 솔바람소리

고요속에  
사색의 파도 이는 이곳  
조용히 문을 열면 언제나 볼수 있던  
열정에 불 타는 눈빛들  
힘 주어 붓을 달리는 근면한 손들  
나도 그 손들과 함께 붓을 움직였네

조국이 걸어 온 길 또 걸어 갈 길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가는 락원의 행군길에

신심과 힘을 주려고  
웃음과 랑만의 노래를 주려고  
끝없이 타오르는 탐구의 그 녀들속에  
나의 작은 가슴도 한껏 타올랐네

푸른 숲 곳곳한 아지  
억만의 저 푸른 잎새들도  
내 시의 어린 싹에 싱싱한 숨결을 더해 주었고  
밤별도 내 원고지우에 내려 앉으며  
시상의 반짝임에 빛을 더해 주었거니

고맙다 우산장아  
너를 잊지 않으나  
품을 벌린 산자락도  
불어 스치는 맑은 바람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으로 안겨 오는 곳  
아 내 창작의 첫 보금자리

비록 때 늦어 내 너를 찾아 왔어도  
너의 못 잊을 품에서  
어린 새처럼 깃을 가다듬고  
시문학의 창공높이  
억센 수리개되어 나래를 퍼네  
위대한 장군님 받드는 불 같은 노래  
더높이 부르려 더 힘차게 부르려...

## 조국 외 2편

오, 사랑하는 조국이여  
당신만을 위해 사는 성스러운 한길우에  
이 한몸 깡그리 바치나이다

쓰라린 옥고의 나날속에서  
놈들이 휘두르는 채찍의 세례에  
이몸 가족같이 무드질되고  
고추가루 물고문에 열물까지 토하고  
얼음물 통에 거꾸로 매달려  
담금질 당하다 기절하기 그 몇번

이리떼마냥 둘러 서서 날리는 주먹세례  
피멍으로 맺힌 원한  
아 분노에 치 떨고  
복수의 이를 간다

견딜수 없는 고통의 순간마다  
단하나 비장한 불패의 무기는  
오르지 당신 향한 일편단심!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기에  
내 흘린 피자욱 뿔뿔하고  
내 그대 품 그토록 흠모했기에  
신념의 한생 변함 없나니

나는 영원한 그대의 아들이기에  
그 모진 고통속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가 있고  
그대를 위해서는  
죽음앞에서도 웃을수 있나이다

## 고독

고독이란 혼자됨이다  
세계 인구가 50억이든 60억이든  
나 홀로됨이다

고독이란 배고픔이다  
고독이란 추움이다  
고독이란 처절한 외로움이다  
마음의 배고픔  
넋의 추움  
신념의 외로움이다

고독은 철저한 소외이다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동지로부터의 소외  
조직으로부터의 소외  
친구로부터의 소외  
사랑으로부터의 소외

그래도 나는 소외당하지 않았다  
조국으로부터  
그래도 나는 소외당할수 없다  
겨레로부터  
그래도 나는 소외당할수 없다  
넋으로부터!

## 내가 아니면 그 누가...

내가 아니면 그 누가 나서랴  
누가 가도 가야 할 이 길  
애국에 끓는 피 가슴에 안고  
겨레의 념원 통일을 위해  
내가 걸어야 할 영광의 길

내가 아니면 그 누가 감당하랴  
이 고난에 찬 가시밭길  
청춘도 행복도 다 바치며

감옥도 죽음도 맞받아 나가는  
처절한 투쟁의 길

내가 아니면 그 누가 견디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아빠를 부르는 초롱한 그 눈망을  
애절한 안해의 눈물을 뒤로 하고  
나는 나섰다  
투쟁의 길 따라

허리 잘린 조국강토 다시 잇고  
 헤어진 겨레 만날 길 열자고  
 뿌려야 할 통일의 씨앗  
 거둬야 할 통일의 열매  
 인민의 토양우에 뿌리 내렸다

악의 칼바람 뼈를 깎아도  
 꺾일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  
 폭력이 란무하는 생지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해도  
 풀릴줄 모르는 독재의 사슬  
 벗기지 않는 장기수명에  
 굳게 닫긴 독재의 아성  
 ○○ 형무소

사람들이여  
 길고 긴 옥고의 풍상속에  
 검은 머리 파뿌리되었다고  
 정신마저 회색으로 변했다 오해하지 마시라  
 0.75m<sup>2</sup>의 콘크리트벽에 갇혀  
 안색이 누렇게 뻤다 하여  
 의지마저 퇴색했다고 속단하지 마시라

홍안소년이 무표정한 로인으로  
 변했다 하여  
 조국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 속단하지 마시라

형제자매들이여  
 저 높은 담안 싸늘한 철창속  
 처절한 옥고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가

## 가사

아버지 생각하면 눈에 어리네  
 포성이 울리던 전화의 그 아침  
 기적소리 목 메이는 작별의 역두에서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웃으시던 모습

아버지 생각하면 눈에 어리네  
 복구건설 노래 높던 전후의 그날

철창을 부여잡고 통일을 절규하는  
 저 함성을 듣느냐

깨끗하고 아늑한 살림방에서  
 자식들의 재롱에 웃음 짓고  
 정다운 사람끼리 즐겁게 이야기할 때  
 《뽕통감방》 《랭장고독방》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고문과 싸우며  
 분노에 울부짖는 통일애국의 한생이여

꽃이 피고 눈이 오고  
 산천이 변하여도  
 오직 한가지 변하지 않는  
 신념의 한생  
 죽어도 변할수 없는 애국의 한생이여

못 견디게 못 견디게  
 님의 품이 그리울 때면  
 밤을 새워 그려 봅니다  
 독야청청 로송도를

모진 풍상에 퇴색하고  
 찢기위서도  
 꺼지지 않는 신념의 기발을  
 더욱 높이 쳐드립니다  
 이 몸이 가루되고 진토가 될 때까지

아, 저기 동터 오는 통일의 아침 향해  
 가고 가는 신념의 행군  
 통일애국투사의 걸음은 멈출수 없다  
 한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어도 가고 가는 이 길을

## 아버지 모습

### 서진명

목고 메고 달리던 더운 가슴에  
 이 아들 끌어 안고 웃으시던 모습

어려운 날 힘을 주어 더욱 그림네  
 모진 시련 웃음으로 이기신 아버지  
 포화도 재더미도 뚫고 헤치며  
 혁명의 길 앞서걸은 밝은 그 모습



## 별-하나

-통일에국투사의 일기중에서-

석유균

## 《별-하나》

끝간데 없이 펼쳐진 창공에 하나들 돌기 시작하는 별을 찾아 내 마음에 큰 뜻을 이어 보던 동요시절.

생각할수록 못내 그리워 지는 그 시절의 환희가 가슴 가득 안겨 온다. 그것도 인생의 뉘우침이 새삼스러워 지는 백발이 성성한 오늘에 와서...

오늘은 아침저녁으로 아니 어제 낮부터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 지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여 궁상거리었다. 실은 ○○출판사에서 의뢰 받은 원고의 마무리가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어느 때 같으면 성급한 성미 그대로 그 좁이야 하고 심신이 거뻐해 질것이지만 지금은 마음 한구석이 무척히 내려 누르는 중압감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인간의 육체나 정신력으로써는 이겨 내기 힘든 고문과 회유, 그보다도 반생의 넋을 말리는 기나긴 옥중고초- 그속에서도 변색됨이 없이 오히려 더더욱 버려 지고 다듬어 진 의지의 빛발을 글줄마다에 새겨 넣으려고 했다.

필경 독자들은 찢기고 터진 내 인생의 피자박이 즐비한 자욱들을 더듬으며 통일성전에 뿌려진 피를 한생의 총화로 뜨겁게 감수하려 할것이다. 하다면 무릇 시선이 화살처럼 치솟은 예각의 끝은 과연 그 어딘가. 아울러 오랜 세월 서리고 영킨 가슴속 웨침이 불러 오는 고고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연듯 오리무중에 빠져 드는것만 같아 다시금 추고하기를 그 몇번... 내 심혼이 새겨 지는 문구와 문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쏘아 박으며 허점을 메꿔 나갔다.

무게 있는 글을 썼다면 마음은 가벼워 질테지만 공허해 지는 생각이 때없이 겹쳐 드니 필경 서술묘리나 언어표현이 미흡해서만이 결코 아니다. 부러 터놓는다면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려 이 땅에 뿌려진 나의 심혈이 세기의 한계를 넘어서도 단 열매를 맺지 못한것 이 아닌가.

이제라도 남은 피를 통일성전에 바쳐야 할진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내자신이 내세운 절박한 물음앞에 답이 신통치 않아 자가당착에 빠져있으니... 내 넋이 그대로 그려질 이 글을 어쩐지 신평 마감하기 저어되었다. 사색을 래일로 미루려고 원고지들을 간추렸다.

미구에 청아하게 들리는 시계종소리에 상념에서 깨여 났다. 바로 1학년생인 손녀애가 음악소조에서 돌아 올 시간이다.

요즘 소년단야영을 간 제 오빠 철이 뭍까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염둥이다. 손퐁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소리를 듣노라면 인생의 락을 새로이 느끼는것만 같다. 하기에 시간을 쪼개가며 아무리 사색에 몰리우다가도 손녀애와 함께 즐기는 이때만은 미루지 않는것이 내 일과이다.

새싹처럼 청신한 손녀와 지내는 즐거운 시간에 메마른 땅의 고목처럼 잦아 들던 심신이 갱소년되는듯 싶다.

실은 나의 사색을 지켜 주려 누구도 선뜻 서재에 들어 서기를 저어한다. 설혹 방에 들어 와서도 조심해 하는 《가풍》에도 무관한 《불청객》은 손녀애뿐이다.

때없이 문득 서재문을 여는것때문에 집안에서는 손녀애에게 나 모르게 눈살을 모은다. 하지만 그 《타이름》조차도 《곰살곳은 친구》인 이 할애비때문에 자주 잊곤 하여 지청구를 듣는다.

어른들의 속심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천진하고 깨끗한 어린 그 마음이다. 그것이 소중한 서재의 문만이 아닌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나였다.

귀를 강구고 있느라니 아니나다를세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이어 제 어머니와 주고 받는 말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이제 반참도 못되어 손퐁금을 안고 방에 들어와 새곡을 들려 줄것이다.

한눈을 쫓궁거리며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재능의 평가를 받으려 할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한가지로 그 재능에 자신의 놀라움을 감출수밖에 없다.

아직은 엄마의 치마폭에 감싸여 들며 어리광을 부려야 할 7살, 오죽하면 《미운 일곱살》이라고 하겠는가.

계정을 부리기 일쑤인 그 나이에 날렵하게 물결치는 어린 손끝에서 흘러 나오는 선율이 어찌면 저리도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따뜻이 정화시켜 주는것인가.

인생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 나이이지만 날과 달이 다르게 음악의 신비로운 세계를 폭 넓게 펼쳐 간다.

저 신비로운 손끝에서 10년 아니 20년후에 흘

러 나오게 될 사랑과 열정, 희망과 랑만의 세계는 또 얼마나 넓고 아름다울것인지 가늠할수 없다.

나는 어린 손녀를 보며 인간의 지성이 끝이 없다는 말의 참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려 보곤 한다.

황금덩이를 놓고는 웃지 못해도 귀염둥이를 놓고는 크게 웃는다는 옛말처럼 웃음이 있어야 집안이 흥하는것이다. 저 애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시는 하해 같은 덕망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머리 수그리는 나로서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미쁜 상념은 애어린 목소리에 끊어 졌다.

《딩동!》

그 깜찍한것이 오늘은 손기척 대신 입소리로 기척을 낸다.

나는 얼른 안경을 내리쓰고 밀어 놓았던 원고지를 끄당겨 놓았다. 요 귀염둥이와 숨박꼭질할 심산으로 원주필까지 찾아 들었다.

《딩동, 딩동, 딩-동》

대답이 없어 안타까와 진 마음 그대로 높은 소리로 불러 댔다.

그 알곳은 속내를 지켜 보며 나는 그제야 큰 기침을 짓으며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들어 오십시오.》

자못 엄숙한 말소리에 기가 죽어서인지 《딩동》하는 한풀 죽은 소리에 이어 문이 살며시 열리었다.

《해해... 할아버지, 나예요. 별이-》

《어이구 우리 공주님이시군.》

《피- 내가 뭐 공준가, 별인데...》

《나라에선 <왕>인데 집안에서도 공주야 어떤하지.》

《그래두 엄만 간참쟁이라구 하는데요 뭐. 계집애가 다사스럽다구...》

별이는 도도룩한 아래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가 제일 싫어 하는 말이다.

《안할 소리...<여봐라, 누가 감히 우리 귀한 공주를 간참쟁이라구 했느냐. 당장 끌어 들여라.??》

나는 눈을 부릅뜨며 웅근 목소리로 흥내를 냈다.

《네잇.-》

영화에서처럼 화답하고야 별이는 웃음을 피웠다.

《그래 무슨 린습곡을 공부했니?》

《저 오늘은... 못했어요.》

조심히 내미는 왼손 회목에는 뜻밖에도 흰 붓대가 감겨져 있었다.

《저런, 이게 어떻게 된거냐?》

놀라와 하는 내 눈길을 피해 별이는 눈을 내리 깔았다.

《체육시간에 손을 풀었어요.》

《아프지 않냐?》 조심히 쓰다듬는 나에게 도리머리질을 했다.

가만히 놀려 보니 다행히 크게 다친것 같지 않다. 그래도 안심치 않아 하는 내 기색을 눈치챈 별이는 살며시 손을 뽑는다.

《의사선생님이 약을 발라서 일 없어요. ...참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손은 일없으니까요.》

나를 안심시키려고 오른손을 뽑아 들었다.

《2층에 올라 가 미술소조오빠들한테 배웠어요.》

《어이구, 우리 별이가 용쿠나. 어디 좀 볼가.》

《아니, 지금은 안돼요. 아직... 창피해요.》

《창피하긴. 나만 볼텐데.》

《아이, 안타깝네. 래일이면 잘 그릴수 있어요.》

《꼭 한번만 보자는데...》

벌써 불편이 발가우리하게 달아 오르는 품이 여간 수줍어 하는 기색이 아니여서 우정 호기심을 앞세워 보였다. 그림재능이 하루이틀사이는 다고 생각하는 천진한 《믿음》이 나도 그림다.

《야 참 안타깝네. 이제 보면... 난 망신해요.》

래일로 미루었다. 안타까움에 젖었던 두눈은 밝게 빛났다.

황혼기에 들어 서고 보니 깨끗하고도 부드러운 아이적마음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문득 앞서 늘그와 승벽대기를 하곤 한다.

어느 새 영특한 별이는 내 눈가에 비낀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거리었다.

《할아버지,- 재미나는 얘기를 해줘요.》

《영? 얘기가니?》

《전번에 기자선생님들이 왔을 때 한 얘기. 그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들던데요.》

내가 슬며시 말머리를 돌리었지만 별이는 막무가내였다.

《싫어, 기자선생님들만 곱고 난 미운가? 맨날 곱다구 하구선.》

《그럼 우리 일요일 대성산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지. 그때 재미난 얘길 해주지...》

그때까지면 애어린 그 마음에 쓰리고 아픔을 모르는 이야기거리를 추리고 골라 낼것 같았다.

그래도 앵돌아진 별이와 타협안이 서지 않아 즐거운 상생이를 하는것을 눈치챈 그 애 엄마가 끼여 들었다.

《별이야, 할아버지 피곤해 하셔. 종일 글을 쓰셨는데.》

《히잉, 그래두 할아버진 날 공주라구 하는데요 뭐. 곱게 생기구 고운 옷 입은...》

《넵큼 가서 숙제를 해야지. 오늘 아동방송시간에 하는 <소년장수>를 보겠다면서.》

《숙제는 저녁 먹은 다음에 해두 돼요.》

《아니, 오늘은 저녁 먹구 일찍 자야 손이 빨리 낫지.》

제 어머니가 눈을 흘기자 별이는 울상이 되었

다. 아니 나 자신도 하루중에서 제일 기다려 지는 이 즐거운 시간이 오늘은 이렇게 마감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가만 별이야, ... 내 재미 있는걸 보여 주지.》

《정말이요?》

내 말에 턱을 대고 제격 제 어머니의 손에서 풀려 나온 별이는 손뼉까지 짹짹 치며 쪼르르 달려 왔다.

《저런 철딱서니 없는거라구야. ...》

제 어머니가 눈웃음을 치며 하는수없이 전실로 나갔다.

×

어느덧 나는 이쁜 얼굴에 웃음을 담뱃 담은채 제먼저 앞서는 별이의 손에 이끌려 추억의 오솔길을 뚫었다.

...교도소에서 풀려 나오는 나의 걸음은 남달리 무거웠다. 이 땅에 일점 혈육도 가까운 친지도 없는 나에게는 기다릴 사람도 반겨 줄이도 없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종교계, 사회계인사들만이 아닌 낮도 이름도 처음인 사람들이 혈육처럼 뜨겁게 껴안아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만이 아닌 편지와 정성 어린 위문품을 안겨 줄 때 목이 꺾 막히었다.

지금도 그들속에 이채롭게 섞였었던 두 소년이 나의 초췌한 모습을 아픈 눈길로 쓰다듬으며 두 팔에 안기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눈앞에 그려진다.

주먹으로 코를 찌으며 뒤마당에서 놀음에 정신이 팔렸다가 땀과 먼지에 게발린 옷주체때문에 언뜻 날아 드는 어머니의 종주먹을 피해 달아 났을 철부지 어린것들이다.

어른들도 선뜻 앞을 지나기 꺼림해 하는 구치소에 그 애들이 왜 찾아 왔는지? ... 하지만 그때는 애들의 생각을 헤아려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더우기 그 애들이 헤어질 때 살머시 내 손목을 잡으며 주머니에 넣어 주던 그 봉투가 별이앞에 지금 문득 나지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피곳 보고도 어린 나이에 지성을 모아서 정성스레 만든 봉투를 허술히 대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것이다.)...

《우리 별이 국어공부 얼마나 잘했나 불가. 자 이걸 읽어 봐라.》

아직 여물지는 않았지만 퍼그나 꿈꿈한 글씨로 박아 쓴 봉투를 내밀었다.

별이는 그속에서 나온 종이접이보다 봉투에 쓴 글을 읽는데 정신이 팔렸다.

《입김을 불어 넣...으세요. 끈을 조금씩 당겨보세요. 짐승도...새도...돼요.

풀어서 주름 따라 다시 만...들어 보세요.

재미나지요.》

종이접이를 두손으로 받쳐 든 별이는 눈이 울

롱해서 입김을 불어 넣었다. 복숭아처럼 불어 난 종이접이에 사방 나들거리는 여섯개의 가는 실줄을 손끝으로 만져 보던 별이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나씩 가만히 당겨 보아라!》

꼬리와 대가리, 뒤다리와 앞발-주름이 하나씩 퍼질수록 짐승모상이 번져 지자 별이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 두더지예요, 두더지.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두더지 아저씨 있잖아요. ...》

《두더지? 내 보기엔 주둥이가 납작한게 압취수 같은데...》

《그건 뭐나요?》 대뜸 눈이 커진다.

《개미를 잡아 먹는 짐승이다. 바다 건너 오스트랄리아에서만 산단다.》

별이는 나의 마지막말을 듣고서야 자기가 알지 못한것이 웅당하다는 안도감으로 가볍게 고개를 까닥이였다. 했으나 뒤미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압취수도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사는가, 개미는 어떻게 잡아 먹으며 크기는 얼마만한가. ... 나중에는 새끼를 몇마리 낳는가고 꼬치꼬치 파고 든다. 그 대답에 어지간히 지쳐 난 나는 겹쳐 지는 질문을 피하려고 별이에게 또 한주름씩 줄을 당겨 보라고 했다.

어연듯 요지경 같은 종이접이에 유혹된 별이는 아까보다는 더 자신 있게 줄을 당겼다.

《오리예요. 할아버지, 오리- 박박...》

얼마나 재미난지 별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허허, 오리가 그렇게도 좋으냐.》

《힝, 오리는 2점짜리인데...》

《음. 》

《할아버지, 또 해보지요. 이번엔 뭐가 될거 같아요?》

《글쎄... 더 큰 새가 될게다.》

별이는 다시금 입김을 불어 넣고는 끈을 당기며 재간스레 접어 놓았던 마지막주름들까지 간간히 퍼나갔다.

목이 쑥 빠지고 다리가 길게 퍼지면서 날개가 건듯 들린 학의 모양이 분명했다.

두손으로 받쳐 들고 이리저리 돌려 보던 별이의 눈길은 나에게 쏠렸다.

환성을 지르기에는 너무도 진중한 기색이었다.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글쎄, 철이와 비슷한 여라문살 난 사내들이지.》

《이름은 뭐나요?》

호기심 많은 별이는 이 《요지경》을 만든 그 애들에 대해 알고 싶은것이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름조차 모르니 궁해 질 대답때문에 나는 벌써부터 이마에 땀발이 솟는것 같아 머뭇거리였다.

《됐어요. 할아버지, 재간둥이 오빠들은 착할거예요... 그렇지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대답을 기다리며 빠금히 지켜 보던 별이의 눈길에 미소가 피어 난다.

모든것이 새롭고 새로운것은 무엇이든 끝까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은 별이였지만 이번만은 더 묻지 않았다. 선생님이 일깨워 준 한마디 말속에 모든것이 명백해 졌기때문일것이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들이다. 단순히 보이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진 리치를 깨끗한 마음속에 심어준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그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미도 그들의 오묘한 재간을 자기도 익히고 싶은 모양이다.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비친 맑은 눈빛을 피할수 없다.

《이제 만나게 될게다.》

《날 보면 기뻐 할가요?》

《암, 좋아 하고 말고.》

《정말?》

별이는 기쁜 마음으로 되물었다.

《그럼, 좋은 노래를 안고 가면야 반가와 하구말구.》

《난 어찌나, 손이 빨리 나아졌는데.》

한시바빠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앞세우며 별이는 노상 즐거운 기분에 떠 있었다.

《소년장수》를 보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별이는 학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침대맡에 학을 놓고 잤다.

애뜻한 마음이 어린 그 학에 몸을 싣고 훨훨 날아 가 착한 오빠들을 만나는 꿈을 꾸는지, 기쁜 노래를 들려 주며 오묘한 재간을 익히느라 한껏 즐거움을 나누는지...

별이의 어여쁜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새물새물 피어 난다. 고운 꿈나라에서 소중한 마음을 펼쳐보는 별이의 행복한 모습이 나의 가슴에도 따스히 젖어 들었다.

밤이 이슬하여 나는 아직은 별이의 꿈나라에서 날아 예고 있을지 모르는 학을 살며시 집이 들고 서재로 돌아 왔다.

나는 학의 모상을 새겨 보며 조심히 풀어 보았다. 종이에 난 주름 따라 다시 조립해 볼 생각이였다. 래일 별이와 함께 만들어 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나는 저도 모르게 입귀가 버거지며 미소가 새어 나왔다.

감미롭게 펼쳐 지는 아이적마음에 한결음두결음 들어서며 미온의 심경에 빠져 들던 나는 그만 무춤 놀랐다.

예리한 쇠끝에 찢리운것만 같은 놀라운 충동에 들었던 그 종이장까지 찢구었다. 학을 다 풀고 나니 그 종이 뒤판에 토박토박 박아 쓴 글발이 새롭게 안겨 왔던것이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통일을 위해 얼마나 피를 흘렸나요.

이제는 우리가 뿌리겠어요.

하나.》

아직 여물지 못한 봉투의 글씨와 꼭 같았다.

글 뜻을 되새겨 볼수록 소년의 작은 가슴에 애끓는 통일의 열망이 가슴에 저릿하게 젖어 들었다.

문득 봉투를 받을 때만해도 늙은이의 공허한 시간을 종이공작으로 재미나게 메꾸어 주려는 기특한 어린이의 지성으로만 생각했었다.

장한 뜻을 안은 소년의 이름조차 새겨 두지 못한 후회가 막급해 졌다.

짧은 바지를 입었던 소년일가 아니면 태양모자를 썼던 아이일가? 곱씹어 보아도 하나라는 이름이 낯설게만 들릴뿐 어느 애인지 알수 없다.

(혹시 하나로 합쳐 진 마음 그대로 하나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하다면 구태여 따져 본들 무엇하랴!)

한결 종이에 애끓는 열망을 담아 온 그 마음을 두겹, 세겹 더 헤아려 보고 싶어 안락의자에 몸을 물었다...

어린 가슴에 피어 난 지향이 하도 소중하여 통일을 위해 피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그 뜻에 실려 나의 생각은 깊어 져 갔다.

우리 별이도 착한 그 오빠들과 만나면 서로 반가와 손을 맞잡고 크나큰 자량과 행복속에 꿈도 기쁨도 함께 나눌것이다.

기쁨이 힘의 절반이라고 놀라운 기쁨속에 별이는 마음도 재능도 곱절로 자랄것이다.

분명 운명의 너신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니 뜻을 같이한 그 애들앞에는 창창한 새날이 펼쳐 질것이다.

그날을 그려 보며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긴 나는 현실로 펼쳐 질 그날을 앞당기려는듯 저도 모르게 두팔을 벌리었다.

가슴의 금선을 타고 내 심혼의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아서라.

고운 피를 뿌려서는 안된다.

뿌려진 피는 식어 굳어 지기마련이지만 하나로 이어 져 맥박치는 더운 피는 뜨겁게 즐기치게 흐를것이다.

애국의 성스러운 뜻을 이 땅에 새기며...)

그 뜻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이어 주고 싶었다.

《별이야!-》

《하나야!-》

불러도 아직은 대답이 없다.

그래도 마음속 웨침은 터져 오른다.

《내- 너희들의 따뜻한 그 손길 이어 주는 혈맥이 되리라!》

《별-하나》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는 그 소리, 멀리 저 멀리 울려 퍼진다.

그 부름 따라 메아리처럼 들리어 온다.

《나-하나》

## 비녀 외 2편

리진록

문턱을 넘어 서니  
꿈결에도 뵈고 싶던 어머니는 어데 가시고  
장농속에서 기다려 온  
비녀만 이 손에 놓아 줍니까

살아 계신다면  
금시라도 와락 끌어 안고 불을 비비며  
아들아, 어데 갔다 인제야 왔느냐  
이 말부터 물어 보실 어머니시여

어릴적 잔등에 업혀  
함치르르 윤기 흐르는 쪽진 머리에서  
이 비녀 뽑아 놀이감처럼 매만지던 일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하나다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생 다한 그날까지  
이 비녀 머리에 꽃을 때마다

이 아들생각으로 눈물도 헤쳐 젖을 어머니시여

살아서 만나지 못한다며는  
죽어서도 기다릴 아들이기에  
이 비녀를 자신처럼 세워 두고 간  
다심한 그 마음앞에

어머니시여  
이 못난 자식은 어릴 때처럼  
종아리를 거두나이다  
그리운 그 매를  
단 한번만이라도 맞고 싶어

집 떠나 장장 반세기  
내 영웅되어 돌아 왔지만  
어머니앞에, 이런 어머니앞에는  
내가에서 뛰놀다가 해 저물어 돌아 온  
철 없는 자식으로 안기고 싶어...

## 빼꼭새소리

꿈결에도 그림던 고향에 오니  
제 먼저 반갑다고  
빼꼭 빼꼭...  
날 반겨 노래하는 빼꼭새소리

생각나라  
해방 맞은 분여지의 봄같이때  
너의 노래에 화답하여  
《이라-길길》 소잔등 때리며  
보습날 꼭 박고 땅을 갈아 엮던 일이

빼꼭새야 그날에 너는  
청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불러 주었지  
구수한 흙냄새, 그윽한 봄향기  
땅의 주인된 그 환희 가슴 가득 안겨 주었지

빼꼭 빼꼭 정든 보금자리 뜨지 않고  
지금도 날 반겨 부르는 너의 노래소리  
옥중에서도 못 견디게 불러 봤노라  
그 노래 다시금 이 가슴에 흘러 드누나

아 내 고향의 빼꼭새야  
청 고운 너의 노래 들으며 자란  
달리는 살수 없는  
나는 이 산천의 아들

영웅되어 돌아 왔어도  
영웅이기전에 나는 이 땅의 옛 주인  
너의 노래에 화답하여 내 다시 불러 보노라  
내 한생 너와 함께 인연을 맺은  
빼꼭 빼꼭 뻑뻑

## 장기

고향의 소꿉친구 만나  
회포도 어지간히 나는 때  
장기에선 마을에서 으뜸이라며  
그 친구 장기판을 척 내놓으며 하는 말

-자네 오래동안 감옥살이했어도  
장기 두는 법이야 잊지 않았겠지  
-아무렴 고향으로 오는 길도 잊지 않았는데  
차 말 가는 길이야 내 잊을라구

장기쪽 하나 옮기고는  
서로 마주 보며 웃고  
또 한쪽 옮기고는  
눈물에 젖어 마주 보고...

옛정 새로운 정 담아 장기를 두네  
이제는 백발이 된 두 소꿉친구  
장훈이야...  
멍훈이야...  
옥중에서도 안고 산 영웅의 이 목소리  
오 긴긴 철쇄로야 어찌 묶을수 있으랴

## 푸르른 대지

변월녀

## 1

관리위원장 박음선이 자기의 해임문제를 시당 위원회에 제기하였다는 소문이 한입두입 건너 전해지고 있었다. 박음선은 자기는 이미 나이도 지난 늙은이이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도할 능력도 부족하기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고 유망한 책임자에게 관리위원장 직무를 넘겨 주도록 해달라고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제기한 책임자인 즉 리소재지작업반 반장인 송경심이라는 소리도 뒤따랐다.

송경심에게 그 소문을 전해 준것은 리직관원으로 일하는 남편 정석우였다. 작업반일로 항상 바빠 하는 안해를 대신하여 저녁끼니준비를 도맡아 하다 싫어 하는 정석우는 옆집에서 한사발 가져다준 봉어까지 짹짹히 지저 놓고 기다렸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는 안해를 보는것이 흐뭇한 김에 그 말을 건넸다.

《아니, 무슨 그런 허튼 소문을 듣고 다녀요?》

송경심은 입으로 가져 가던 봉어반찬을 접시에도로 놓으며 눈까지 울롱해 저서 힐난했다. 마치 당치 않은 헛소문을 고안해 내어 퍼뜨린것이 정석우이기라도 한듯이...

《아니, 거 내 귀에까지 흘러 들기에...》

천성적으로 어리무던한 사람인 정석우는 안해의 역정에 저으기 당황해 했다.

송경심은 순간에 밥맛이 싹 젖혀 저 수고스레 저녁식사를 지어 놓은 남편에게 무례하다는것도 안중에 없이 수저를 놓고 말았다.

(감히 그런 당치 않은 소리를 지어 돌리다니... 우리 대평벌에 한생을 깡그리 바쳐 온 영웅관리위원장이머니를 두고 그런 욕된 소문을...)

남편도 수저를 내려 놓는것을 띠여 본 송경심은 그제야 자기가 너무했다는, 제 기분에 애꿎은 남편에게 불손하게 대했다는 후회를 했다. 아들이 애가 먼저 밥을 먹고 자리를 뜬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요. 식사를 더 하세요.》

《아니, 난 저녁을 지으면서 군입질을 했댔소.》

송경심은 가슴이 답답해 나 밖으로 나갔다. 짐차 소문이 사실일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닿아 망연해 졌다. 박음선관리위원장이 나이가 지난것은 사실이다. 엇그제 작업반에 나와 거름용풀단을

지고 함께 걸을 때 몸시도 힘겨워 했지. 무릎맥이 없어 지는게 알린다고, 허리도 때없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하면서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풀단을 지고 걷던 위원장이머니!... 아, 흐르는 세월이 이런 결과를 가져 온단 말인가. ... 설사 나이가 많아 저 육신이 제 뜻대로 움직여 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일욕심이 강한 그가 자기의 해임을 제기했단말인가? 어제 밤에도 작업반장들을 모여 놓고 엄격히 따지던 그가... 아니, 아니다. 그가 그런 제기를 했을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보니 다소 마음이 개운해 났다.

송경심은 어둠에 잠긴, 개구리, 뜰부기소리가 겨끔내기로 울려 오는 대평벌에 유정한 눈길을 보내며 이 벌은 박음선관리위원장이며 그가 없는 대평벌은 생각할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의 딸인 자기를 애초의 지망이던 예술계통이나 부모들이 권고하던 의학부문으로가 아니라 농업대학으로 이끌어 준것이 박음선관리위원장이었다는 새삼스런 생각에 묻히었다.

《어느 새 12년전 일로 되었구나!》

송경심은 부지중 혼자소리로 뇌이였다.

그해 여름 어느 날 고등중학교 졸업반이던 송경심은 대평리 진료소장으로 있다가 시병원을 과장으로 소환되어 아직 집이 없어 합숙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토의하러 가는 길이었다.

대평마을에서 시내로 가려면 봉긋한 언덕을 넘어야 했다. 그 언덕으로 오르던 송경심은 무릎걸음을 멈추었다. 푸른 비로도처럼 봄풀이 파랗게 돌아 난 언덕우 관개수로에 들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물속에 정신을 팔고 있는 박음선관리위원장을 띠여 본것이였다. 항상 입고 다니던 작업복차림이 아닌 회색양복차림의 그는 치마자락이 물에 젖는것도 감감 모르고 있었다.

(아, 영웅칭호를 받으러 갔다더니 지금 돌아 오시는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경심은 호기심이 나 발뼘발뼘 그리로 다가갔다...

(두손을 물속에 잠그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 영웅메달을...)

그가 손바닥에 영웅메달을 놓아 흐르는 물에 잠그고 있는것을 여겨 본 송경심은 어리둥절해졌다.

(왜 저렇가?)

경심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관리위원장어머니, 그건 왜 그렇게 하나요?》

경심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박음선은 고개를 돌렸다.

《너 경심이로구나. 대평벌에 영웅메달을 달아 주고 싶어 그런다.》

《예?》

《내가 영웅이 된건 우리 대평벌이 낯알을 많이 내주어 그렇게 된거란다. 그러니 이 영웅메달을 대평벌이 받아야 하는게 아니겠니. 이 수로물이 우리 대평벌 어디에나 흘러 가 닿으니 여기에 잠고 있으면 온 벌이 영웅메달을 다는것 같아 그런다.》

《!...》

경심은 가슴이 뭉클해 났다. 아, 그래서였구나!

대평벌농사를 위해 이른새벽 늦은 밤 벌에서 살아 온 영웅관리위원장! 무릎우까지 걸어 올린 바지가랭이를 언제 한번 내리워 보지 못하고 등실한 얼굴이 검붉게 타가지고 언제나 뛰여 다니던 관리위원장! 거름집을 저도 제초기를 밀어도 앞자리를 양보함이 없이 서 있던 모습이 경심의 망막에도 새겨 져 있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헤아려 수여해 준 영웅메달을 벌에 달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경심은 감동이 큰것만큼 그에게 여느 때없이 마음이 끌리고 무엇인가 자꾸 묻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여 그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청하였다. 어떻게 농민이 되었으며 영웅까지 되었는가를 물었다.

당이 청년들을 사회주의농촌으로 불렀을 때 애 어린 처녀의 몸으로 농촌에 자원진출한 박음선, 농사일이 너무도 힘들어 눈물을 짜며 동요하기도 했다. 전연에서 복무하는 끝끝한 청년군관과 결혼하고서도 어느덧 정든 이 벌을 차마 떠날수 없어, 한해농사를 마무리하고 떠나다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을 때 뜻밖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다. 불의에 달려 든 적들과의 결전에서 남편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희생된 남편뒤통까지 하는 심정으로 유복자를 낳아 키우며 억척같이 일해 온 이악한 녀인, 당은 그를 분조장, 반장, 관리위원장으로 키웠고 오늘은 공민의 최고영예인 영웅으로까지 내세운것이였다. 그의 생애는 경심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적질문을 제기했다.

그때도 지금도 농촌은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 최전선이다. 농촌진지강화를 위해 도시에

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청장년들이 계속 진출해 오고 있다. 하다면 송경심 너는 농촌에서 여러해 자랐는데 영웅관리위원장처럼 농사일을 할 각오를 못하는가?...

경심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에게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깊이 했다. 자리를 털고 일어 날 때 경심은 이런 말을 건네었다.

《관리위원장어머니, 저도 농사일을 할수 있을가요?》

《네가?!》

음선은 뜻밖의 소리라는듯 선뜻 지지를 표시해 주지 않았다.

이윽히 경심을 마주 보다가 그는 애정 담긴 은근한 어조로 말을 했다.

《더깊이 생각해 보고 아버지 어머니와도 잘 토의해 보거라. 그리고 농사일을 할 결심이 서면 우선 농업대학엘 가거라. 나는 뒤늦게야, 그것도 겨우 전문학교를 나오다 보니 걸리는것이 많다.》

《...》

송경심은 박음선의 말을 적극적인 지지로, 제대로 받아 들였다. 생활의 우연한 계기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으로 되는 때도 있는것이다.

하여 송경심은 농업대학으로 갔고 졸업후에는 대학교단에 설것을 권고 받았으나 대평농장으로 되돌아 왔던것이였다.

## 2

송경심은 불시에 관리위원장네 집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박음선이 제기했는가를 속 시원히 알아 보고 싶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음을 되돌리도록 권고하고 싶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질정을 했다면 지금 그의 심중이 얼마나 착잡할것인가. 보람찼던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는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겠는가.

박음선의 집은 웃동네 초입에 있었다.

《은경이 있니?》

경심은 관리위원장의 손너를 찾으며 토방으로 올라 섰다.

《아, 반장이모!》

기다렸던듯 문이 벌컥 열리며 은경이 반색을 했다. 그애는 송경심이 자기 어머니의 중학교동창생으로서 자별한 사이라고 하여 이모라고 불렀다. 전연구분대의 대대장으로 있는 관리위원장의 아들내외는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주라고 5년전에 여섯살짜리 딸애를 보낸것이였다.

《할머니 안 들어 왔니?》

《오늘 들어 오시지 못했었어요. 오후에 13반에



나간다고 했는데요.》

13반은 리에서 10여리 떨어진 데 있는 맨 끝 동네였다. 관리위원장의 걸음은 얼핏 다녀 오는 걸음이 아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품을 들여야 하는 걸음임을 어린 손녀도 알고 있는 것이었다.

경심은 부엌으로 들어 서서 물었다.

《저녁은 먹었니?》

《예, 풋강냉이를 삶아 먹었어요. 이모 잡슬래요?》

《아니, 난 금방 먹고 온 길이야.》

경심은 왔던 김에 부엌거둬새를 해주려고 훑어보니 제법이었다. 그릇가지들이 제 자리에 알뜰히 얹혀 있고 말쑥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경이 용쿠나.》

경심이 이렇게 칭찬하니 은경은 불우물을 살짝 지으며 방그레 웃었다. 웃는 모습이 신통히도 제어머니와 같은 그 애를 보느라니 문득 이 애를 데리고 왔던 현애생각이 떠올랐다.

모내기가 한창일 때였다.

전날 저녁에 관리위원장네 며느리가 왔다는 소식을 경심은 모내기 철참에 듣게 되었다. 경심은 한시 바빠 현애를 만나보고 싶었다. 중학교시절은 물론 그가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인민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도 각근한 사이였던 경심이었다. 전연구분대 군관가족생활이 험치 않음을 체험은 없지만 경심도 알고 있었다.

경심은 제잡담 보물에 손을 씻고 마을로 향하였다. 관리위원장네 집으로 달려 가니 비어 있어 몇집 건너에 있는 그의 친정집으로 갔다.

《경심아!》

《현애!》

어린 시절의 그날처럼 얼싸 안은 그들이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은경일 날으러 왔다가 돌아 가서는 오지 못했어. 우리 은경이 여섯살이 되었으니...》

《벌써 여섯살... 그러니 6년만이었구나. 저 할머니한테 떨거 두려고 왔는지? 험치 않은 걸심을 했구나.》

《응.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현애의 얼굴에는 일순 그늘이 졌다.

《아니 왜?》

경심은 의아해서 물었다.

《땅에 미친 그 로친이 손녀 귀한줄 알게 뭐야. 데리구 가란다네.》

옆에서 둘의 해후를 지켜 보고 있던 현애의 어머니가 하는 소리였다.

《차리리 잘됐지 뭐. 제 에민 슬하에서 내놓기 어려워 하는걸 애아범의 주장으로 데리고 왔던 걸...》

현애 어머니의 악의 없는 힐난의 소리를 들으며 경심은 속이 후더워 오름을 느끼었다. 손녀가 보고 싶다고 빈번히 외이던 관리위원장이 정작 손녀를 안아 말게 될 시각에 그앨 마다하는것은 저 대평벌의 주인이라는 자각때문이라. 두벌자식 더 귀엽다고 목에 휘감기고 치마자락에서 떨어지지 않는 손녀애에게 쏟는 사랑으로 하여 저 벌에 대한 사랑이 덜어 질가봐 그런 모진 결심도 서슴지 않았으리라. 피를 준 혈육에 대한 사랑보다 더 벌을 사랑하는 관리위원장어머니! 시어머니의 이 심정을 며느리가 어떻게 다 알수 있으랴.

《현애야, 은경인 꼭 할머니에게 떨구어 두어야 한다. 그건 너의 남편의 뜻이기두 하고 또 나랑 우리 농장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것이다.》

경심은 현애의 손을 다정히 잡아 주며 간곡히 당부했다.

경심은 한편으로는 박음선을 찾아 가 친혈육에 대한 사랑이 없는 관리위원장이 어떻게 농장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애정을 주겠는가, 지금 농장사람들은 관리위원장을 지켜 보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은경은 이렇게 되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애는 할머니에게 무상의 기쁨을 주는 존재였고 때로는 아픔도 주곤 했다.

현애가 떠나간후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경심은 벌식이 생겨 은경에게 주려고 찾아 갔다. 관리위원장집 토방에 어린 처녀애가 홀로 앉아서 울먹울먹해 있었다. 사위는 어둑어둑해 있는데 외로이 앉아 있는 은경의 정상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었다.

《할머닐 기다리니?》

경심은 반가와 마주 달려 와 안기는 은경에게 물었다.

처녀애는 눈물이 가랑이는 두눈에 설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할머닌 내내 늦게 오시지.》

《응, 할머닌 나를 고와 하지 않아.》

애의 목소리는 심란히 울리었다.

경심은 대뜸 가슴속이 서늘해 저 다우쳐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난 혼자서 점심저녁 찬밥만 먹어요. 어두운 저녁마다 할머닐 기다릴 때면 무서워요. 난 엄마한테로 갔으면 좋겠어.》

경심은 속이 아릿해 났다. 어린것이 제 할머니의 큰 사업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으랴. 이 어린 손녀가 집에서 기다릴 생각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할머니 박음선의 심증은 어떠하랴?

경심은 부지중 애의 마음을 능쳐 주느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은경아, 할머니 네가 기다릴것 같아 나를 먼저 보냈단다. 사랑이랑 과자랑 빵도 주면서...》

《예, 그랬어요?!》

어린것의 기분은 순식간에 전환되었지만 경심의 마음속 자책은 깊어 졌다.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최전연에 있는 이 애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두 그렇구, 관리위원장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봐서두...

송경심은 옆집에 찾아 가 그 집 중학생처녀에게 저녁마다 은경이를 돌봐 주도록 부탁을 했다. 그때로부터 어언 5년 세월이 흘러 열한살이 된 은경이 이젠 저녁 때식도 제 손으로 끊어 먹고 할머니의 사업도 이해해 주고 있는것이였다.

《은경인 참 용쿠나!》

송경심은 이렇게 다시 애를 칭찬해 주고 그 집을 나섰다.

### 3

이른새벽에 벌로 나가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던 송경심은 저녁참이 거의 되어서 먼저 손을 털고 관리위원회로 향하였다.

어제 저녁부터 만나보고 싶던 관리위원장이 지금쯤은 13작업반에서 돌아 왔음직 해서였다.

리문화회관옆으로 돌아 관리위원회 마당가로 접어들던 경심은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게시판앞에 박음선관리위원장과 직관원인 남편 정석우가 마주 서 있는데 좋지 않은 말이 오가는것 같아서였다.

《동문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어요? 발라맞추는 사람으로 되였는가 말이예요.》

박음선이 성을 내는 소리였다.

(?)

송경심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남편이 뭔가 잘못된것 같았다.

《이 줄이 뭘 먹구 이렇게 자랐어요? 그제도 어제도 난 진거름손달구지를 끌지 못했는데 어떻게?...》

박음선은 손가락으로 게시판의 붉은 줄을 가리키며 추궁을 하였다. 관리일군들과 봉사로력들의 진거름운반경쟁도표였다. 시내에서 10여리밖에 안되는 농장에서는 거름원천을 도시진거름운반에 두고 각 작업반들에서뿐아니라 관리일군들과 봉사로력들에게 거름운반과제를 주어 저녁이나 이른새벽에 손달구지로 끌어 오게 하고 있었다. 그 실적을 닷새에 한번씩 경쟁도표에 올리는데 관리위원장의 실적이 뭔가 잘못된 모양이였다.

남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굴이 벌개 저 한 마디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거름실적눈금을 속이는건 땅을 속이는것이고

땅을 속이는건 나라를 속이는것이에요. 내 실적을 한 량대로 수자를 깎아 내려요.》

박음선이 돌아 서서 사무실로 들어 간 다음에야 경심은 게시판앞으로 다가갔다.

《왜 그래요?》

경심은 깔끔한 눈매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허, 거참》

정석우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뒤말을 이었다.

《로친생각을 해주다가 오히려 된 통을 맞았소.

어제와 그제 관리위원장이 시내 반대쪽인 저 7반, 13반쪽에 나가 일을 보느라고 진거름을 못 끌어왔거든. 오늘 밤엔 그 벌충을 하느라고 시내출입을 두세번 할게 뻔한데 늙은이몸에 그렇게 하고 견더 내겠소. 그래 내가 경쟁도표를 좀 올려왔는데 저렇게 성을 내지 않소. 13반 갔던 일도 뭔가 기분이 잡쳐 오던것 같은데 그 서술에 그만... 원 참.》

《...》

《이 경쟁도표를 만들 때도 애초에 위원장이름을 빼놓았던걸 자기 이름을 왜 안 넣었는가 성을 내기에 할수없이 넣었는데...》

《...》

경심은 할 말이 없었다. 관리위원장의 결국한립장은 옳지만 남편도 탓하고 싶지 않았다. 거름은 곧 쌀이라고 거름생산을 우선시하여 1년 내내 완강히 내밀면서 그 앞장에 서고 있는 관리위원장이였다. 다리맥이 없어 진다고, 허리가 때없이 쭈신다고 하소연 하면서도 진거름손달구지 끌기를 멈추지 않는 그였다.

《관리위원장이 그렇게 혹사하다가 쓰러지지 않겠소. 정말 걱정ियो.》

정석우는 이런 푸념을 내뱉으며 붓끝에 흰색을 찍어 관리위원장의 경쟁도표를 수정했다.

송경심은 남편을 지켜 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늙어 갈수록 더더욱 이악을 써 일하는 관리위원장의 건강이 못내 우려되어서였다. 그 성미에 쉬염쉬염 일할수는 없고 힘에는 부치니 하는수없이 자기의 해임문제를 제기한것이 아닐가? 그가 설사 자리를 내놓는다 해도 이 벌을 떠나지 않는한 가만히 앉아 여생을 보내지는 않을것이다. 이 벌과 운명을 같이 하며 이 벌에서 영웅이 된 그가 아닌가.

관리위원장의 기분이 잡쳐 있는 때에 심중의 대화를 나눈다는것은 적중치 않은 때라는 생각에 경심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가 회관앞을 지나 스포스적 걷는데 남편이 뒤쫓아 왔다.

《관리위원장이 찾소.》

《?...》

《당신이 돌아 가는걸 어느 새 본 모양이요.》

경심이 관리위원장방을 찾아 들어 가니 박음선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 올배는 한알도 못냅니다. 우리 농장 탁아소 유치원애들에게 먹여야겠어요. 우린 올배나무가 많지 못합니다. 가을에 사과, 배가 많이 날때 꼭 보장해 드리지요. 올배 몇가마니를 안 준다고 우리와 거래를 끊겠다고 하면 할수 없구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만합시다.》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 버리고 경심이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왜 왔됐어?》

《세대주를 만나려구요.》

경심은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며 박음선의 기색을 살폈다. 사시절 벌에 살아 해벌에 적동색으로 탄 그 얼굴이 지금은 근심에 싸여 컴컴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무더기비가 와도 벼 한포기 허실 없게 대책을 세웠겠지?》

《예, 지금 하고 있어요.》

《풀거름계획은?》

《거의 돼갑니다.》

《그리고 경심인 저 13반에 와서 연구사업을 하던 연구사를 잘 안다지.》

《예, 제가 대학때 그 선생이 초빙되어 와 하는 강의를 여러번 들었었어요.》

《그가 얼마전에 소문없이 13반을 떠나가 버렸다. 13반장 녀석이 잘 대해 주질 않았겠지. 내 그래서 어제 가서 단단히 버릇을 가르쳤다. 당장 가서 옆드려 빌고 모셔 오라고 했다. 내가 가도 되겠지만 과학농사를 홀시하는 반장녀석을 오늘 아침에 그 연구사가 가 있는 이웃농장에 보냈는데 데려 오겠는지 모르겠다. 만약 못 데려 오면 경심이가 나랑 함께 가서 모셔 와야겠다.》

《!…》

경심은 존경의 마음을 안고 박음선을 마주 보았다.

과학농사를 항상 중시하고 있는 관리위원장이자. 자기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것을 한하며 새로운 농업과학을 습득하려고 애 쓰는 일군이다. 관리위원장은 육체는 로쇠하였지만 젊은 일군 못지 않게 우리 농장을 과학농사로 이끌고 있다. 하기에 연구사가 떠나간것을 알고 부랴부랴 달려가 다시 데려 오는 대책을 세운것이다. 이런 일군은 겉은 늙어도 마음은 늘 젊어 있는것이다.

관리위원회를 나서는 경심의 기분은 한결 밝아지였다. 관리위원장이 자기의 해임을 제기한 상태라면 13반장을 그렇게 다볼러 댈 생각을 했겠는가? 아니다. 돌아 가는 소문은 무근거한 소리 일것이다.

이해에는 장마가 없이 지났는가 했는데 8월 하순에 접어들어서 폭우가 려 이틀째나 쏟아져 내리였다. 물 한방울없이 말랐던 대평천에 홍수가 사뭇쳤다. 때없이 드센 바람이 불어 왔다.

경심은 낮이고 밤이고 벌을 누비며 다녔다. 비옷속의 온몸이 비물과 땀에 젖어 끈적거리고 장화속의 발은 허영게 부르터 열을 확확 냈지만 언제 들어다 볼 사이도 없었다.

제일 불안한 곳이 대평천기슭의 논들이여서 경심은 대부분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

밤이면 그 불안은 배가되군 했다. 캄캄한 밤에 물이 급격히 불어 나 벼꽃이 한창 피는 벌을 삽시에 쓸어 버릴것만 같은 위구에 신경이 곤두서는것이였다. 드문히 강기슭을 따라 두줄기의 전지불이 내려 와 아래켄 작업반들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군 했다. 관리위원장 박음선이 리당 비서와 함께 순회하는 불빛이였다.

그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삽시에 마음속 불안이 사라져 버리군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이쯤한 비에는 아직 이틀쯤 더 와도 대평천이 넘치지 않아. 이 본새로 계속 오면 좀 보강하자.》

오랜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는 경심의 한줄만 해진 속을 어지간히 풀어 주며 안정할 여유를 주군 했다. 장마철의 한밤은 길기도 했다.

날이 희뵈히 밝을 무렵에 비발도 성글어 졌다.

경심은 안도의 긴숨을 내쉬며 함께 밤샘을 한 청년들에게 이젠 그만 집에 들어 가 식사도 하고 눈도 좀 붙이라고 일렀다.

경심은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아 논둑에 선택로 작업반의 논들을 유정한 눈길로 더듬어 보았다. 밤 새워 이 벌을 지켜 냈다는 긍지감, 벌을 가득 채운 검푸른 벼포기들에 바쳐 진 노력과 고심에 대한 감회… 어서 빨리 이삭이 뻗으면 하는 기대…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문득 초봄에 엮은 일이 떠올랐다.

박음선은 작업반장들을 모여 놓고 농장안의 전체 논과 밭들에 대한 토양분석을 한주일안에 다시 할것을 지시했다. 그것도 매 필지를 열등분하여 곳곳의 토양을 구체적으로 채취분석할것을 요구했다.

일격에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매 작업반에 토양분석실을 차려 놓고 작업반장들이 직접 틀고 앉아 분석하라는것이였다.

경심은 선뜻 접수하게 되지 않았다. 상세한 토양분석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가? 관리위

원장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 온 농장의 토양분석자료가, 작업반장들의 수첩에는 자기 작업반의 필지별 토양분석자료가 갖추어져 있어 그에 기초하여 구색에 맞는 시비를 해오지 않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석자료는 2년전에 갱신한것인데 왜 토양분석을 다시 해야 한단 말인가?

다른 작업반장들도 경심이와 같은 생각인듯 서로 눈길을 맞추며 의아해 했다. 그러면서도 가타부타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관리위원장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깊은 사색을 거쳐 리당위원회와 합의하고 포치한다는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그들이기때문이다.

송경심은 박음선과 단둘이 남자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 내놓았다.

《토양분석을 다시하자면 많은 로력이 들텐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경심이가 대학을 졸업한 농산기사가 맞긴 맞아?》

박음선은 정색하여 비난조로 물었다.

《?...》

《경심이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지. 아이들 건강이 오늘 좋다고 해서 래일도 래년에도 좋다는 담보는 없다. 항상 관심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해 주어야 건강히 자라지. 땅도 같다. 내 며칠전에 기사장과 함께 몇개 필지를 선택하여 시료를 떼서 분석하여 보았다. 현대 2년전에 분석했던것과 얼마간씩 변한 수치가 나오더라. 매해 시비를 한데 따라 토양성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는거야. 내가 반장들앞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은것은 관리위원장으로치네가 아래사람들을 시키지 않구 <암행어사>식으로 뒤조사를 한것 같은 인상을 줄 생각이 없었구 그러구 우리 반장들이 이제는 다 농산기사, 기수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자기들이 직접 분석해보면 다 알게 될것이기때문에 그만 두었어. 경심이네 작업반의 양지틀토양도 2년전에 비해 알카리성분이 높아지고 류황성분이 적어 졌더라. 그에 맞는 시비를 해야 그 논이 계속 건강해 있을게 아니겠니. 땅을 다루는 농민 특히 작업반장들은 제가 다루는 땅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여기고 관심해야 한다.》

경심은 얼굴이 붉어 졌다. 토양은 한해 농사를 해낼 때마다 지력이 낮아 지고 거름과 비료를 친데 따라 조성이 약간씩 변화되는것이다. 이에 맞게 시비를 따라 세워야 낱알이 잘된다는것은 하나의 상식이 아닌가. 난 언제면 관리위원장처럼 제가 다루는 땅을 친자식처럼 여기게 될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공연히 엇드레질울... 이렇게

토양분석을 다시하고 벼품종배치에 따르는 시비를 하여 이해는 작황이 이처럼 한결 좋아 진것이였다.

인기척이 느껴져 경심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남편 정석우가 아침밥을 가지고 오고 있었다.

## 5

《식사를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들어 가 하는게 어떻소?》

《언제 그럴 새가 있어요.》

《내가 여기로 나오는데 리당비서동지가 당신 보고 리당에 좀 들리라더구만.》

《리당비서동지가요?!》

《그렇소. 시당책임비서동지와 함께 리당으로 들어 가면서...》

《예?》

송경심은 가슴이 철렁해났다. 시당책임비서동지가 왜 갑자기 내려왔을가? 혹시?...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그래서 책임비서동지가 박음선관리위원장의 해임 문제를 료해하기 위해서... 속이 허우룩해났다. 전신에 맥이 탁 풀리었다.

그는 인차 마음을 가다듬었다.

박음선관리위원장을 해임시켜서는 안된다. 한생을 이 별의 어머니로 살며 자신을 깡그리 바쳐온 영웅을 육체가 로쇠해 졌다고, 본인이 제기했다고 해서 그의 해임을 론해서는 안된다.

경심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뇌이였다.

《아니, 그래서 안돼. 안되구말구.》

경심은 마음이 다급해져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어서 가자요. 관리위원장어머닌 어디 있어요?》

《글쎄, 방에는 없소. 아마 또 어디 별에 나가있겠지.》

경심은 사방을 휘둘러 보며 다급히 걸음을 내짚었다.

《아니, 여보 어딜 가는거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쳐 불렀으나 경심은 대답을 않고 걸음만 다우쳤다.

한참 향방없이 걸어 가던 경심은 대평천둑우에 올라 서서 사위를 둘러 보았다. 관리위원장어머니의 모습이 어디선가 띄우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관리위원장어머니를 직접 만나 왜 그런 제기를 했는가, 그것이 진심인가를 따져 묻고 싶었다. 그리고 그래서 안된다고 막 울며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러면 속이 풀릴것만 같았다.

그러나 박음선관리위원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점도록 벌을 빗질해 보던 경심은 맥 풀린 걸음을 옮기었다.

장마가 걷히려는지 하늘이 들리우고 홀어 지는 구름장사이로 해빛이 쏟아져 내리었다.

어느덧 소재지마을로 넘어 가는 등성이우에 올라 선 경심은 걸음을 멈추었다. 푸르른 잎새들을 실실이 드리우고 서 있는 아름이 번 수양버들옆의 수로가 눈에 들어 오고 10여년전 영웅칭호를 수여받고 돌아 오던 박음선이 수로물에 영웅메달을 담그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서였다. 대평벌이 난َالَ을 많이 내주어 자기가 영웅이 되었다고, 영웅메달을 대평벌에 달아 주어야 한다고 하던 박음선어머니, 그 대평벌이 해마다 알찬 이삭을 쏟아 놓은 비결을 경심은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는듯했다. 그것은 바로 대평벌의 주인-박음선관리위원장이 제 낳은 자식 사랑하고 키우듯 온갖 애정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 이 벌을 가꾸었기때문인것이다.

머칠만에 쏟아져 내리는 해별을 받아 우췌우췌 키돋움하며 꽃중의 꽃인 벼꽃을 활짝 피우는 대평벌이 조명을 받은 무대배경인듯 한눈에 확 안겨왔다.

문득 저 멀리 경심이네 작업반 지경너머 3작업반 논두렁을 걷고 있는 눈 익은 모습이 짙어졌다.

## 상식

# 《감성공학》과 새 제품설계

최근 인간공학적방법들이 과학기술부문에서 많이 리용되고 있다.

인간공학에서는 기계나 도구를 설계제작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의 요구와 능력, 그 심리적 및 생리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함으로써 사람과 기계사이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 지게 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초기 기계대상별로 발전하던 인간공학은 최근에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여러 부문에 침투되고 있다.

감성공학은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 리용하는 제품을 제작하는데 인간공학을 적용하는 과정에 생겨났다.

감성공학이란 제품이 사용자(사람)에게 주는 감성적느낌이 리상적으로 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감성공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품의 구성요소와 그것들의 결합방식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장악하고 해석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감성공학의 성과여부는 사람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자세히 여겨 보니 박음선관리위원장이 분명했다. 비물에 폭 젖어 미끌거리는 논두렁을 때로 비청거리기도 하면서 걷는다. 그의 뒤를 따라 선 사람은 3작업반장인듯 했다.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지시를 주는 박음선관리위원장, 그는 어제도 이 벌의 주인이였고 오늘도 여전히 여기 대평벌을 책임진 주인이다. 자기의 해임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변함없이 벌에 사랑과 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영웅관리위원장! 무정한 세월은 그의 육체를 늙게 했지만 그의 가슴속에 충만된 대평벌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강렬해만 지고 있다. 그의 늙음과 반비례되게 나날이 젊어져 저렇게 검푸른 우리 대평벌, 한껏 푸르른 저 대지가 쌀로써 땅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켜 가는 박음선관리위원장의 정력이고 나이이다. 나를 비롯한 젊은 세대 일꾼들이 일을 더 잘하자. 그러면 박음선관리위원장은 저 푸르른 대지와 더불어 영원히 이 대평벌의 주인으로 남아 있을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을 당조직에 반영하자.

리당비서동지를, 책임비서동지를 만나 나의 이속생각을 다 털어 놓자.

송경심은 돌아 서서 리당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짚었다. 활짝 들린 하늘에서는 태양이 더욱 빛을 뿌리고 있었다.

감성공학에서는 먼저 제품의 특성에 따르는 사용자들의 감성적반응을 조사장악하여 자료기지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각이한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조사한 자료뿐만아니라 제품의 특성, 물성이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일으키는 심리적, 생리적과정의 합법칙성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다음 컴퓨터를 리용하여 제품의 물성과 사람의 감성을 련관시키고 그 합법칙성을 찾아 낸다.

감성공학의 성과들은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들을 특색 있게 설계하는데 직접 리용되고 있다.

조명장치설계에서도 사무실인가, 식당인가, 침실인가에 따라 그 밝기와 색조, 모양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직업, 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옷을 설계할 때에도 계절과 나이, 몸매와 취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고려되었으나 감성공학은 사람과 물건, 감성과 물성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해명한데 근거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품설계에 구현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준다.

시조

## 아기앞에서

-일기장의 갈피에서-

박경심

### 아기야 너의 눈동자속에...

아기야 내 희망은  
높디높은 창공에 나래 폈더란다  
자유롭고 억센 날개를 차며  
어디든지 날으고 또 날았지

아기야 나의 꿈도  
그 푸른 하늘가에 아롱졌더란다  
찬란한 무지개다리는 낮에도 밤에도  
하늘과 내 마음에 놓여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너의 맑은 눈동자속에 있구나

나의 꿈 나의 희망이 살던  
푸르른 하늘가는

네 눈동자는 내 마음의 하늘이란다  
바라고 싶구나 그 하늘엔  
언제나 해 비치고 별이 총총하기를  
꽃향기 넘치고 고운 새 날으기를  
다만 검은 구름은 한조각도 떠돌지 않기를

저 하늘 맑고 푸르다 해도 아기야  
너의 눈동자 흐려지면 내 마음 즐겁지 않아  
맑은 눈동자, 별빛눈동자 그렇게  
네가 빛날 때 저 하늘도 빛난단다

### 욕심꾸러기와 엄마

처녀시절의 행복  
웃음도 울음도 공상도  
하루아침에 그는 앓아 갔습시다

기나긴 한생에 없어서는 살수 없는  
타고 타고 또 타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도  
그는 슬며시 가져다가 자기의것으로  
만들었습시다

처녀라는 달콤한 부름마저  
사정없이 영원히 앓아 간  
그는 아기랍니다  
인간세상에 첫발을 들이민  
참으로 놀라운 인간- 어린애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왜 아기앞에서 꼼짝 못할가요  
엄마의 젖줄기는  
아기의 생명수가 아니던가요

사랑도 행복도 짱그리 앓아다가  
제것으로 만든 이 불손한 욕심꾸러기한테  
왜 꼬물만큼도 불만이 없을가요  
잃은것을 하나도 분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것을 아기의것으로 만들지  
못해  
짱그리 아기의것이 되지 못해 안달아 할가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친근하고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아기가 주었기때문이 아  
닐가요

### 말할줄 모르는 《제왕》

그는 새로 군림한  
집안의 《제왕》입니다  
헌데 그 《제왕》이란  
아직 잘 볼줄도 모르는 울보아기입니다

아기의 유일한 언어는 울음입니다  
그가 울면 어른들은  
젖을 물리느라  
팔랭이를 찾느라

어쩔바를 모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그의 멋쟁이삼촌들도  
말 없는 그 명령에 절대복종합니다

가만히 보니  
갇난아기들은  
소리내어 울줄은 알아요  
소리없이 울줄은 모릅시다

그런가 하면  
소리없이 웃을줄은 알아요  
소리 내어 웃을줄은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이 완전치 못한  
아기들의 울음과 웃음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기를 품 안고 첫밤  
나는 뜬눈으로 새웠습니다  
한줄기 고르지 못한 숨결에도  
어쩐지 놀라는 마음

살펴 보고 다시 살펴 보고  
안심되는 때보다  
근심스러운 때가 더 많은  
어머니의 기나긴 첫밤

이때도록 내 몰랐습니다  
날 품어 준 사랑  
나를 위해 어머니 지새운  
그 밤이 몇백몇천밤인지

요람속 아기에게

아기!  
너 없는 집은 불이 꺼진 집

아기앞에서는 누구든지  
어른이기를 그만 둡니다  
어른들은 모두 자기들을 쥐락펴락하는  
이 말할줄 모르는 아기 《재왕》의  
《시종》이 된듯 싶습니다

## 가만히 보니...

아기의 울음은 인정의 부름입니다  
누구나 그 울음앞에서 따뜻한 마음을  
자기 마음속의 천사를 만나곤 합니다

아기의 웃음은 시름을 태우는 불꽃입니다  
누구나 그 웃음앞에서 구김 없는 마음을  
만시름 잊은 자기를 찾곤 합니다

그 울음 그 웃음은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거짓이 없어 꾸밈이 없어  
만사람의 심장을  
그리도 힘 있게 틀어 잡는것이 아니겠나요

## 어머니의 첫 밤에

자장가 불러 주며  
이 세상 나서 처음으로  
온밤을 꼬박 지새이는 그 순간순간

깊어 갔습니다  
끝없이 깊어 갔습니다  
이런 어머니사랑으로  
이 몸을 안아 키워 준 조국에 대한 생각

나 또한 아기에게 기울여 지는  
다심하고 진할길 없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어머니 나의 조국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싶어 지는  
아, 어머니의 첫밤이었습시다

## 아기! 너없이야

웃음을 모르는 집  
미래가 없는 집

아기! 너없이야  
 무슨 가정이라 행복한 부부이라  
 너없이 인생의 노래가 있으라  
 아름다운 생활이 있으라

네가 있어 집집마다  
 꿈이 있고 웃음이 있단다  
 한생을 네 엄마아빠들은  
 힘든줄 모르고 일하는거란다

그 땀으로 내 나라는 부유해 지고  
 인민은 길이길이 늙지 않는거란다

너를 위해  
 피 흘려 조국땅 지키고

너를 위해 그리도 열렬히  
 삶을 사랑하는거란다

하야니 보통보통한  
 그 조그만 손엔  
 얼마나 푸르고 즐기차고  
 위대한 미래가 쥐여 저 있는것이나

아기!  
 너희들은 또한 그 미래의  
 티없이 밝은 웃음 시름없이 밝은 얼굴  
 첫 걸음마 떼이던 봄잔디우에 다시금 서서  
 팔 벌려 아기를 부르는  
 정다운 엄마들, 행복한 아빠들!

## 상식

# 《기니스기록집》의 유래

《기니스기록집》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있는 흑맥주회사인 《기니스와 아들》회사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일종의 세계기록사전이다.

《기니스기록집》에서 《기니스》는 이 회사주인의 성을 그대로 옮긴데서 유래되었다.

더블린에 있는 《기니스와 아들》회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흑맥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니스가문은 상업활동으로 큰 재산을 모아 정계에도 진출하고 귀족의 칭호까지 받은 아일랜드의 《명문가문》으로 알려 져 있다.

1825년에 아더 기니스(1768-1855)에 의하여 더블린에 맥주공장이 선후 그의 아들 벤저민 기니스대에 와서 《기니스와 아들》회사는 흑맥주를 대량생산하여 미국과 유럽나라들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기니스가문의 후손들은 영국 국회의원, 정부의 상, 더블린시장 등의 요직을 차지하여 왔다.

《기니스기록집》은 기니스가문의 후손인 이 회사 부사장이며 작가인 브라이언 월터 기니스의

발기로 주체44(1955)년부터 출판되게 되었으며 그후부터 매해 수정보충하여 발행되고 있다.

이 책은 각이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하나로 알려 져 있다. 제1판이 발행된 주체44(1955)년부터 주체74(1985)년까지 30년동안에 24개의 언어로 5천 10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매주 5만부씩 부수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 등록되자면 《기니스기록집》 편집부앞으로 기록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이 편집부는 그 자료들을 검토한후 신빙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편집부성원들을 해당 나라에 파견하여 이 사실을 확인한후 해마다 새로 편집되는 《기니스기록집》에 올린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거리로 발행되던 이 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날로 인기를 끌게 되어 오늘은 공인된 세계기록집으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이름이 오르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세우기 위한 모험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여섯번째 버드나무

한정아

인생행로에 언제나 찾아 들기 마련인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민은 모두 제 나름의 무게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물리학적범주에서 고찰하기는 어렵다 해도 행복과 기쁨의 무게는 나누어 가질 때 배가 되고 슬픔과 고민은 홀로 간직할 때 그 무게는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진다.

바로 후자의 경우에 처하게 된 나는 무작정 버드나무 우거진 대동강변으로 나갔다. 인적이 뜸한 유보도의 한끝에 앉았어도 피로움은 눈덩이처럼 커가기만 했다.

공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내가 굴지의 최첨단컴퓨터기지인 중앙컴퓨터센터의 배치를 마다하고 농업연구소에 온것은 몇해전이었다.

류레 없는 자연재해로 나라의 농작물이 심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과학자들은 대책적인 연구안을 모색했다. 나는 이것을 컴퓨터로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컴퓨터모의전쟁으로 량국의 승패까지 결정하는데 한해농사 파종과 작황, 수확도 컴퓨터로 미리 예측하여 정확한 종합적인 농업지령체계를 세운다면 안전하면서도 소출 높은 농사를 지을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분야의 컴퓨터도입은 아직 미개척이었다. 미지의 영역에 대담하게 뛰어 들자.

흥분한 나는 연구계획을 면밀히 세워 부서에 정식 제기했다.

그런데 나의 계획안이 폭소를 터뜨리게 될줄이야,

이런 조소의 화살이 미처 방아준비도 갖추지 못한 나의 가슴에 사정없이 날아 와 박혔다.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는 신음소리조차 낼수 없었다.

사회에 진출하여 큰 걸음을 내디디려던 나의 결심이 이렇게 좌절될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실천적인 결과로써 증명하자. 오직 결과만이 나를 인정시킬것이다.

나의 굳은 결심은 당조직의 지지를 받았다.

진지한 사색과 탐구의 날이 적지 않게 흘렀다.

나는 시험을 서두르지 않았다. 보다 깊이 있게 준비를 완료하여 《단발명중》하자. 이것이 나의 실력을 과시하는 길이다. 나는 모든 계산과 조작에서 단 한점의 오차라도 생길세라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끝에 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파격은 빚나갔다. 성공을 확정적으로 믿었던 나는 눈앞이 아찔해 졌다.

이쯤하면 연구과제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고 내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수밖에. 그러나 가슴속에 고패치는 분격은 참을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라도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을 쏟아 놓아야 편할것 같았다.

대학시절의 딱친구였던 철수가 생각났다. 그러나 단념했다. 처너지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그가 얼마나 설복했던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은 외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교육자가 아닌가. 어머니가 키워 낸 수백명의 제자들중에 공화국영웅이 두명이나 배출되었다.

한 영웅은 육탄이 되어 적합선을 까부셨고 다른 영웅은 불 붙는 산림속에 뛰여 들어 구호나무를 목숨으로 지켜 냈다.

내가 컴퓨터도입을 착상했을 때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얼마나 기뻐 했겠니?》 하며 눈굽에 손을 가져 가셨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부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르르 젖어 들며 눈굽이 뜨거워 진다.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것은 열다섯해전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 어머니는 학교일때문에 송곳 끝만한 틈도 내기 힘들어 했지만 이날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가 저녁밥상에 들무렵인데 아버지네 작업반아저씨가 찾아 왔다. 아저씨는 얼굴이 꺼멥게 질려 뒤편고 떠듬거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들었던 술을 놓고 일어 섰다. 나도 아버지를 뒤쫓았다. 얼마쯤 뛰여 가니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송전대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고 있었다. 비서아바이의 상기된 얼굴도 얼핏 보였다. 그들의 눈길은 한결같이 하늘로 향해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거미줄처럼 엉켜진 전기선들이 나의 시야에도 비껴 들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태풍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전선대에 올랐다.

그러자 누군가의 손이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아 내렸다.

《반장, 안돼. 고압이 흐르고 있소.》

웅글고 석싹한 비서아바이의 목소리가 밀집처럼 모여 선 사람들틈으로 흘러 나왔다.

《비서동지...》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에게는 그 침묵이 《공장이 멈춰 섰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주장로가 굳어 집니다.》 하는 아버지의 텅기는듯 한 목소리의 메아리로 느껴 졌다.

갑자기 아버지가 전주대로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누가 만류할세라 번개처럼 올라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땀에 젖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었다. 마치 기발처럼... 그것은 점점 작게 보였다.

선은 이어 졌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영영...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네가 정말 내 아들 김영석이 옳으냐. 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만한 일에 주저앉아 나.》

가늘게 내쉬는 어머니의 한숨. 나는 한 몽둥이 얻어 맞은 심정이었다.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칼 끝처럼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준 자식된 도리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긴 주름이 이 못난 자식 때문에 더 깊어 진 것 같은 알찌근한 마음, 실패한 시험, 사람들의 비난, 이 모든 고민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그 중압감에 나는 숨쉬기조차 가뻔했다. 나는 말없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버드나무가지들에 눈길을 주었다. 예로부터 평양을 상징해 온 버드나무, 오늘은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 잡고 있는 수도의 중심에 줄기찬 흐름으로 유유히 흘러 가는 대동강을 굳건히 보호하고 서 있는 버드나무를 나는 사랑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버드나무밑으로 향했는지 모른다. 나는 버드나무에게라도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기철동무!》

갑자기 나는 귀를 강구었다.

그렇다. 분명 그 어떤 목소리가 내 옆에서 울렸다. 저으기 반가움에 잠긴 처녀의 음성이었다.

(기철동무?! 헛참.)

청춘남녀들이 쌍쌍이 앉아 있던 어느 의자에서 튀어 나온 목소리인 것 같다.

나는 다시 머리를 움켜 쥐었다.

《아이 참, 기철동무!》

처음보다 좀더 높은 목소리가 나의 귀청을 울렸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피로운 생각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들볶는 알 수 없는 상대가 누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순간 《어마나.》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내 눈 앞에는 가슴에 락장이 가득한 군관복을 입은 처녀가 놀란 얼굴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목깃에 뚜렷이 남아 있는 령장자리가 눈길을 끌었다.

(제대군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피뚝 머리를 스쳤다.

《아이 참 미안해요. 저의 중학교동창생동무와 어쩌면 그리도 옆모습이 꼭 같은지... 아이, 안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죄 삼아 증언부연하는 목소리여서인지 꼭 부드럽게 느껴 졌다. 종전의 노여움이 저절로 사라졌다. 당황해 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도 꾸밈이 없어서 오히려 내 쪽에서 미안스러웠다.

하지만 제깎에 미안해 난 처녀는 황황히 자리를 떴다.

사색에 몰린 나는 때없이 유보도를 찾아 나섰다. 다가 일요일에 우연히 그 처녀를 또 만났다.

낮 익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눈인사를 보냈더니 그 역시 반가와 하는 기색이었다.

《전번엔 정말 안됐어요. 우리 동무인 줄로만 알고...》

《아, 괜찮습니다. 생활에선 그런 혼돈이 종종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녀군관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던진 말이 그를 더욱 급하게 만든 것 같았다.

《아니, 저... 사실...》

초소에서는 그렇듯 용맹스러웠을 처녀가 (나는 그의 가슴에 번쩍이는 락장을 보며 적어도 이렇게 확신했다.) 말 한마디의 실수에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왜서인지 나에게 류다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 처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 내 탓처럼 여겨 졌다. 나는 이 버드나무옆의 의자에 앉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 동창생도 이마 저처럼 큰 체격을 가졌던 모양이지요?》

처녀앞에서 스스럼없이 말을 던지는 나 자신도 내심 놀랍게 생각되었다. 어떻게 하나 처녀군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였는지 아니면 앞가슴에 빛나는 락장들에 마음이 끌렸는지 알 수 없었다.

자기의 실수를 타내지 않는 나의 태도가 그에게 저으기 안심을 준 것 같았다. 파스한 정이 함뿍 흐르는 처녀의 맑은 눈이 버드나무줄기를 더듬고 있었다. 이윽고 눈길을 돌린 처녀는 조금 전 내가 향방없이 걸어 왔던 유보도쪽에 감회 깊은 시선을 주는 것이었다.

《저기 무리들로부터 여섯번째 서 있는 이 버드나무에서 우리 초소로 떠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에 가도 이 강반을 잊지 말자고요.》

답답하게 들리는 처녀의 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끌려 들었다.

《우리는 언제나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도 보람 있는 초소에서 위훈을 세우고 이 버드나무아래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답니다.》

나는 늘 평범히 바라보던 아름답디나무에 새삼스런 눈길을 보냈다. 저 버드나무가 이런 사연을 안고 있을 줄은 몰랐다.

오랜 세월을 고향과 떨어져 지 있었으니 보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으랴. 눈 내리는 전호가에서도 언제나 잊을 수 없었던 이 땅, 이 하늘이었으리라.

《참말이지 잊을 수 없었어요. 저 룡라도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여울물소리며 여기 강변에

휘늘어진 버드나무들이 나의 살불이인양 긴긴 나날 한순간도 내 품에서 떠나본적이 없었어요.》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처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듯 싶었다.

푸르른 대동강이 비껴서인지 처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그윽히 빛났다. 그 빛은 이 땅을 목숨으로 지켜 낸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처녀는 버드나무밑으로 조용히 다가섰다. 그는 나무줄기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이듯 말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버드나무가 떠오르곤 했어요. 전 고향땅에 도착한 순간 누구든지 여기에 꼭 있을것만 같았어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동창들이 그리워서인지 처녀의 말끝이 흐려 졌다. 나를 동창생으로 착각한 처녀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처녀의 걸음에 따라 흔들리는 가슴에 락장들이 번쩍이었다. 그의 가슴에 빛나는 락장들이 범상치 보이지 않았다. 한둘도 아닌 저 많은 락장들, 그것이 어찌 수월히 차례진것이라. 그 하나하나에는 동창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처녀의 땀이 깃들어 있을것이다.

군무생활경험이 없는 나의 눈앞에는 영화의 화면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피륙피륙 떠올랐다.

불 타는 고지, 초소의 밤, 갈증을 참을수 없게 하는 수백리 행군길, 제대군관처녀도 역시 그 모든 고비들을 용감히 극복했으리라. 그가 만일 주저 앓았다면 저처럼 많은 락장을 번쩍이며 고향땅에 들어 서지 못했을것이다. 처녀의 락장은 나에게 여섯번째 버드나무밑에서 다진 그날의 약속을 기어이 지켜 낸 의지의 증표로 보였다.

그래서 대동강을 바라보는 처녀의 눈은 저리도 맑고 깨끗한것이 아닐가. 저 처녀군관이야말로 티 한점 없는 마음으로 조국의 하늘을 뚫듯이 바라볼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 빛나는 락장들이 말해 주고 있다.

그가 돋보일수록 처녀와 대조되며 아무런 자옥도 남기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이 돌이켜 졌다.

대학시절을 마치던 그때의 결의가 상기되었다.

남들이 저어하는 곳에서 성공의 탑을 쌓자. 그래서 20대, 30대에 기어이 학사, 박사라 되리라. 그런데 첫 굽인돌이에서 넘어 졌으니 과학의 출발선에서 다졌던 탐구의 먼 길까지 언제 가닿으랴. 그렇다. 일어 서야 한다. 눈비가 쏟아 지고 가시밭길이 막아 서도 넘어 서자 하는 자격지심이 부끄그 솟구쳤다.

별안간 마음이 거뿔해 졌다. 지금껏 나의 온몸을 무겁게 지지누르던 짐은 언제 떨어 저 나갔는지 알수 없었다.

처녀군관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버드나무밑에서 떠나지 못했다. 처녀의 락장이 그냥 눈앞에서 빛을 뿌리는듯 했다.

×

성공의 날은 왔다.

몇년동안 바친 고심어린 탐구는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컴퓨터의 생육모의에 기초한 종합적인 농업생산체계가 수립되었다. 농업분야에 하나의 혁명이 이룩되었다고 학계가 떠들었다.

성공의 순간에 나의 머리에는 제대군관처녀의 앞가슴에 빛나던 락장들이 떠올랐다. 참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처녀의 락장은 내앞에 빛을 뿌리며 길을 열어 주었다. 그 빛에 힘을 얻고 시험대에 앞은적은 그 몇번이던가.

마음속으로 나는 처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는 이번 연구의 성공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부서동무들은 물론 연구소안을 오갈 때 그저 스쳐 지나던 다른 부서사람들도 나를 보면 경의의 눈길을 보냈다. 로학자들도 대견한 미소로 등을 두드렸다.

《수고했소.》

그들의 어조에서 나는 후배에 대한 선배의 믿음을 느꼈다. 폭소를 터뜨리며 비난했던 중년의 연구사도 나의 연구성과를 축하하며 이렇게 사죄했다.

《동무의 이번 성과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네.》

흰 서리가 머리에 희끗희끗 엿보이는 그의 진심어린 말에 나는 얼굴을 붉혔다. 한때 그에 대해 언짢게 생각했던것이 막 후회되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 과학자들만큼 청백한 사람들은 없다.

그들은 과학에서나 생활에서 단 1%의 허용오차도 용허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진리앞에서는 경력과 나이에 구애됨이 없이 머리를 숙인다.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과학자도 있다.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높은 지식과 함께 적지 않은 생활경험을 쌓았다.

대학의 벼들에게서도 축하전화와 편지가 끊임 없이 날아 왔다. 언젠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고 충고했던 철수는 향기 그윽한 꽃뭉음을 들고 찾아 왔다.

벚의 찬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시켰다.

얼마나 좋은가. 성공한 날은...

기쁨은 나누어 가질 때 커진다는 말은 옳은것 같다.

어머니는 그 레의 낮은 음성에 기쁨을 다 담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운듯 이렇게 말했다.

《용타, 첫봉우리는 무사히 넘어 섰으니 다음 봉우리도 자신 있겠지.》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짐작되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자칫 빠져 들기 쉬운 자만의 함정을 주의하라는 뜻이었다.

자식에 대한 대견함속에서도 탈선 없는 길을

가도록, 언제나 앞선에 서도록 은근히 원심을 쓰는 다정한 어머니의 손길이 감득되었다. 나는 더 없는 행복감에 잠겼다.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지들과 벗들, 혈육들속에서 즐거운 나날이 흘렀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은 개운치 못했다. 가까운 벗에게 나의 기쁨을 알려 주지 못한 아쉬움이랄까.

그때마다 문득 버드나무가지 실실이 늘어 진 대동강변이 떠오르곤 했다.

노래하듯 속삭이며 흘러 가는 강물위에 략장을 가득 달고 서 있던 제대군관처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뜨거운 사랑의 정이 넘쳐 흐르던 처녀의 그윽한 눈,

드바쁜 탐구의 날에는 미처 못 느꼈던 처녀의 눈길이 성공한 오늘날에 자주 떠오르는것은 웬일일까.

암초에 부딪쳐 동요할 때마다 다시 솟구칠 용기와 고무를 준것은 그 처녀였다. 그와 마음속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도 략장의 여광을 받아 그 은근히 안겨 오던 처녀의 눈빛이 나에게 시대앞에 지닌 청춘의 사명감에 대해 깨우쳐 주었었다.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 청춘시절이 값진 추억으로 남을수 있게 먼 후날에도 후회 없는 청춘시절이 돌이켜 지게 자각을 준 처녀에게 고마움의 인사라도 하고 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한두번 얼핏 만난 처녀였지만 그는 나의 마음에 잊을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 그가 나의 성과를 안다면, 그토록 맑게 빛나던 처녀의 눈에 끝 없는 환희가 물결칠것이었다. 나는 왜서인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런 상상에 잠겨 질 때면 흐뭇해 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 눈빛앞에 서면 심장은 즐겁게 맥박치고 하얀 조약돌이 그대로 내비치는 샘물가에 선듯 가슴은 시원히 열릴것 같았다.

아마도 그 마음이 끝났는지 퇴근길에 오른 나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버드나무 우거진 대동강변으로 향해 졌다. 강변이 가까와 질수록 심장은 벌써부터 설레이며 흥분을 두드렸다.

그 처녀가 여섯번째 버드나무밑에 있을리는 만무했지만 강물쪽으로 몸을 내뻗친 낮 익은 나무가 눈에 띄우자 걸음은 더욱 빨라 졌다. 이때야 나는 처녀가 남긴 체취와 그윽한 눈을 그려 보는것이 나의 생활에 또 하나의 기쁨을 덧붙인것임을 의식할수 있었다.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

풍만한 아지를 소슬한 바람결에 태우고 가볍게 춤 추는 버드나무가 시야에 가까와 졌다. 무성하게 자란 푸른 잎들이 무심히 바라보이지 않았다.

오래전 그날에 조국을 위한 성스런 초소로 떠나는 처녀와 그의 동창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손저어 바래주었을 버드나무잎새들을 향해 나는 더

다가설념을 못했다. 가지마다 하나하나 매달린 잎새들이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 졌다.

산책을 나온듯 한 안경 낀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버드나무밑을 지나갔다. 그뒤를 이어 아이의 손목을 잡은 30대의 젊은 여성이 강물쪽을 가리키며 그밑을 걸어 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드리워 있는 그 버드나무에 어떤 뜻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모를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그밑을 지나는 사람들조차 평범히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처녀와 그의 동창생들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안겨 왔다.

연보라색양복을 입은 처녀가 또 다가왔다. 처녀는 버드나무밑을 지나지 않고 흘러 가는 강물에 이윽도록 눈길을 주더니 조용히 의자에 몸을 싣는것이였다. 아마도 퇴근길에 잠시 머리를 쉬일겸 유보도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때의 제대군관처녀처럼 그 어떤 뜻 깊은 약속이 있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처녀는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무릎위에 올려 놓더니 편지 비슷한 봉투뭉음을 꺼내는것이였다.

나는 돌아 섰다. 처녀의 사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왜 그런지 버드나무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버드나무밑에 서 있던 제대군관처녀처럼 모두 고상한 마음과 뜻을 지닌 훌륭한 인간들로 생각되는 심리가 작용되였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버드나무잎새들은 여전히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무심중 나는 돌아 섰다. 그 버드나무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싶은 충동에서였다. 버드나무에 눈길을 주던 나는 갑자기 몸이 굳어 지는것을 느꼈다.

그밑에 앉아 있던 처녀가 두손으로 얼굴을 짜친채 흐느끼고 있는것이 아닌가. 무릎에 놓인 가방우에 흰 종이가 펼쳐 진것이 얼핏 눈에 띄였다. 여러 겹으로 접었던 가장자리가 뚜렷한것으로 보아 방금 가방에서 꺼낸 편지 같았다.

(?) 분명 슬픔의 내용이 적혀 있는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 가슴에서 끓임없이 흘러나오던 서정의 선물은 불시에 멈춰 지고 말았다. 어떻게 그 낮 선 처녀를 위로해야 할지 알수 없어 한동안 신고를 해야 했다.

이윽고 흐느낌을 멈춘 처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몸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슬픔의 사연이 담긴 편지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버드나무줄기에 시선을 주는 처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처녀였다. 내가 찾던 그 처녀, 군복은 벗었어도 그윽한 눈매의 처녀군관을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나는 처녀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발이 못 박힌듯 움직여 지지 않았다. 입마저 얼어 붙었는지 떨어 지지 않는것이였다.

눈물 고인 공허한 눈길, 검은 구름장인양 수심이 겹겹이 쌓인 처녀의 표정이 나를 마중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그토록 매혹시켰던 그 맑고 환한 눈빛은 흔적도 찾아 볼수 없었다.

군복을 벗어서일가. 군복우에 빛나던 락장의 여팡이 사라져서일가. 너무도 상반되는 모습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군복이 사람의 모습을 저리도 변화시킨단 말인가.

나의 량심이 온몸에 넘치는 기쁨, 처녀의 위훈을 거울로 삼아 다그쳐 온 연구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말할수 없음을 느꼈다. 그것은 남의 슬픔에 찬물을 끼얹는것과 같은 행위다.

나는 처녀의 가슴에 고여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생활에서 진통을 겪을 때 의지할수 있는 벗의 필요성을 나는 충분히 체험했다. 자기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을 통채로 맡길수 있는 벗이 있다면 고민으로 소모되는 시간의 량비도 방지할수 있다. 나는 처녀의 그런 벗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의 수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직무가 바뀌었으니 군복 입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지 않겠는가.

불시에 동정심 비슷한 감정이 봄물썩처럼 자라올랐다. 가장 어려웠던 탐구의 나날, 헤여나올수 없는 고뇌의 심연에서 나를 구원해 준 은인에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지배되었다.

제대군관처녀가 나를 먼저 알아 보았다. 그는 자기 슬픔을 감추며 태연한 자세를 취하려고 애쓰는것이였다. 다년간 초소에서 단련된 군인의 눈이 달랐다.

그러나 그의 얼굴전체에서 슬픔은 의연히 반사되고 있었다.

《새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거지요?》

나는 자신의 이 질문이 못마땅스러웠다. 가슴에서 떠오르는 따뜻한 위로의 말마디들은 어디로 가고 실무적인 어구만 튀어 나오는지.

《아니예요. 보람을 느껴요. 모두들 제대군관이라고 환대해 주니 정말 눈곱이 뜨거워 질 때가 많습시다.》

처녀의 표정은 당황한 미소로 바뀌어 졌다. 그러나 침침한 슬픔의 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직무탓이 아니구나. 그럼 가방에서 꺼낸 편지는?!)

나는 화제를 돌렸다.

《동창들도 다 만났겠지요?》

어떻게 하나 처녀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는 원심이 종잡을수 없는 의문의 해답을 알고 싶은 조급한 감정을 지그시 눌렀다.

처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 졌다. 눈귀에 알릴듯말듯 물기가 맺혔다. 그것이 처녀의 그윽한 눈동자를 깊은 수심에 잠그어 놓았다.

구름장사이로 엷게 비치던 해빛이 다시 감춰진듯 그 어둠은 도저히 가서 질것 같지 않았다.

(동창들가운데 혹 돌아 오지 못한 동무가?!)

강직과도 같은 긴장감이 온몸을 압박했다.

처녀가 띠엎띠엎 말문을 열었다.

《저와 버드나무만이 남있더군요. 모두 제대배낭을 풀어 놓기 바쁘게 탄광으로, 광산으로 떠나갔답니다. 저와 한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영순인 고향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대흥단으로 탄원해갔답니다.》

그리고 기철동문…》

처녀는 또다시 슬픔이 북받쳐 지는지 혹 흐느끼는것이였다. 그러나 풋났이나 겨우 익힌 내앞에서 감정을 쏟는것이 실례임을 느끼자 손수건으로 입을 감싸며 강인히 억제하는것이였다.

《그는 안변청년발전소 물길굴전투장에서 터진 물줄기를 몸으로 막고 전사했어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요란한 우뢰소리가 터져올라 나의 정수리를 타격하는것 같은 착각에 나는 비칠거렸다.

나와 체격이 비슷했다던 제대군관처녀의 동창 기철이라는 동무의 영웅적군상이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우뚝이 떠올랐다.

버드나무야, 너는 평양의 훌륭한 아들을 다시는 맞을수 없게 되었구나. 때아닌 강바람이 강변에 몰아쳐 왔다. 버드나무도 슬픔에 흐느끼는지 세차게 설레이는것이였다. 한동안 설레임소리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목상인듯 그치지 않았다.

다시 돌아 오지 못할 전우와 수도를 떠나 수천리 먼 북변땅과 나라의 곳곳에 달려 간 동무들에 대한 그리움에서인지 처녀는 사진을 찍었다는 버드나무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좋은 동무들이였어요. 그들속엔 유명한 축구선수도 있었고 기타명수도 있었답니다. 안변에서 희생된 기철동문 대동강의 버드나무에 대한 즉흥시를 잘 읊던 시인이였어요. 영순인 꾀꼴새로 소문난 민요가수였습시다. 그는 회답편지에서 감사과중에서 시련은 겪었지만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또다시 위훈을 세우고 버드나무밑에서 만나자는 결심을 보내왔어요.》

모두 떠나갔는데 나 혼자 이 버드나무를 바라보기가…》

은은하게 울리는 처녀의 말이 뜨겁게 안겨 왔다. 동무들을 것처럼 그리워 하며 오래전의 약속을 고스란히 안고 사는 처녀를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지켜 보았다.

지금도 《일선》에서 싸우는 동무들을 《후방》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 보기만 해야 하는 자신의 량심때문에 처녀는 피로와 하고 있었다. 그의 수심은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였다. 동무들

에 대한 녀려였다.

얼마나 깨끗한 녀을 안고 있는 처녀인가. 자기보다 동지들을 위하는 마음, 처녀의 눈에 어렸던 그윽한 빛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저 마음에서 발산된 빛이라.

어느덧 나의 가슴에도 그가 뿌리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빛이 흘러 들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것 같았다.

《아이, 제가 그만...》

처음 보는데 불과한 나에게 지나친 내심을 보여 부끄러운지 처녀는 당황히머리 숙였다. 소박하고 진실한 그 모습이 나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미안해요.》

이런 인사말을 남기고 처녀는 종종히 떠나갔다.

피로움에 휩싸인 처녀의 뒤모습이 멀어져 갔다.

나는 달려 가서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처녀의 얼굴에 비친 수심이 어느정도 가서 질것 같았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 지지 않았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인사도 못한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벗으로 사귄 행운의 기회를 놓친듯 한 심정이였다.

×

나에게는 기쁨이 련일 물결쳐 왔다. 학사청호가 내려 오고 발명권이 수여되였다. 농업종합출판사는 물론 여러 출판보도부문의 기자들이 꼬리를 물고 연구소에 찾아 왔다.

나의 연구에 대한 도입을 먼저 시작한 시주변의 농장들에서도 기술적방조를 바라는 요청이 끊없이 제기되였다.

새 연구과제에 착수해야 할 나로서는 시간이 바빴다. 손에 땀이 났을 때 연구성과를 확대해야 했다. 도입에 신경을 쓰다가는 귀중한 시간을 몽청 때우기 십상이다. 도입은 연구자의 권능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정 사정을 요하는 곳에는 조수들을 파견했다.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시간의 촉박은 다음목표로 향한 마음의 조바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즐거운 감정은 여전했다.

생활의 바쁨이 곧 행복인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전날처럼 행복의 기분에 젖어 있게 되지 않았다. 피로움에 잠겨 있는 벗(그렇다. 나는 제대군관처녀를 내 마음의 벗으로 간주했다. 그것이 처녀의 그윽한 눈빛을 보았던 그때부터였는지는 알수 없다.)을 곁에 두고 홀로 행복에 잠겨 있을수는 없다. 처녀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가서 주고 마음속의 피로움을 덜어 주자.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에게 다소나마 보상하는 길이다. 그런데 막상 결심하고 나서니 난처한 문제가 생겼다. 그 처녀의 이름도 주소도 직업도 나는 모르지 않는가. 어디 가서 그를 만나랴. 그날 처녀에

게 대담하게 속을 터놓지 못한 나의 처사가 몹시 후회되였다.

나는 이때처럼 소심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나의 기질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 본적은 없다.

나의 퇴근로정은 대동강유보도로 정해 졌다. 제대군관처녀를 여섯번째 버드나무밑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라 하는 희망이 하루도 변지지 않고 나를 유보도로 이끌었다.

버드나무가지들에 매달린 잎들이 완연한 자태를 드러내고 혼풍에 춤을 추어도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텅빈 의자에서 밤을 새운 날도 있었다. 외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처녀의 얼굴에 웃음이 비낀다면 백날이 지나고 천날이 흘러도 기다리고 싶었다.

서늘한 강바람이 폐장깊이 스며 들던 어느 일요일 아침, 버드나무밑에서 처녀를 발견했을 때 나의 기쁨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함함히 흘러 내린 머리가 그대로 내비치는 빨간 수건을 쓴 처녀가 나무밑등에 하얀 회칠을 하고 있었다. 동창들과 기념사진을 남긴 여섯번째 버드나무였다.

처녀에게 달리던 나의 걸음이 자석에라도 붙은듯 움직이지 못했다. 거북등처럼 터갈라진 굵은 껍질새에 빈공간을 남길새라 꼼꼼히 회칠을 먹이는 그의 손길에 얼마나 부드러운지 나는 물끄러미 그의 작업모습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애정을 송두리채 쏟아붓는듯 그의 손은 귀여운 자식을 애무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정답게 안겨 왔다.

나의 가슴은 찌르르 젖어 들었다.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으면 저러랴. 나는 처녀의 일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가 지금 잠겨 있을 사색의 세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처녀는 허리를 펴며 이마의 땀방울을 가볍게 씻었다. 그의 눈이 강물을 향해 있었다.

떠오르는 해를 넓은 품에 안은 대동강은 금빛은빛으로 일렁인다. 장쾌한 아침이다. 평양의 아침은 대동강반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동강의 해맞이는 미술가들이 화폭에 담은 주요대상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평양의 아침, 수도의 풍경을 홀로 부감한다는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것은 처녀의 달라진 표정이였다.

아침노을처럼 붉게 상기된 처녀의 얼굴에 따뜻이 피여 난 미소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3번째로 처녀를 만난후부터 나는 한순간도 마음의 안정을 모르고 지내왔다.

처녀의 눈가에 비졌던 수심의 그늘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그늘이 가서 진것이다. 바라던것이 성사되였는데도 기쁘지 않는이 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의 몫이, 나의 노력이 가해지지 않고 끝난 창조물을 볼 때의 감정이였다. 아마도

그 마음이 나의 걸음에 호기심을 부추겨 처녀걸에 성큼성큼 다가가게 했는지 모른다.

《수고합니다.》

기다리던 처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하려던 나의 인사말은 이것이 아니었다.

이른 아침에 불쑥 나타난 나의 출현이 뜻밖인듯 처녀는 가볍게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반기는 표정이었다.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가워요.》

처녀쪽에서 오히려 나를 더 기다린듯 한 어조였다. 나는 의아해 지는 자신을 느꼈다.

《동무까지 만나고 떠나게 되었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말입니까?》

나는 다급히 되물었다. 이름할수 없는 불안한 예감이 앞섰다. 종전에 가졌던 미묘한 느낌은 형체마저 없어 졌다. 3번째 상봉의 마감에 놓쳐 버린 아쉬운 기회가 되풀이되지 않는가 하여 마음이 조여 지기도 했다.

처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맑고 환한 미소가 그윽한 눈에 어렸다. 미소가 어린 처녀의 얼굴에 아침노을 불타는 대동강이 비쳐서인지 그지없이 이름답게 보였다.

《전 매일 대충단으로 떠납니다.》

처녀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나는 흠칫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로 펼쳐지는듯 한 위구를 애써 누르며 가까스로 말을 번졌다.

《휴가를…받았습니까?》

처녀는 말없이 웃음을 띄웠다. 그 웃음이 아까보다 한결 더 빛나보였다.

처녀의 다감한 눈길이 버드나무 휘늘어진 강변을 따라 저 멀리 통라도에 락하산마냥 펼쳐진 5월1일경기장의 지붕이며 고층건물들이 조화롭게 솟아 있는 문수거리일경을 더듬고 있었다.

《왜 그런지 마음은 동무들에게만 달려 가는군요. 사실 제대배낭을 메고 고향에 올 때만 해도 전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 오는 기분에 휩싸여 동무들이 즐겁게 맞아 주리라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동무들은 없고 버드나무만이 절 맞아주었어요.》

떠나간 동무들에 대한 생각에서인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 버드나무밑에서 다졌던 약속을 지켜 고향 멀리에서 애쓰고 있을 동무들을 그려 보면 잠들수가 없었어요. 모두 얼마나 훌륭한 동무들이가요. 전 수도에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심했어요.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제일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는 영순동무를 도우러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껏 저는 제 나이가 혼기를 넘겼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때문에 주저했었어요.》

처녀의 얼굴에 방금전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전날 보았던 수심이 어둡게 비끼는 것이었다.

나의 가슴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다. 파도는 갈기를 चु켜 들고 나의 흉벽을 사정없이 쿵쿵 두드리었다. 시간이 흘러도 파도는 좀처럼 잦아 들지 않았다.

처녀의 얼굴이 다시 밝아 졌다.

《정작 고향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락아소요람기부터 정들며 살아 온 나의 평양이 더없이 소중한게 안겨 오는군요. 가서도 이 강변과 우리의 버드나무를 잊지 않았어요.》

처녀가 말한 《우리 버드나무》란 말이 다시금 현실감을 깨우쳐 주는듯 싶었다.

나는 그 동안의 고뇌를 이겨 낸듯 구김살 없는 미소를 짓는 처녀를 넋 잃고 바라보았다.

미소어린 얼굴에 그윽히 빛나는 눈이 무용수같은 처녀의 몸매와 어울려 한송이 꽃인듯 청초한 기운을 풍겼다. 이제라도 음악선율이 울리면 발구름 가볍게 땅을 울리며 청춘의 랑만을 우아하고 재치 있는 톨동에 담아 펼쳐 보일 꽃나이처녀, 연록색양복이 몸에 꼭 붙은 날씬한 처녀의 몸에서 병사시절의 모습은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담한 용단을 내렸는가. 그리고도 량심에 괴로움을 느끼는 처녀, 그 처녀의 미소어린 얼굴이 포연에 그슬린 군사지휘관의 군센 모습으로 안겨 왔다. 나는 처녀의 유연한 자세에서 이름할수 없는 억센 힘을 느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처녀는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금 버드나무에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는 혼연히 돌아 섰다.

나는 이 순간 신경이 마비된것 같았다.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채 가슴에 뿜어 넘치는 사랑과 정어린 생각만 안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다.

곱게 피여 있던 나의 꽃이 된서리를 맞아 시들어진듯, 가장 귀중히 간직했던 보물을 순간에 잃어버린듯 뼈근한 느낌이 심장을 아프게 했다.

벗으로 사귀고 싶었던 처녀는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급작스레 떠난 것이다.

×

나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드바쁜 나날을 보냈다.

첫 고지를 타고 앉으니 다음고지가 훤히 내다보였다. 어머니의 충고대로 박차를 늦추면 안되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계속 달리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자.

그러나 이상했다. 지향점은 명백한데 열정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았다. 철수가 《휴식에 관한 방정식》을 설명하며 나에게 실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별로 효력을 내지 못했다.

거리에 나설 때도 컴퓨터앞에 앉아도 때없는 고독이 나를 괴롭혔다. 언제나 궁지와 자부심이 가득하던 가슴에 공간이 생긴듯 허탈감이 왔다. 그것이 제대군관처녀가 평양을 떠난후부터 생긴

감정의 변화임을 의식할수록 번뇌는 더욱 깊어 갔다. 마음의 빗은 순간에 너무도 멀리 사라진 것이다. 가슴 저미는 아픔은 갈수록 더해 갔다.

날마다 퇴근무렵이면 나는 대동강반에 서 있는 여섯번째 버드나무밑으로 가곤 했다. 처녀가 수도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강변의 풍경을 일별하며 하염 없는 생각에 잠겼다.

홀려 가는 강물이며 흐느적이는 버드나무가지들이 처녀의 그윽한 눈빛처럼 친근하게 안겨 왔다. 그 모든 풍경은 나의 가슴에 처녀에 대한 그리움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했다. 대동강변으로 정해진 나의 퇴근로정에도 변함이 없었다.

처녀가 지성을 기울여 칠했던 버드나무밑동의 하얀 색깔도 점점 퇴색되어 갔다. 시간의 흐름은 세포의 사멸을 가져 오는지 나의 가슴에 타던 불길도 서서히 식어 갔다. 그러나 그것은 처녀에 대한 잊음이 아니었다. 격렬한 감정의 분출이 꺼진 후에 찾아 드는 리성의 정적이었다.

처녀는 떠나갔다.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친 처녀에게 조국이 아낌없이 베풀어 준 모든 혜택을 마다하고 그는 갔다. 그도 남들처럼 처녀시절의 마지막웃음을 수도의 공원과 유원지마다에 새겨 놓으며 사랑을 속삭일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 모든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처녀는 또 다른 진지로 달려 갔다.

주저 없이 돌격전으로 전사들을 이끌던 처녀지휘관의 자세 그대로. 아득한 공간너머 멀리에서 처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의 <버드나무>를 잊지 않겠어요.》

떠나면서 남긴 처녀의 말이 나의 가슴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버드나무밑에서 다진 약속을 청춘시절에 이어 한생을 바쳐 지키려고 떠나간 처녀 그리고 처녀의 동창생들, 나는 뜨거운 눈길로 처녀의 손길이 닿았던 버드나무를 보았다.

버드나무는 늘어 진 가지들을 홀려 가는 강물에 잠그고 흐느적인다. 바람소리마저 조용한 이 버드나무밑에서 나는 오래전 여기 앉아 사진을 찍었다던 청년들의 얼굴을 그려 보았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인가.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곳에 주저없이 달려 간 그들.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이 땅을 꽃 피우는 일에서 한목숨 다바칠 결사의 각오를 버드나무밑에서 약속한 청년들, 그 약속을 지켜 차례진 모든 행복을 뒤전에 놓고 떠나간 그들, 목숨 바친 기철. 처녀와 만날 때마다 나의 심장에 끝수 없는 불길이 지펴 진것은 바로 그때문이었다. 처녀와 동창생들의 고귀한 정신력이 그대로 불씨가 되어 나의 가슴에 심어 진것이다.

버드나무가지는 조용히 설레인다.

수수천년 생명의 젖줄기로 이 땅을 적시며 흘러가는 대동강을 묵묵히 지켜 온 버드나무, 《류

경》이라 불리우던 유구한 이 땅을 풍만하게 뒤덮고 강산도 인간도 새롭게 변모된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아들딸들을 너는 말없이 배워 주었느냐. 너를 품에 안고 간 젊은이들은 조국의 이르는곳마다에 버드나무처럼 뿌리를 줄기차게 내렸을것이었다. 처녀와 그의 동창생들이 지니고 간 여섯번째 버드나무도 조국땅 그 어디인가에 살아 있을것이다. 버드나무는 청년들의 위훈의 상징인양 내 눈앞에서 끝없이 설렘었다.

버드나무를 안고간 그들처럼 모든 사심을 버리고 이 땅을 풍요하게 가꾸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한몫 다 바치라고 웨치는듯 했다.

어느덧 그 버드나무도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다. 학위와 명예만을 바라고 탐구의 한길로 질주해 온 나의 생애에 대해 처음으로 냉정히 돌아쳐보았다. 미개척지에 대담하게 뛰어 든것이 무엇을 위한 용단이었던가. 나의 실력과시를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던 말인가. 바로 그때문이었다. 연구에만 급급하며 도입을 외면한것도 나라의 전반농업발전보다 학계에서 나의 권위를 더욱 중시한때문이었다.

두번째 연구목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나라 모든 협동농장들에 나의 연구성과가 직접적인 은을 내게 현실에 들어 가자. 실천자들과 연구사들이 합심하면 도입은 더 빨리 진행될것이었다.

물론 어머니가 섭섭해 할수 있을것이다. 자식의 빠른 발전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랴.

그러나 어머니는 이해할것이다.

조국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식의 명예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의미한것임을 교육자인 어머니는 이해할것이다. 언제인가 처녀가 말했던 감자파종에서 실패했다고 써보낸 영순이라는 동창생의 편지구절이 생각났다. 그렇다. 나의 첫 연구도입지를 대홍단으로 정하자. 바람 세차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그곳에 도입하자면 많은 시일이 걸릴것이다. 그러나 대홍단농사에 적은 힘이나마 바친다면 나도 마음속의 벼들과 가까와질것이다.

결심이 굳어 지자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다. 남편도 없이 살아 가는 어머니가 이 외이들과도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에 맺히었다.

아무리 강인한 교육자라고 해도 어머니의 정은 그렇지 않은것이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와 만났을 때 나는 부질없는 걱정을 앞세웠다는 생각을 했다.

《영석아, 난 기쁘다. 네가 김기현의 아들이 분명하다. 부디 내 걱정은 하지 말아.》

어머니의 말에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땀에 젖은 옷자락이 떠올랐다. 기발처럼 나뭇기며 점점 작아 지던 아버지의 그 옷자락이...



## 광맥

박원성

광산마을을 첩첩히 둘러 막은 산봉우리들에 하얀 눈이 내려 앉았다. 간밤에 내린 이해의 첫눈은 산기슭 넓은 공지에 자리 잡은 광산사무실과 부속건물들의 지붕우에도 두텁게 쌓였다. 어둡시그레한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한데 사위는 온통 눈천지여서 신비스러울만큼 흰하다.

사무실에서 한밤을 보낸 신천광산초급당비서 박근식은 밤새 쌓인 피곤을 몰아 내느라 심호흡을 하며 큰 길에 나섰다.

10t 짜리 화물자동차 두대가 자유롭게 어길수 있는 넓은 길은 산허리를 안고 이리구불 저리구불 감돌며 뻗어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산밑으로 내려 가면 그리 크지 않은 광산마을에 닿게 된다. 깊은 골안에 층층계단을 이루며 촘촘히 들어 앉은 집들의 창문들에는 벌써 불빛이 어긋거렸다.

얼마쯤 걷던 박근식은 눈을 쓸어 길을 낸것을 보자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 신 새벽에 누가 벌써 나와서 길을 쓸어 냈을가?)

눈을 친 길을 따라 가던 박근식은 길옆에 2층으로 세워진 광산정양소 앞마당에서 우뚝 멈춰섰다. 정양소앞마당은 이미 말끔히 쓸어져 있었는데 비자루며 눈가래를 든 여라문명의 너인들이 두세두세 말을 나누며 뒤마당으로 돌아 가는것이 보였다. 박근식은 그들이 마을너인들이란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 보았다. 느닷없이 박근식의 걸숨한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허허...일생에 한번 맞는 대사를 저런 훌륭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치른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문득 그의 눈앞에는 이곳 광산의 자랑인 두 청춘남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안겨 왔다. 국사경광부인 리훈복과 식료가공반의 원료분조장인 류승심이 오늘 정양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 그들 훈복이와 류승심은 다른 군에서 여기 신천광산으로 진출해 온 청년들이었다. 중학교교복차림의 애리애리한 모습으로 광산에 첫발을 들여 놓았던 그들이 그간 돌가루냄새가 폭 배인 어엿한 광산의 기동감으로 자라난것이다.

박근식은 광산합숙생들인 그들의 결혼식을 광산이 말아 해주자고 호소하였다. 그야말로 남다른 결혼식이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결혼소식은 온 광산에 퍼졌다. 박근식은 이른 새벽부터 두 청춘남녀를 위해 아낌없이 성의를 바치는 마을너인들이 고맙게 여겨 졌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바로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을 위해 우리는 지

난 몇해동안 그토록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굳세게 이겨 낸것이 아닌가.

박근식은 고개를 들어 새벽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불현듯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다.

×

몇해전 여름이였다. 광산은 례년에 없이 쏟아진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여러채의 살림집이 떠나려 가고 두개갱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빚어 졌다. 인차 피해복구에 달라붙었으나 살림집은 다 세워 주지 못했다. 박근식은 물론 지배인까지 쓰고 살던 집을 내주었고 사무실 몇방을 내어 임시살림집으로 쓰고 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자재일군들이 피해지역을 복구할 자재를 해결하려고 황급히 관리국으로 올라 갔다. 그럴즈음 관리국에서 신천광산에 계약되었던 동발용목재와 강재, 세멘트들중 일부를 다른 광산으로 돌리였다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관리국일군들의 처사에 화가 돌은 강지배인이 직접 관리국으로 올라 갔다.

강지배인은 관리국 책임부원을 만나 긴급히 자재를 받아야 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줄것을 안타깝게 호소하였다. 하지만 책임부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도리어 제련에서 사정하였

다.

《지배인동무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창고에 쌓아 놓은 자재를 안 주겠습니까. 지배인동무도 알다 싶이 관리국산하에 큰 광산만 해도 여러개가 있는데 우린 이 광산들에조차도 자재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광석품위가 매우 낮고 그마저도 점차 고갈되어 생산이 오르지 않는 신천광산에 가뜩이나 바쁜 귀한 자재를 무턱대고 들이밀수야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당되는 자재들이 종전에 비해 대폭 줄어 들었다는것을 알아 두십시오.》

강지배인은 너무나도 엄청난 소리여서 부랴부랴 관리국 책임일군을 찾아 갔으나 그에게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광산으로 내려 오고 말았다.

맥 없는 결음으로 당위원회에 들어 선 강지배인에게서 전말을 듣고난 박근식의 심중은 자못 무거워 졌다.

신천광산이 크지 않은 광산인것만은 사실이다. 광산의 규모는 보잘것 없지만 30여년이라는 력

사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광산은 번창했다. 몇해전에는 검덕광산에서 진행된 전국고속도굴진 경기에서 1등까지 하여 요란스레 소문을 냈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점차 광석품위가 낮아 지면서 정광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 광산참모부에서는 선광장능력을 배로 확장하여 저품위광석을 대량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하면 정광생산량을 어느 정도 올릴수 있었다. 계획은 세심하게 세웠으나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골치를 앓게 하는것은 광부들에게 공급되는 로동보호물자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다. 후방부지배인을 비롯한 후방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며 얼마간 해결해 왔으나 그때뿐이었다.

박근식이 허전한 걸음으로 함속에 들어 선것은 밤이 이슬해서였다.

짐을 들어 놓은 함속호실문을 열고 들어 서니 반겨 나오던 안해가 기겁을 하며 굳어 졌다.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아요?》

안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내리운채 비칠거리는 박근식의 한쪽팔을 껴안으며 다우쳐 물었다.

박근식은 아무말없이 찬물 한사발을 청하여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눈앞에는 광산설비들과 생산용자재, 로동보호물자들을 걱정없이 보장 받던 옛일이 그림계 안겨 왔다. 그때는 그야말로 일할맛이 있었다. 모든 자재들이 공급계획에 따라 척척 보장되었고 로동보호물자도 경리과창고에 그득히 쌓아 놓고 공급해 주곤 하였다.

그렇게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데 습관되다나니 일군들은 자체로 살림살이를 해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으로 나라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면서 자재도 로동보호물자도 이전처럼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박근식은 장차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광부들은 초급당비서인 나를 바라볼것이다. 내 얼굴을 보며 광산의 전망을 그려 볼것이다. 한시바삐 큰물피해를 가지고 광석을 캐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있는 광부들에게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일수야 없지 않는가. 일어 나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초급당비서인 내가 쓰러지면 광부들이 맥을 놓게 되고 우리 광산은 영영 추서지 못하게 된다. 힘을 내서 분발해야 한다. 새 광맥도 찾고 광산이 자체로 살아 나갈수 있는 기지도 이제부터 꾸려 나가야 한다. 이제 더는 나라에 손만 내밀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자재도 없고 설비도 없으며 해본 경험도 없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부족되는것은

너무도 많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방도는 오직 하나 당에 충실한 우리 광부들을 믿는 길밖에 없다. 광부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오늘의 이 곤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오직 자력갱생, 이 길만이 우리가 살길인것이다.... 박근식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느덧 날이 푸름푸름 밝아 오고 있었다.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섰다. 광산문화회관쪽에서 방송의 개시를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청신한 새벽공기를 타고 울려 왔다. 이어 울리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 이 땅위에 새날이 시작된것이다. 박근식은 마음이 거뜬해 지는것을 느끼며 현결차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별안간 그의 걸음이 떠졌다. 때 아니게 당위원 회청사앞에서 서성거리는 리훈복이가 눈에 띄었던것이다. 국사갱 광부인 그는 이웃군에 살다가 6년전에 자기 집을 떠나 여기 광산으로 자원진출해 온 청년이다.

무슨 일이 있는지 머리를 푹 숙이고 거닐던 훈복이는 박근식을 보자 반갑게 달려 왔다.

《비서동지!》

《무슨 일이 생겼소? 이 새벽에 어떻게...》

《저- 어머니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박근식은 훈복이가 어머니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줄 잘 안다.

이웃 신원군에 사는 훈복이 어머니는 원래 훈복이가 광산으로 오는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외아들이고 연약하기만 한 훈복이가 광산일을 어떻게 해내랴 하는 근심때문이었다. 그래서 훈복이가 광산에 온후 한달이 멀다 하게 편지를 보내오곤 했었다. 일이 힘들지 않느냐, 함속조건은 어떠냐, 배는 고프지 않는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등 편지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으로 짙 차 있었다.

훈복이가 광산일에 마음을 붙이고 또 자기가 직접 광산에 몇번 와서 보고 돌아 가서는 그런 편지가 드물어 졌었다.

그러던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더욱 우심해 지는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쳐 들어 나라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어디서나 생활상곤난을 겪게 되자 또다시 편지가 잦아 졌다.

이번에는 광산을 떠나 집으로 아주 오라는것이였다. 누이도 시집을 가고 나니 빈집에 혼자 있기 외롭고 적적하다는것, 이체는 자기도 늙어 오금이 전 같지 않다는것 등 여러가지 리유가 있었지만 속심은 뻔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귀한 외아들을 옆에 끼고 싶어 하는것이였다.

훈복이는 광산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기의 결심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써보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수그러 들지 않고 더 자주 편지를 띄웠다. 편지내용도 점점 도수가 높아 졌다. 전에는 늙은

어미의 생각도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애원조였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준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는 위협조였다.

그때문에 훈복이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속을 썩이고 있었다. 이마 이번에 광산이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거기까지 전해진 모양이었다.

박근식은 훈복이의 손에 들려 있는 편지봉투를 여겨 보며 물었다.

《왜 또 광산을 떠나 집으로 오라는건가?》

훈복이는 주뭉뭉 입을 열었다.

《저 그런게 아니구...어머니가 앓는답니다.》

《어머니가 앓는대구? 어떻게? 심하대요?》

훈복이는 말없이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며 편지를 내밀었다.

박근식은 편지를 받아 속지를 꺼냈다. 이번 쪽우에 그곳 훈복이네 고향마을에서도 강둑이 터져 큰물피해를 얼마간 입었는데 터진 쪽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갔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 누워 있다는 것, 광산일이 바쁘겠지만 좀 다녀 갈수 없겠는가하는 내용이었다. 전과는 달리 광산을 아주 뜨라는 말은 없었다이번 쪽우에 그곳 훈복이네 고향마을에서도 강둑이 터져 큰물피해를 얼마간 입었는데 터진 쪽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갔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 누워 있다는 것, 광산일이 바쁘겠지만 좀 다녀 갈수 없겠는가하는 내용이었다.

《음-》

박근식은 여전히 한본새로 입술만 깨물고 있는 훈복이에게 말했다.

《그럼 오늘중으로 떠나도록 하오. 어머니가 앓는다는데 빨리 가봐야지. 박근식은 여전히 한본새로 입술만 깨물고 있는 훈복이에게 말했다.

훈복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전 가지 않겠습니다.》

《안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박근식의 목소리가 좀 엄해졌다훈복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가보나마나 거짓말일겁니다. 뻔하지요. 그렇게 해서 저를 불러다 놓구는 아주 불잡아 눌러 앉히는것이겠지요. 어머니 정말 자기 생각만 하면서... 또 지금 광산이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전투를 벌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훈복이, 그러면 안되지. 어머니를 의심해서야 쓰나.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머니가 앓는다는데. 갱에랑은 내 이야기할테니 아침차로 떠나도록 하오. 빨리 가면 아직 늦지 않았소.》

박근식은 뭐라고 더 이야기하려는 훈복이를 엄한 눈길로 꼭 눌러 놓으며 그의 등을 떠밀어 주었다.

멀어져 가는 훈복이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박근식의 생각은 착잡했다.

사실 훈복이는 박근식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박근식은 지금도 훈복이가 처음으로

막장에 들어 가던 때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 신입광부들의 첫 성과를 축하해 주려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광부들과 마을녀인들이 갱입구에 늘어 섰다. 애터러인 얼굴에 웃음을 한입 물은 열둠명가량의 신입광부들이 갱박으로 나왔다. 환영곡이 울렸다. 광산기동예술평전대원들이 달려 가 그들의 목에 꽃목걸이를 안겨 주었다. 그들의 머리우에 꽃보라가 날렸다. 그들속에 트럼베트를 옆구리에 낀 훈복이의 모습이 유묘하게 눈에 띄었다.

박근식은 환영군중속에 끼여 열렬히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이때 훈복이가 대렬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박근식앞에 멈춰 섰다.

《저희들의 첫 수확물입니다. 기념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가 박근식의 손에 쥐어 주는것은 주먹만한 광석덩어리였다. 늘쌍 보아오던 광석이였지만, 주먹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느껴 졌다.

《고맙다!!》

환영모임이 끝난 뒤 사무실에 들어 선 박근식은 광석덩어리를 책상우에 놓고 오래도록 여겨보았다.

겉은 거무튀튀하고 불상이 없지만 진짜광택은 속에 감추어 진 광석... 광석은 땅속에서도 변할 줄 모른다. 박근식은 광부들의 마음이 비낀듯한 광석덩어리를 서류함에 넣었다.

박근식은 훈복이가 앞으로 훌륭한 광부로 자라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기의 맘이 습배인 창조물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법인것이다.

박근식의 예견대로 훈복이는 애리애리한 티를 다 벗고 그 어떤 갱일도 척척 맡아 해제끼는 쇠소리나는 광부로 자라났다. 박근식은 훈복이의 림름한 모습을 볼 때마다 광산의 대가 튼튼히 이어 지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흐뭇해 지곤 하였었다.

그런데 훈복이가 어머니때문에...아니, 박근식은 훈복이를 믿고 싶었다. 훈복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훈복이는 벌써 광산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훈복이는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 노력이 습배여 있는 이 광산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것이다.

박근식은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마주 앉았으나 왜서인지 생각만 번거로와 질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담배만 여러대 갈아 대며 앉아 있는데 강지배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 섰다. 성미가 칼칼하고 개방적이며 일밖에 모르는 지배인은 또 갱에서 밤을 새웠는지 안전모며 작업복에 돌가루가 하얗게 앉아 있는채로였다.

지배인은 얼굴이 컴컴해서 말없이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는 지배인을 쳐다보던 박근식

은 그에게 물었다.

《지배인동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눈을 떠야 별을 보지 않겠습니까. 나로서는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지배인은 짙은 담배연기와 함께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원 지배인동무답지 않게 무슨 한숨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광부들이 우리 일군들의 얼굴을 쳐다 본다는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배인동무가 그렇게 맥을 놓으면 온 광산의 기운이 다 빠집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 이 난관을 뚫고 나가봅시다.》

《...》

강지배인은 말없이 두툼한 입술로 담배만 빨아댔다.

방안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드리웠다.

한참후 박근식이 먼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참, 내가 혼북이를 집에 좀 보냈습니다.》

《혼북이라니요?!》

《국사경 채광소대에서 일하는...저 왜 지배인동무도 아실텐데요. 신원군에서 6년전에 우리 광산으로 진출해 온...》

《아, 그 홀어머니가 자꾸 집으로 오라고 애를 먹인다는...》

《웁습니다. 어머니가 앓는다고 편지가 왔길래.》

강지배인은 물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꼬며 내뿜었다.

《흥, 그 녀석 꽤 똑똑하다 했더니...보나마나 뻔하지요. 나라형편이 어려워 지고 너나없이 허리띠를 조이는판이라 좀 편한데를 찾아 가겠다는 거지요. 까짓, 갈 사람들은 다 가래지요. 그렇게 바람따라 돛 다는 격으로 좀 어렵다고 다른데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있어도 공연히 집이나 되지요.》

강지배인은 점점 더 열을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시 껍딱하고 생각하는대로 말하는 성미인 지배인이자 심분 그럴수 있다고 여긴 박근식은 그가 자기 심정을 실컷 터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배인의 거친 숨소리가 좀 누그러졌다고 느껴 지자 박근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물론 지금 광산형편이 어려워 지자 다른데로 넘겨다 보며 광산을 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패썹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그렇게만 볼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지금 광산이 처한 실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자신부터 심각히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광부들이 실지 생활에서 덕을 볼수 있게 해준것이 너무나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강지배인은 랑미간을 찌프리고 울대를 꿀꺽하

며 마른침을 삼켰으나 다른 말은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박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혼북이 어머니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사실 자기 귀한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아들이 혼북이를 생소한 타곳에 보내놓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 한술을 놓고도 슬하를 떠나 있는 자식생각을 하는것이 어머니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일을 잘했더라면, 광부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 주었더라면 혼북이 어머니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것이고 다른데로 넘겨다 보는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해왔습니까. 자체의 힘으로 아굴타굴할 생각은 않고 그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일해 왔단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박근식의 목소리는 저르기 갈려있었다. 지배인도 속이 뜨끔한지 애꿎은 담배만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주물러 부스르뜨린다.

《우리 광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번에 큰물피해를 입고도 자기 집을 꾸릴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나 하루빨리 광석을 캐자고 밤낮없이 애쓰는 그들이 아닙니까.》

전 정말 광부들을 볼 맛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나를 보면 초급당비서라고 먼저 인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얼 해준것이 있다고.》

《...》

《우리가 일을 좀더 잘했더라면, 광석을 보기전에 광부들의 심장부터 보고 그들을 불러 일으켰더라면 광산형편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것인데...》

박근식의 나직하면서도 여무진 목소리는 흐려졌다. 그는 무척 피로운듯 빠른 걸음새로 책상에 돌아와 앉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흥갱개발을 더욱 다그치면서 한편으로 이곳 동이골안에 살림집들을 지어 하나의 새로운 광산마을을 형성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기슭을 일구고 빈 공지들이 없이 곳곳에 종자를 뿌려 식량을 마련하고 집집승먹이도 해결할 생각입니다. 식료가공설비를 차려 놓고 우리 땅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기름을 비롯한 로동보호용식품들을 자체로 풀자고 합니다.》

강지배인은 당비서가 갑자기 실성하지 않았느냐고 문듯이 크게 뜬 두눈으로 마주 바라보다가 김빠진 소리로 반문했다.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웠다가...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편에서 광석을 캐는것만도 힘에 부친데 무슨 힘으로 엄청난 일을 벌린단 말입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나라사정이 점차 풀리면 광산형편도 달라지겠지요.》

박근식은 고개를 힘 있게 저었다.

《나라사정이 아무리 피인다고 해도 두번다시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을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는것자체가 나라의 부담을 덜어 주고 리익을 주는것이고 그런 사람이 애국자이며 그렇게 하는것이 나라의 공민된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인동무, 우리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답하게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광산을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 봅시다. 다시는 다른데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없게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자재도 로력도 결핍니다. 허나 당에 충실한 우리 광부들을 믿읍시다.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을 불러 일으키면 나날 길이 열릴겁니다.

오늘의 난관앞에 뻘디디고 일어 서면 승리자가 되지만 주저 앉으면 영원히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먼 후날 오늘을 추억할 때 당과 조국앞에, 후대들앞에 떳떳하기 위해 우리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 봅시다.》

《당비서동무.》 강지배인의 목소리는 격하게 울렸다.

《지배인동무, 제 힘껏 돕겠으니 우리 한번 내밀어 봅시다.

지배인동무 말마따나 까짓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까짓, 해봅시다, 하하.》

《하하하.》

서로 손을 으스스지게 틀어 잡은 두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안을 울리었다.

…퇴근시간전에 세포비서들을 모여 놓고 주간사업정형을 총화한 박근식은 전화로 로동부원을 찾았다. 그는 로동부원에게 건설을 할만한 청장년로력을 스무명가량 선발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로동부원은 몇시간전에 지배인에게서 로력을 최대한으로 짜볼데 대한 과업을 받고 갱들을 돌아 보았는데 기껏해서 열명정도밖에 뽑지 못했다고 하였다. 덧붙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갱장들을 납득시킬수 없다고 사정하였다.

박근식은 설명을 듣지 않고도 갱실정을 알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굳어 진 사람처럼 앉아 있던 그는 후-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박근식은 작업복을 걸치고 선광장으로 떠났다. 소대장을 하는 광중원을 만나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 오래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자의 한사람이었다. 박근식이가 광중원을 미덥게 여기는것은 그가 군인이었다는데도 있지만 모든 일을 제대군인답게 시원시원하고 결배 있게 해제끼기때문이었다.

《그렇것없이 우리 소대인원으로 돌격대를 조직해 주십시오. 뭐 토론할게 있습니까. 한교대를 뚝 떼면 될게 아닙니까.》

박근식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당비서의 고충을 알게 된 광중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소대인원은 도합 14명이다. 박근식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채 하며 따지고 들었다.

《당비서가 앞에서 발라 맞추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는것을 중원이도 모르지는 않을테지.》

《압니다. 직권에 놀리워 대답을 짜내는 사람들치고 요령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박근식은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난 언제봐야 중원의 그 배짱이 마음에 들거든. 그런데 선광장에서 한교대를 떼도 일 없겠소?》

《난 막장들에서도 그렇게 하자는겁니다. 그레야 건설을 집중적으로 벌릴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일인데 좀 힘이 들어도 뻘쳐 나설겁니다. 어서 당위원회에서 명령만 주십시오.》

《명령을 내리란 말이지…명령을…》

박근식은 까닭 모르게 목이 확 달아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명령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던것이다.

…이틀후에 초급당위원회가 열렸다.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부비서가 결정서에 반영된 1단계 광산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초급당위원회뒤끝에 건설돌격대가 조직되었다. 돌격대 대장으로는 광중원이 임명되었다. 돌격대에는 집에서 돌아온 혼복이도 망라되었다....

박근식은 인기척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비서동지.》하고 반기며 앞에서 달려오는 처녀는 뜻밖에도 류승심이었다. 그의 봉긋한 앞가슴에는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한뭉음 안겨 저 있었다. 방금 온실에서 꺾어 온듯 꽃송이들은 생생하고 그윽한 향기가 풍겼다.

《허허…이런 일 봤나. 새색시가 새벽바람을 쏘이다니...》

박근식은 축복받는 주인공들을 깨끗이 쓸어 낸 길로 걷게 하려고 첫 새벽에 나와 비질을 하던 마을녀인들의 뜨거운 지성이 다시금 감회깊게 돌이켜져 승심을 이렇게 나무람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승심이 단순히 꽃때문에 숫눈길을 걷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박근식을 놀라게 하는 말이 울리었다.

《비서동지, 우린 오늘 국사갱에 올라 가자고 합니다. 준마를 타고 달리는 광부들에게 우리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심은 금시 달려 가리라도 할듯 국사갱이 있는 저 멀리 재빛하늘을 그리움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독신자합숙쪽으로 내려갔다. 승심이는 녀자들치고 좀 별찬축이었다. 사내들처럼 대범하고 왈가닥거리기를 좋아하는 그는 교아였다. 언제인가 이웃군에 사는 승심의의 이모가 박

근식을 만나러 광산에 찾아 왔었다.

《술직히 말해서 난 승심이를 우리 집으로 아주 데려가자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내 요구를 거절하더군요. 제가 이제 광산을 떠나 어데 가서 살겠느냐고 말입니다. 한집안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는것보다 훨씬 큰사람이 되겠다는 그 애의 말을 듣고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승심이가 광산일을 헛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 지더군요.》

이모는 승심이가 생활하는 합숙방과 갯을 돌아보고 떠났었다. 승심이는 훈복이와 같이 광산으로 진출해온 처녀였다. 승심이는 그후 덕천갱이 폐갱되면서 식료가공반으로 자리를 옮기였었다. 류승심은 원로기지 분조장이 되면서부터 더 이악스럽게 일했다. 어찌나 이악스럽게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가꾸었던지 같이 일하는 분조원아주머니들이 《이악쟁이》라고 혀를 털었다.

박근식은 새땅을 넓혀나가던 때를 생각했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산기슭을 숨가쁘게 오르내리며 땅을 일굴만한곳을 찾던 박근식은 경사가 급한 골짜기로 들어섰다. 폐갱한 덕천갱으로 빠지면 광산사무실로 가는 길을 질러잡을수 있기때문이었다. 숲속의 특유한 향기를 들이키며 《덕천갱》이라고 현판을 붙인 갱입구에 이른 그는 느닷없이 떠오르는 추억을 막을길 없어 잠시 서성거렸다. 광차레루가 박히었던 두줄기의 깊숙한 흠자국은 갱입구를 벗어나 저쪽 맞은편 골짜기를 향해 길게 뻗어있었다. 그는 발밑에 깔린 새알처럼 작고 도글도글한 버럭돌들을 밟으며 스펙스적 거닐었다. 한순간 섬광같은 생각이 번쩍 트이였다.

(버럭데미우에 흙을 덮고 거름을 편다면 좋은 땅을 얻을수 있지 않겠는가.)

어느새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한가득 실리였다.

저녁이 되자 그는 질통을 지고 덕천갱이 있는 곳으로 올랐다. 그는 거름을 한짐 지고 내려와서는 버럭데미우에 쏟았다. 다음날부터는 이른새벽과 저녁에 하루 두차례씩 거름을 날랐다.

며칠간 쉬임없이 질통을 젖더니 일정한 구간에 거름이 정갱이까지 오게 깔리였다. 그는 그우에 흙을 날라다 깔았다. 그가 바라던 땅이 생겼다. 관수만 잘해 준다면 얼마든지 종자를 박고 곡식을 자래울수가 있었다.

박근식은 너무 기뻐 무릎을 철썩 때렸다. 그는 그 길로 참모부일군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듯 수군거렸다. 박근식은 그들을 현지로 데리고 나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였다.

이튿날부터 광산참모부에서는 갯별, 부서별로 경쟁을 조직하였다. 훈복이와 승심이는 기세가 충천했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버럭데미우에서 살았다. 산바람에 얼굴이 트고도 항상 웃

음을 지으며 질통을 지고 달리는 훈복이와 승심이를 보는 박근식은 저절로 떠오르는 훈복이 어머니생각에 온몸이 굳어 지었다.

박근식은 집에서 돌아온 훈복이를 만나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국사갱에 들어갔던 박근식은 뜻밖에도 착암을 하고 있는 훈복이를 보았다.

훈복이는 착암에 열중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에 골몰해서인지 돌가루를 날리며 암반을 뚫고 들어 가는 정대만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뿐 곁에 사람이 다가가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박근식은 훈복이의 그런 모습을 한참 여겨보다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언제 왔소? 훈복동무.》

와들 놀라며 돌아다 본 훈복은 그제야 박근식을 알아 보고 착암기를 끄고나서 돌가루가 하얗게 앉은 안전모를 벗어 들며 어쭙게 인사를 했다.

《그래 어머니 병세는 좀 어떻소?》

박근식은 훈복이를 데리고 안쪽구석에 가앉았다.

《그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왜 그렇게 시르죽은 인상이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훈복이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박근식은 우정 밝고 활기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히, 내 눈은 못속이오. 다른 사람한테라면 몰라도 나한테까지 감출 작정이요?》

갱벽을 한참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던 훈복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건 사실이었습시다.

하지만 어머니가 편지를 띄운건 허리병이 중해서보다도 이 기회에 저를 아주 거기에 눌러 앉히려 했던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돌밖에 없는 광산에 어떻게 있겠느냐고 저의 마음을 든장 질하다못해 나중엔 저의 마음을 돌려 세워 보려고 글썽 처녀선까지 보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누이도 시집을 가고 자기 혼자뿐인데 늙은 어머니생각도 해야 할게 아닌가고 막 애원하다싶이...》

훈복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비서동지, 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사실 어머니가 걱정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구 제가 어떻게 광산을 뜯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자구 누구나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고 있는 때 저하나 편하자구 고난을 피해 어머니곁을 찾아 가셔야 제가 어떻게 당의 품에서 자라난 새 세대 청년이겠습니까.

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전 그런 도피자,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식은 뭐라 할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훈복이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미덥게 여겨졌다.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기 어려운 광산으로 달려와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고자 애쓰고 모태기는 청년...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고 광부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의 이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이 가슴 그들먹이 차올랐다.

《훈복이, 어머니를 너무 노엽게 생각지 말라구. 이제 어머니가 훈복이를 이해할 때가 꼭 있을게요.》

천천히 고개를 드는 훈복의 눈가에서는 맑은것이 고여 반짝거렸다.

《비서동지, 사실 우리 어머니 좋은 어머니입니다. 한뼘 농사밖에 모르는 부지런하구 고지식하구...》

《아무렴, 좋은 어머니구말구. 훈복이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훈복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라두 힘을 내서 광산을 본때있게 꾸려보자구. 어머니가 더는 아들걱정을 하시지 않게 말이요.》

《비서동지!》

훈복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잠시후 갱안에서는 굳은 암벽을 뚫고 나가는 어무진 착암기소리가 기운차게 울렸다...

박근식은 옷주머니에서 푸른 수첩을 꺼내들었다.

박근식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훈복이의 어머니이름을 오래도록 여겨보았다. 박근식은 광산의 면모가 달라지면서부터 훈복이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 오고싶은 생각이 간절해 졌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훈복이 어머니를 찾아가 봐야겠군.)

박근식은 속으로 이런 결심을 다지었다.

어느날 한낮이 지나서였다. 박근식은 새로 개발한 신흥갱에서 당분간 굴진을 중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갔다. 신흥갱은 암반이 시원치 않아서 굴천정이 자주 무너져내리곤 하였다. 며칠전에도 그랬다. 한동안 말썽없이 잘 진척되는가 했더니 웬걸, 일이 또 터진 모양이다. 박근식은 신흥갱으로 달려가 갱휴계실부터 들었다. 신흥갱에 들어와 살다싶이하는 지배인이 컴컴해진 얼굴로 그를 맞이하였다. 지배인은 갱장과 마주 앉아 군령이 간 굴천정을 헐어버린다음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고 있었다. 박근식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동발문제로 압축되었다. 동발만 해결해주면 당장 광석을 캐겠노라고 갱장은 안타까이 호소하였다. 박근식은 살림집건설용으로 받아온 통나무를 먼저 동발용으로 쓰게 하였다.

다시 사무실에 내려온 그는 일전에 살림집건설용통나무를 받아오라고 파업을 주었던 자재과의 장부원을 불렀다. 자재과장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장부원은 군산림경영소에

눌러 앉아 끝장을 볼 때까지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것이다. 박근식은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마음을 좀 놓았다.

장부원이 마을 뒤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박근식이가 도당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했다가 돌아왔을 때였다.

박근식은 지체없이 그를 찾으려고 산기슭 오솔길에 들어섰다. 그는 허둥거리며 산중턱에 올랐다.

톱과 도끼를 든 사람들이 서너사람씩 짝을 지어 나무를 찍으려고 서두르는 참이었다.

《나무를 찍지 마시오, 동무들!》

박근식은 큰소리로 웨쳤다. 여기저기 흩어져 가던 사람들이 일시에 숨을 죽이고 웬일인가 해서 박근식을 바라보았다. 장부원이 숨을 헉헉 몰아쉬며 다가왔다.

《사람들을 당장 철수시키시오. 이 나무들에 손을 댈수 없다는걸 모르오.》

근엄하게 울리는 박근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쇠끌처럼 장부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눈이 등그래진 장부원은 머리를 쳐들었다.

《산림경영소에서 승인을 받았습시다.》

박근식의 눈가에 서늘러운 빛이 어렸다.

《승인... 사람이 얇은 수를 쓰는데 버릇되면 자기를 파멸하는 결과밖에 차례질게 없소.》

박근식은 장부원이 군산림경영소에 물고기를 한가마니 실어다 주면서 광산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찍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부터 분격을 금치 못했던것이다. 그는 격노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산을 벗기고 땅을 두져 농사를 지으면 험하다는것을 몰라서 버럭산을 선택한줄 아오. 우린 버럭데미우에 종자를 박고 곡식을 자래우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알면서도 질통을 지고 흙을 나른거요. 왜서인가. 바로 여기가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 내 조국땅의 한 부분이기때문이요. 오늘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래일을 위해서말이요.》

박근식은 그달음으로 군산림경영소에 찾아가 나무 찍을 곳을 양덕군 은하리로 받아왔다. 그곳은 여기서 천오백리 떨어 진곳에 있었다. 며칠간 출장준비를 갖춘 그는 열명가량되는 상차공들을 두대의 대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났다.

흔들거리는 운전칸의자에 앉아가던 그는 점점 피곤이 몰려와 스프르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그가 눈을 뜨니 자동차는 평양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창유리 가까이 가져갔다. 저 멀리 구름을 뚫고 솟은 주체사상탑의 웅장한 자태가 바라보였다. 준비하게 늘어선 고층살림집들, 록음질은 화려한 거리...

...30여년전에 군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박근식은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던 당일군들의 회의에 참가하였

었다. 그날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은 그는 평양을 떠났으나 언제나 그날의 감격과 기쁨속에서 살아왔었다.

박근식은 밤이 깊어서야 은하리 뒤산에 이르렀다. 중년의 키가 큰 사람이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면서 박근식의 일행을 맞아주었다. 책임자의 말을 들으니 통나무를 자동차길까지 끌어내오자면 적어도 보름이 걸린다고 하였다. 프락포르, 볼도젤들이 만가동을 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박근식은 룬전기재들이 동원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통나무들을 끌어 내릴 수 있게 바줄들을 준비시키고 이른아침에 채벌장으로 올라 갔다. 채벌장에서 도로에까지 내려 가자면 자그마한 등성을 넘어야 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리용하여 통나무를 나르기로 결심하였다. 산세가 험한데다가 물살이 세고 또 바닥이 미끌거리어 거기에 통나무를 메우기만 하면 쏜살같이 내리쫓히곤 하였다. 방향없이 내리쫓리는 통나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사람이 통나무끝머리에 바줄을 매고 뒤에서 당기며 조절해 주었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상처공들은 물길에 한줄로 길게 늘어 서서 내려 오고 있었다. 박근식이 내려 오는 뒤에는 젊은 광부가 따랐다. 얼마쯤 내려가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려간다!》 하는 다급한 소리가 울렸다. 통나무가 와당탕거리며 무섭게 내려 오고 있었다. 바줄이 끊어 진것이다.

박근식이 있는 아래쪽으로는 다른 광부가 통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아- 저 사람이... 사람이 상할수 있다. 그 생각은 짧은 순간에 떠올랐다. 박근식은 자기가 잡고 가는 통나무를 가로 눕혀 놓으며 통나무의 한쪽끝머리를 짝 틀어 쥐었다. 쿵하고 맞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둔중한것이 그의 허리를 쳤다. 별안간 눈앞에 하얗고 빨간 별찌들이 무수히 나타나 어지럽게 뒹굴었다. 잠시후에는 새까매지며 미궁속으로 끌려 들어 가는듯 나른해 졌다. 그는 그 다음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가 눈을 뜬 곳은 채벌공들의 침실이였다. 그가 자리에 누워 있는 며칠사이에 채벌장책임자는 채벌공들을 총 동원시켜 두차분의 통나무를 산관에서 끌어 내려 주었다. 박근식은 채벌공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떠났다.

그가 광산마을에 돌아와 자리에 눕기도 전에 광산일꾼들이 저저마다 병문안을 하며 걱정해 주었다. 다음날부터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문밖에서 돌려 보내게 하였다. 병문안을 올 시간이면 살림집 벽체를 한돌기라도 더 쌓아 달라고 하였다. 방안은 조용해 졌다. 그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정적이 싫었다. 건설장소식이 듣고 싶었다. 박근식의 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지배인이 선로공을 데리고 와서 전화를 놓게 하였다. 전화는 광산교환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날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박근식은 팔꿈치로 상반신을 의지하면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였다.

《비서동지, 오늘 점심전에 건설장에서 광산일꾼들의 독창경연이 있습니다.》

《그래, 안다.》

그 소식은 부비서가 이틀전에 전해주었다.

《모두들 비서동지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됐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모릅니다. 진화를 구내방송에 연결시켜서라도 비서동지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고 막 야단입니다. 어떻게 할가요?》

박근식의 눈앞에는 두볼을 선홍색으로 물들이며 안타까이 대답을 기다리는 교환수처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했다. 그는 힘 주어 말했다.

《하구말구... 아니, 내가 직접 나가겠소.》

《아니, 그건 안됩니다!》

교환수는 애원하달십이 만류하였으나 박근식은 이미 송수화기를 놓은 뒤였다. 진료소장을 부른 그는 진정제를 맞고 동통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는 진료소장의 부축을 받으며 건설장으로 향했다. 건설장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박근식은 될수록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게 모임장소를 예돌아 살림집 뒤쪽으로 갔다. 벽체는 2층까지 쌓아 저 있었다.

사람들의 뒤에 서서 노래소리를 듣고있던 박근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뜻밖에 당비서를 맞이한 사람들은 앓음새들을 고치며 숨을 죽였다. 부비서에게서 마이크를 넘겨 받고 노래를 부른 그는 열기에 넘쳐 말했다.

《동무들! 나는 먼저 광산의 래일을 위해 아글타글 애 쓰고 있는 동무들에게 조금당비서로서, 인간으로서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재도 부족하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무들!...》

박근식은 갑자기 목이 짙 메여올랐다. 그는 격해 지는 격정을 가파스로 누르며 머리를 높이 쳐 들었다.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전선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집 한동 짓지 못하고 제 땅도 다루지 못하여 장군님께 근심을 끼쳐 드린다면 그게 조선의 광부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할바에야 우리 광부들이 있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한 광부가 벌떡 일어섰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내 고향, 내 광산을 우리 손으로 꾸려 갑시다.》

삽시에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 올랐다. 건설장은 쇠물가마처럼 끓어올랐다. 이 순간 박근식의 가슴은 크나큰 걱정속에 휩싸였다. 당과 숨결을 같이하고 당의 걸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



니고서야 그 누가 곤난을 웃으며 헤쳐 가랴. 눈이 와야 소나무의 억세임이 뚜렷해지듯이 겹쌓이는 시련은 평범하던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광부들과 함께라면 하늘이 아무리 높다한들 못오를리 없고 땅속이 아무리 깊다 한들 헤쳐나가지 못할리 없었다. 그는 땅속의 광맥은 끝이 있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을 떠받드는 광부들의 심장속 《광맥》은 절대로 끊어질수 없는 영원한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박근식은 건설장에서 새날을 맞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탓에 두눈은 모래알이 들어 간듯 짙갈해 졌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간밤에 세운 벽체를 둘러 보았다. 블록크의 네귀가 가뿐하게 맞물려 있는게 어디를 둘러 보나 구석구석 성의가 내배였다. 이제 한층만 더 올리고 지붕을 얹으면 새집들이를 할수가 있었다. 아무리 늦잡아도 열흘안으로 끝을 볼것 같았다. 지금 하고 있는 살림집만 끝내면 광산적으로 살림집 문제는 100% 해결되는셈이다. 이제부터는 결혼한 당날로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마련해줄수가 있었다.

박근식은 사뭇 시름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광산에 걸렸던 문제들이 한가지한가지씩 해결되니 일하기도 재미 있고 열의도 높아졌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이제 축산반과 남새온실을 꾸릴 계획이다. 이제는 당원들과 광부들이 당조직의 결정을 관철하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차례진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남달리 고생도 했지만 일한만큼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결코 허세를 부리거나 남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광산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자력갱생본보기광산으로 꾸리자면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계단을 내려서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누군가가 계단을 따라 올라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강구고 들으니 계단을 두어개씩 성큼성큼 넘겨 짙는것 같았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박근식은 계단아래를 기웃거렸다. 맞받아 올라 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훈복이와 승심이였다.

《비서동지!》

박근식을 띠여 본 훈복이와 승심이가 반갑게 마주 뛰어 올라 왔다.

《야, 비서동지를 찾느라 온 광산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훈복이는 왜서인지 흥분해서 숨이 차 헉헉하며 뒤말을 잇지 못했다.

《허, 이거 숨넘어가겠소. 차근차근 천천히 말하랴구.》

훈복은 그제서야 마음을 진정 한듯 빙그레 웃고

나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여기로 아주 오시겠습니다. 이제 금년농사나 총화하고는 여기 광산으로 아주 오시겠다는겁니다.》

《그래, 그것 참 기쁜 소식이로구만.》

박근식은 웃음이 함뿍 실린 훈복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문득 훈복이가 뒤발자국 뒤로 물러 서더니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하며 굽석 인사를 한다.

《갑자기 인사는 또 뭐요?》

훈복이는 젖어 드는 눈곱을 주먹으로 닦으며 울먹울먹한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번에 어머니 편지를 받고서야 비서동지가 저의 어머니를 몇번씩이나 찾아 갔댔다는걸 알았습니다. 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박근식은 커다란 주먹으로 훈복의 가슴을 가볍게 툭 쳤다.

《원 사람두, 고맙긴... 참 진짜인사는 내 후에 따로 받겠소.》

《?...》

훈복이와 승심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무네가 큰상을 받는 날 내 그때 인사를 받겠소. 응, 언제 국수를 먹는다?》

훈복은 쑥스러운지 승심을 힐끗 돌아다보았다. 승심이기도 부끄러워 난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다스곳이 숙이였다.

훈복이는 씩 웃고나서 기운차게 대답했다.

《인차 국수를 먹겠습니다. 올해안으로 말입니다.》

《아니, 이 동무가?》

승심이가 훈복이의 어깨를 종주먹을 쥐고 쿵쿵 두드리다가 밀으로 달려내려 간다. 그 모습을 보며 터뜨리는 두사람의 밝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쳐갔다...

해빛이 눈부시게 비쳤다. 박근식은 방금전에 두 청춘남녀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 교환수처녀가 달려오더니 전보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전보용지에 적힌 글을 보니 훈복이 어머니에게서 온것이다. 인차 광산으로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박근식은 갑자기 찌릿하게 달아오르는 눈길로 다시 몇자 안되는 글을 오래도록 여겨 보았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실천가형의 당일군답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의 소행을 보고 받으시고 감사와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주체87(1998)년 1월에는 그를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토론하도록 하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심장으로 웨친 그날의 맹세를 안고 오늘도 제2의 천리마대고조으로 광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 끼로 장가든 총각

리 진

옛날 어느 고을에 삼성동이라고 불리우는 아담하고 포실한 동네가 있었다.

이 마을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김, 박, 주가성을 가진 세 친구가 울울창창한 수림만 무성하고 인적 없던 이 골짜기에 첫 말뚝을 박은 때로부터 마을의 력사가 시작되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피이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 마을의 첫 조상들이 자기들의 우정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의도에서 대대손손 이 세가지 성씨사이에만 혼인을 정하며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스스로 마을에서 떠나도록 된것이다. 놀랍게도 이 말 없는 규범은 오랜 세월 한번도 어겨 저 본적이 없이 지켜져 왔으며 그 까닭으로 이 동네사람들은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인척관계로 얹혀 저 있었다.

이 마을에 동갑나이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박억만이라는 한 친구는 이름처럼 두눈이 화등잔마냥 부리부리하고 관골이 툭 불거진데다 키도 구척이요 성격 또한 호방대범하여 사내다운 대장부였다. 반면에 주찬수라는 한 친구는 작달막한 키에 몸집이 체소한것은 물론 성격도 꼼꼼세세하고 내성적이어서 남자다운 맛은 매우 적었다.

성격으로 보아 물과 불처럼 둘이 어울릴것 같지 않았으나 그들의 우정은 육친이상으로 남 달랐다. 난 해는 같지만 찬수의 생일이 몇달 앞서므로 그가 응당 형대접을 받아야겠으나 실상은 반대였다. 억만이는 늘 손아래동생처럼 어디 가든지 찬수를 달고 다녔고 찬수도 이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 그가 하자는데로 하는데서 더없는 만족을 느끼는것이였다. 그럴만한 까닭으로는 그들이 열세살 나던 해 어느날 산에 나무하러 갔던 두 친구가 범을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중 천길벼랑에서 굴러 떨어져 다 죽게 된 그를 업고 눈길 30리를 밤새 걸어 온 억만이의 뜨거운 우정을 찬수가 귀중히 여긴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여하튼 둘은 그림자처럼 묻어 다니면서 한시도 떨어 질줄 몰랐다.

어느덧 그들은 열여덟 한다하는 장정으로 자랐다. 한마을 처녀들에게 장가도 한날 한시에 든 그들은 어느 날 앞내 벼들방천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서 미구에 태여날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로 꽃을 피웠다.

《여보게 찬수! 우리도 이젠 아버지가 된단말이지. 허, 어떤 놈이 빠져져 나올려는지…허허허.》

《사람도, 사내건 계집애건 둘중의 하나일테지 그 무슨 걱정인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줄 아나. 배꼽 떨어져서부터 함께 자란 우리들이 이젠 장가두 들구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나도 오래 생각해 보고 하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이 둘다 사내새끼면 우리처럼 영원히 친구로 삼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서로 엇바꾸어 태어나면 우리 사돈을 맺고 돌을 짝 붙여 주는것이 좋을것 같네.》

《허! 그거 참 그럴듯 해. 나도 반대 없네.》

이리하여 미구에 태여날 두 아이는 《지복위혼》 즉 배속에서부터 약혼하고 《부부》가 되였다. 부모의 뜻인지 하늘의 의사인지 억만이네는 떡돌같은 아들을, 찬수네는 꽃같은 딸을 낳았다.

두 친구는 자기들의 기대대로 된것이 무등 기뻐했다. 억만이의 아들은 돌석이라 이름 짓고 찬수의 딸은 음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직 포대기에 싸여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두집 어른들은 서로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하며 네 자식, 내 자식 간격없이 귀애하고 사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돌석이의 네똥 생일을 잘 차려주겠다고 사냥을 떠났던 억만이가 거의 죽게 되어 남에게 업히여 왔다. 새끼 세마리를 거느린 엄지노루를 만난 억만이가 노루무리를 쫓아 정신없이 산으로 들어 갔다가 그만 덤불속에 웅크리고 있던 곰을 툽겨 놓았던것이다. 배불리 먹고 한잠 자던 곰을 놀래웠으니 무사할리 만무하였다.

부아통이 터진 곰이 무작정 달려 들어 떡메 같은 앞발로 한번 후려 치자 억대우 같은 억만이도 불의지변이라 어쩔새없이 뿌리위 났다. 곰한테 할퀴여 얼굴가죽이 홀랑 벗겨져 피투성이가 된것을 같이 갔던 동리사람들이 업이 왔을 때는 이미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다. 몇시간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억만이는 자기가 이젠 마지막이라는것을 느끼고 찬수를 찾았다.

《자네만 믿고 마음을 놓고 가겠네. 옛날에 한 약속대로 꼭 내 아들을 사위로 삼고 마지막까지 돌봐주게.》

《원 사람도, 마지막길을 가면서 고작 부탁이

그거야. 내가 어찌 그 약속을 어길텐가. 억만이가 사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영. 억만아!》

찬수는 숨져가는 친구앞에서 너무나 억이 막혀 마구 몸부림쳤다. 억만이는 한시름 놓은듯 조용히 눈을 감고 영영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돌석이의 어머니는 하늘같이 믿고 살던 억만이를 줄지에 잃고나자 눈앞이 캄캄했다. 돌석이는 네살잡이 철부지인지라 전혀 기대할바가 못되는데 남정 없는 녀인의 몸으로 한가정을 살린다는 것이 조련치 않았다. 억대우 같은 남편이 집일, 밭일, 힘든 일은 도맡아 했으므로 집안에 틀어앉아 동자질이나 하고 기껏해야 바느질이나 길쌈날이가 고작이던 돌석이 어머니의 손은 거부기등판같이 거칠어 지고 말았다. 손이 모지라지도록 애를 써도 가세는 점점 기울어 저 가기만 하였다. 억대우 같은 남편이 집일, 밭일, 힘든 일은 도맡아 했으므로 집안에 틀어앉아 동자질이나 하고 기껏해야 바느질이나 길쌈날이가 고작이던 돌석이 어머니의 손은 거부기등판같이 거칠어 지고 말았다. 그속에서도 그는 돌석을 서당공부라도 시켰으며 영민한 돌석이는 그대로 배워 주는 것은 다 줄줄 외워 댔다. 돌석이가 자라는것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기쁨의 전부였다.

억만이가 죽은 후 몇해동안은 찬수가 발같이철에는 제 집 밭보다 돌석이네 밭을 먼저 갈아 주고 가을걷이도 먼저 해다 탈곡까지 말끔히 해주는가하면 이따금 낱알섬도 저오고 색 다른 음식도 들고 오곤 하였다. 그러다가 자기네 살림이 차차 늘어 가고 부유해 지자 점차 밭길이 떠지는 것이었다. 찬수는 원래 주씨문중의 종가집 맏이로서 조상제사도 맡아 보는 관계로 제전(제사비용을 위해 부치는 땅)도 가장 기름진 땅으로 사나홀같이나 있었다. 그런 연고로 추수도 몇백석 좋이 되었고 집도 9칸짜리 기와집을 쓰고 살면서 제법 동네어른노릇을 하였다. 개구리 울창이때 생각 못한다고 제가 잘 살게 되니 옛 친구와의 의리도 점점 희미하게 여겼으며 교만한 마음마저도 모르게 싹텔다.

찬수는 음전이의 앞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점점 자라면서 심산에 남몰래 피어 나는 한떨기 백도라지인양 청초하게 피여가는 딸의 모습을 대할 때면 돌석이와 자꾸 대비해 보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찬수에게는 서발막대를 휘둘러도 어디 하나 걸칠것없이 찌지게 가난한 돌석이한테 손끝에 올려 놓고 금이야 옥이야 온갖 정성을 기울여 키운 딸을 준다는 것이 아무래도 억울한 일로 생각되었다.

물론 그들사이가 《지복위혼》의 관계라 하지만 억만이가 죽어 흩이 된 오늘에 와서까지 어느 고망년적 약속에 매달려 딸의 일생을 불행하게 한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돌석이의 어머니는 그런 내색을 전혀 몰랐다. 가을밤 달빛아래 한껏 이슬 머금은 들국화인양 아름답게만 번져 가는 음전이를 볼 때마다 온갖 시름이 사라지고 고생살이도 락으로 여겼다.

돌석이나 음전이도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배속에서부터 부부의 운명을 타고 난 사이라는것을 부모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터라서 만나면 은근한 정을 나누곤 하면서 빨리 혼기가 차기만 손 꼽아 기다렸다.

세월은 흘러 그들의 나이가 열여섯살이 되었다. 돌석이 어머니는 그해 농사를 어떻게 하나 착실하게 지어 가을에는 아들의 혼례를 치르려 봄부터 악을 먹고 농사일을 걸짜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 돌석이 어머니는 가슴철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찬수가 음전이의 신랑감을 타고장에서 구하려고 은밀히 매과를 놓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이었던것이다. 돌석이 어머니는 그 소문이 제발 돌석이의 귀에 들어 가지 말았으면 간절히 빌었다. 허나 옛날부터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아무리 감추려 했어도 쉬쉬하는 그 소문이 돌석이의 귀에까지 들려 왔다. 돌석이는 하늘이 무너진듯, 땅이 꺼진듯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아버지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해 오면서도 음전이만 생각하면 새힘이 솟아나곤 하면서 억척같이 곤난을 맞받아 나갔던 돌석이였다. 음전이와 오בות한 가정을 꾸린 다음 아들딸 많이 낳고 아기자기 살아 갈 푸른 꿈은 한낱의 개꿈마냥 공허한것이었던가? 돌석이는 이제껏 아버지의 옛 친구이고 장래 가지 아버지로 모든것을 믿고 의탁해 오던 찬수가 불시에 남이 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온 동리에 이젠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박씨문중은 물론이고 돌석이네와 조금이라도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분격을 터트리며 술렁술렁했다.

《아니 찬수 그 사람이 실성을 한게 아닌가? 음전이와 약혼한 돌석을 제쳐 놓은것은 말할것도 없고 여태껏 지켜 오던 전통을 깨뜨리고 타성에게 혼처를 구한다는것이 제 정신 가진 사람의 행동인가?》

《사람이 달라 졌어. 어릴 때 죽게 된것을 구해준 억만이와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럴 마음을 먹는단 말인가. 사람에게 의리가 없다면

개, 돼지나 다름바가 무엇이겠나. 그 잘난 재산 좀 있다고 재세깨나 하는 모양인데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십년 긴 세도가 없다고 하늘도 무심치 않을걸세.》

사람들이 뒤에서 이리쿵저리쿵 뒤소리를 하는 줄을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찬수는 그럴수록 더 고집스레 혼처감구득에 열을 올리였다. 박가들도 중과부적으로 그의 재산과 세도에 놀려 더 어찌지 못하고 뒤에서만 쉬쉬할뿐이었다.

음전이는 또 그대로 이미전부터 자기는 돌석의 안해로 치부해 왔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마음이 변하여 다른 곳에서 혼처를 구한다니 아버지에 대한 야속한 생각만 앞설뿐 어쩔줄 몰라 할 따름이었다.

돌석이네 집은 줄지에 초상집모양이 되었다. 모자간이 다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다. 돌석이 어머니는 이미 저승에 간 애꿎은 령감을 원망하며 일장 설화를 늘어 놓았다.

《아! 아! 절통하워다. 령감은 왜 먼저 가서 이런 욕을 내게 보이는거요. 평생토록 변할것 같지 않던 주가가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을줄 그 어찌 알았겠소. 땅속에서 차고 일어 나 왜 저 주가의 귀썽이라도 후려 갈지 못하오.》

너무도 억울하여 가슴만 쥐어 뜯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돌석이는 대범하게 위로했다.

《어머니, 그만 고정하사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고 영 그리 절벽강산이겠소 이까?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상심 마사이다.》

한편 찬수네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사준비를 하느라 북적북적하였다. 며칠동안 꿈꿨던 갑자르며 잠을 설치던 돌석이가 찬수네 집에서 며칠후에 큰 제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튿날에는 동리에들 몇 데리고 산속을 헤매더니 새매 한마리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돌아 왔다. 그날 그는 방안에 들어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만드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가만히 엿보느라니 사각형으로 된 등초롱을 만드는데 어디에 쓸거냐고 물어도 그저 필요해서 만든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내막은 말하지 않았다.

드디어 찬수네 집에서 제사 지내는 날이 다가왔다. 날이 어둑어둑해 지자 돌석이는 새매와 등초롱에 자그마한 항아리까지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찬수네 집앞에는 오래 묵은 큰 느티나무 한그루가 서 있었다. 돌석이는 사위를 둘러보다가 인적이 뜸해 지자 재빨리 나무우로 기여 올라 가더니 무성한 가지새에 몸을 감추고 마당

을 굽어 보았다. 너렁청한 대청아래 뜨락에는 수십매의 명석을 쭉 깔아 놓고 제사 보러 온 술한 일가붙이들이 왔다갔다 하며 제상을 차리느라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데 한쪽에선 코흘리개들이 저들끼리 술래잡이를 하느라 재잘거리고 있었다. 한참만에 제상을 다 차렸는데 커다란 제상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충충 고여 있어 풍성하기 그지없었다. 찬수는 종가집 장손답게 배감투를 근엄하게 쓰고 자못 거드름스럽게 제사상을 둘러 보며 만족한 웃음을 한껏 머금고 서 있었다.

《어디 오늘저녁에 혼구멍이 쑥 빠져 봐라.》이 모든것을 나무우에서 내려다 보며 돌석이는 저도 모르게 버르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드디어 제사의식이 시작되었다.

《유세차 학생 아무개...》 찬수의 제문 읽는 소리가 제법 구성지게 고요한 밤공기를 밀어 내며 울리는 가운데 일가붙이들은 엄숙한 자세로 읊을 하고 있었다. 제문읽기가 절정을 이루는가 싶은데 문득 하늘중천에서 사람의 말소리 같지 않은 웅글은 호령소리가 울려 오는 것이었다.

《여봐라, 게 주찬수가 있느냐?》 깜짝 놀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어리둥절해 있다가 일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빛 한점 없이 칠칠한 밤하늘에 한점의 불꽃이 꺾뼉 꺾뼉 빛나고 있는데서 나는 소리가 툴림 없었다. 순식간에 혼이 빠진 사람들은 모두 찬수를 쳐다보았다. 무언중 그제야 깨달은듯 정신을 차린 찬수는 어망결에 넘죽 땅에 엎드렸다.

《예! 예! 소인 주찬수 여기 있소이다.》

《네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온지. 소인은 여태까지 청렴결백하게 살아 왔사옵기에 하늘님께 죄될 일이 없삽는줄 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소인은 통...》

《아니 뭐! 죄될 일을 한것이 없다고... 예끼, 이 고헌놈, 이놈, 그럼 한가지 물어 보자. 병신년 7월 을축일에 저 앞집 죽은 박억만이와 사돈을 맺은 일은 생각나느냐?》

《예예! 아마 그런 일이 있긴 있었던것 같사옵니다.》

《있었던것 간단 말이지. 이 개돼지만도 못한 천하에 무도한 놈, 그래 그때 사돈을 맺을 때 한 약속을 지키기는 하였느냐? 영! 억만이가 죽고 가세령락하여 내인이 아들 하나 바라고 삼아 오는터에 옛 친구의 의리는 둘째치고 파혼도 하지 않고 건너마을 정침치네 아들과 혼사말을 낸적이 정녕 없단 말이나?》

《...》

찬수는 비오듯 흐르는 땀을 흠칠남도 못내고 그저 땅바닥에 엎드린채 벌벌 떨뿐이었다. (하늘님이 어떻게 그 일을 그렇듯 자상히 알고 나를 문초하는걸가.)

《이 천하에 의리도 도리도 없는 불상놈 같으니라구. 그래 만복지본인 인륜대사를 그르친것이 죄가 아니면 어느것이 죄가 된단 말이나? 이놈! 천륜을 어기고 료리를 더럽히고도 이 하늘아래 뻗뻗이 머리를 들구 살상 싶었더냐? 이놈.》

하늘남도 정녕 분노를 참을수 없었던지 드넓은 하늘중천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서 호되게 꾸짖는것이였다. 당장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콕 떨어질것만 같은 형국이였다.

《아! 하늘님! 본시 소인이 우매하고 무식하다나니 하늘은 높아도 낮은 말을 듣는다는 세상리치를 잠시나마 망각하고 천륜을 어겼사오나 우물안의 개구리라 모르고 지은 죄오니 부디 한번 용서해주신다면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네가 진정 뉘우치는것 같기에 내 오늘은 이쯤해 두겠다. 네 정상을 가공하게 생각하여 사흘간 말미를 주겠는데 만일 사흘안으로 그 혼사를 결판 짓지 않으면 하늘을 기망한 죄로 너희네 온혈족을 멸하리로다. 그리 알았느냐?》

《예! 예! 명심하여 받들겠나이다.》 찬수의 대답을 들은 《하늘님》은 아득한 밤하늘로 한점의 불꽃을 꺾으며 사라졌다.

얼흔이 빠져 부복한채 찬수가 《하늘님》에게서 치죄당하는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던 일가친척들은 그제서야 웅성웅성하더니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댔다.

《어허! 거참 변괴긴 변괴로다. 이런 해괴망측한일이 또 어디 있겠수. 가문이 망할 징조야! 망할 징조...》

《조상대대로 내려 오던 전통을 깨뜨리겠다니 하늘님인들 왜 노하시지 않겠소. 어허! 불길한고로...》

《여보게 찬수! 정신을 단단히 차리게. 자네때문에 가문이 멸하면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텐가?》

《우리는 빨리 가세. 여기서 어물거리다가는 또 무슨 생벼락을 맞을지 뉘 알겠나.》

삼시간에 마당은 뿔뿔그레 해지고 조상제사는 유야무야해 지고 말았다. 녀을 잃은 찬수는 장밤공공 앓음소리를 내며 한잠도 못자더니 날 밝기가 바쁘게 돌석이네 집에 찾아 왔다.

돌석이는 간밤에 나무에 올라가 등초롱에 불을 달아 새매의 발목에 든든히 묶어놓은 후 제사가

한창 고조되였을 때 항아리에 입을 대고 한바탕 찬수를 닥달질했던것이다. 새매발목에 매여 놓은 끈을 말하는 도중에 늦잡았다 당겼다 하면서 등초롱을 찬 매를 날리면서 진짜 분노한 하늘님처럼 보이게 했던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찬수가 자기 집에 올것도 이미 예견했던차라 모르는척 옷방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는척 하고 있었다.

《사돈님, 그간 어떻게 지내시우.》

새벽같이 뛰여 든 찬수앞에서 돌석이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아니 음전이 아버지가 이 새벽에 웬일이시우.》

《내가 급히 온건 다름아니라 그간 내가 내일만 내 일이라고 자주 찾아 못본 잘못도 빌겸 애들 혼사문제도 의논할가 해서요. ...애들도 이제 클대로 다 컸는데 인준 성례를 치러 주어야 할것 아니겠소.》

돌석이 어머니는 금시 꿈을 꾸는것만 같아 눈만 섬벅거릴뿐이였다.

《아니 음전이 혼처감은 다른 곳에서 구한다는건...》

《원, 사돈님도, 배속에서부터 약혼한 신랑이 있는데 다른데서 혼처감이라니...》

《글쎄 사돈을 정하긴 돌아간 저애 아버지가 정한 약혼이니 내인이야 따를밖에 더 있겠수. 하지만 지금에야 뭐 손에 쥔것이 있어압지요. 해두올가을 농사치나 보고 료량해압지요.》

《아파, 가을까지 기다릴것 없소이다. 잔치라야 이부자리나 애들 잔치웃인데 그건 이미 내 돌석이것까지 다 장만했으니 걱정할건 없소이다. 돼지나 뒤마리 잡고 떡이나 몇말 하면 되는거지요. 술은 이번 제사때 푼푼히 고아 놓았으니 그거면 되겠고... 여하튼 일체 다 나한테 맡기시우.》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두말할것없이 그대로 합시다. 내가 택일해 보니 래일이 마침 길일이라 하니 질질 끌지 말고 래일 하도록 하십시오. 이따 내 사람도 보내주고 두루 혼수감이란 음식들도 보낼테니...》

돌석이 어머니는 자기가 진짜 꿈을 꾸고 있지 않나 허벅다리를 꼬집어 보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배속에서부터 맺은 부부는 하루만에 벼락잔치를 하고 정식 부부지정을 한껏 나누었다.

돌석이와 음전이는 금슬지락이 맞아 한쌍의 원앙새마냥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찬수는 죽을 때까지 돌석이의 껍에 넘어 간줄은 정말 몰랐다.